



소비녀

제 27호



통 권: 제27호
 발행일: 2009년 2월 28일
 발행처: 성가소비녀회
 전화: (02)940-5845, 5800
 주소: 136-100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번지
 홈페이지: www.holyfamily.or.kr

Contents

6 소비녀들에게- 서로 사랑합시다 | 성재덕 베드로 신부

[특집] 관구 설립

11 관구설립의 날까지 | 강생의 길을 따라

14 관구설립 선포미사와 성가정 축제

22 의정부 관구 설립 감사 미사

24 인천관구 설립 감사 미사

26 성가를 비추는 말씀의 빛

27 교령

28 관구 설립 선포미사 | 황인국 문시놀

30 관구 설립 기념사 | 총장 이 프랑소아 수녀

32 의정부관구설립감사미사 강론 | 이한택 주교

36 의정부관구설립 감사의 말씀 | 고 프란치스코 수녀

38 인천관구설립 감사미사 강론 | 김용한 신부

40 인천관구설립 감사의 말씀 | 김 미카엘 수녀

아래로 가는 길 “소비녀, 비우고 가시오”

43 관구 설립에 대한 소비녀의 한 마디 | 김 막달레나 수녀 외 11명

55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 남 가말라 수녀

57 성가병원 식별과정을 통한 비움 | 이 테오도라 수녀

63 소비녀의 비움과 성가병원의 회년 | 이 프랑소아 수녀

강생의 터

66 소비녀, 농부를 꿈꾸다 - 풀무학교 | 김 니꼬데모 수녀

76 다문화 가정은 새로운 성가정 - 삼정 분원 | 이 유정를베드로 수녀

곱다시 모여사는

87 (논단) 강생의 영성과 자기 양성 | 김 레오 수녀

97 들숨과 날숨 | 박 마리후교 수녀

102 지역사회 안에서의 공동생활 | 김 오상비오 수녀

108 (단상과 시) 사랑의 노래 | 서 마리오미니까 수녀

109 (회고) 하느님이 나를 꼭 붙드셨으니 | 유 레지나 수녀

114 (말씀 안에서) 화밀서 - 화밀리아에게 보낸 두리마리 서간 | 김 화밀리아 수녀

117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 - 성경구절을 인용한 묵상시 | 김 필리아 수녀

119 (단상) 떠나고 바뀌는 모든 것에 대하여 | 송 까리따스 수녀

120 눈물 먹는 하마 | 1년 수련자 김 페트리나 수녀

122 별, 바람, 하늘, 나무, 바다 그리고 빛 | 70회 청원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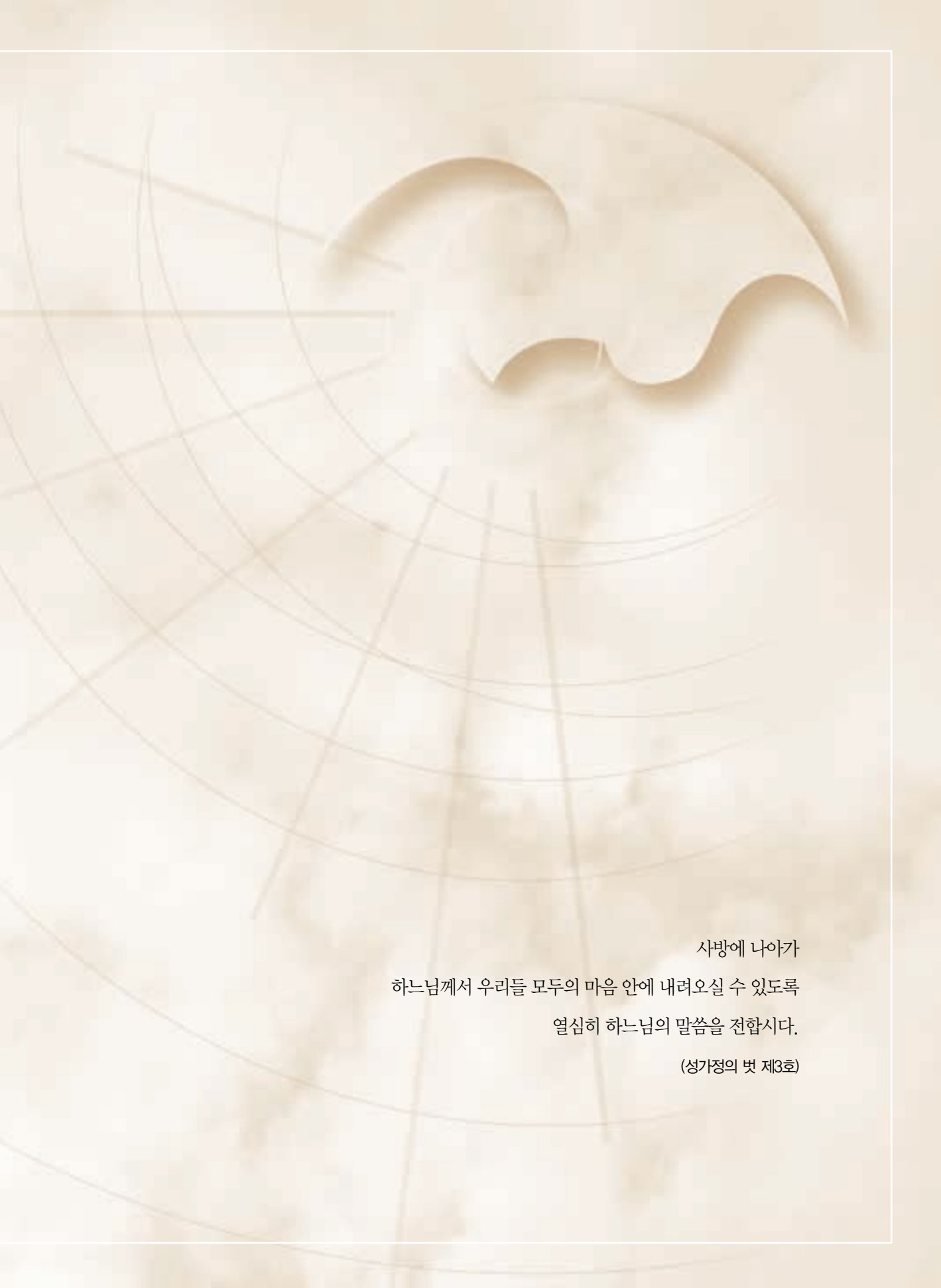
성가의 영성을 살아가는 사람들

124 예수마리아요셉회 회원의 글

134 예수마리아요셉회의 한해살이

136 거둠 | 소비녀의 여정 / 성가에 있었던 일

소비녀는 시대의 징표를 올바르게 알아듣고
세상 안에서 소비녀의 소명에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응답한다. (회현 4)



사방에 나아가
하느님께서 우리들 모두의 마음 안에 내려오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성가정의 벗 제3호)

서로 사랑합시다

| 성재덕 베드로 신부 |



- 이 글은 1976년 우리 수도회 총회에서 설립자 신부님께서 하신 강론입니다 -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늘님을 압니다.”(1요한 4,7)

나는 이보다 더 이상 좋은 말을 희망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상의 재물을 희망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 안에서 매일 하늘님의 더 뜨거운 사랑을 위하여, 단하나의 악, 즉 죄를 피하도록 하늘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우선 다른 자매를 먼저 생각하여야 하고 자신을 잊어야 합니다! 애덕이란 이런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애덕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서로서로 봉사하십시오. 각자는 자기소임이 있고 그 소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도 내에서 서로 도우십시오. 예를 들어 청소, 설거지, 또는 다리미질 등을 대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법은 사라집니다.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환자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하여 경험에 따라 좋은 방법이나 재료를 서

로 제공하십시오. 왜냐하면 수도원에서는 돈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 영적 자산도 공동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녀가 어떤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 다른 수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몸이 튼튼한 수녀는 환자를 돌보아주어야 합니다. 수도원 안에서 환자는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것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을 주셨으니 매일 기도 중에 여러분들의 수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히 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2. 수녀들의 결점을 용서해주고 숨겨주십시오.

선배 수녀님들은 젊은 수녀들을 특히 제일 젊은 수녀들을 절대로 다른 수녀들 앞에서, 또는 아이들 앞에서 질책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잘못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녀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집안에서 어떤 수녀가 잘못 행동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수녀들에게, 다른 분원에 가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두 수녀 사이에 불화와 오해가 있을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른 수녀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점에 대해 장상에게 말할 수 있지만 규칙 위반에 대한 것 외는 말

하지 마십시오. 이 수녀의 영혼에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수녀가 어떤 소임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했다면 그를 바꿀 필요는 있겠지만 그 일을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소임지에서 그 일이 그에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한 죄(힘담, 중상, 거짓말)는 큰 죄가 아니라고 하며 가끔 고해성사에서 고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대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애덕을 거스르는 죄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서 그런 죄를 피해야 합니다.

3. 서로 참아주어야 합니다. 결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하고 어떤 이는 덜하지만 어떻게든 모든 사람은 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참아 주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참아주어야 합니다. 어느 날 장상이 나에게 와서 함께 사는 수녀들이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고, 비판하기 좋아하며 불평이 많은 수녀들이라고 불평을 털어놓으며 참을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먼저 웃으면서 인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의 그녀의 잘못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하기에 다른 수녀들에 대해 너무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너무 너그러운 게 아니냐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수녀는 남의 눈의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수녀님들, 여러분들의 품행이 이상하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참아주는 수녀들이 오히려 덕성스럽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수녀는 착한 수녀였기에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고 그때부터 더 온순해졌고 더욱 사랑을 실천하였으며 요구사항이 줄어들어 지금은 공동체가 평화롭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4. 평화스러운 삶을 위해 불순명과 잘못을 애덕으로 서로서로 알려줍니다.

혼자 살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남의 결점을 보지만 자신의 결점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도자들 사이에 서로 알려주는 두 가지 관습이 있습니다.

가) 일주에 한번 공동체가 모여 각자가 고백합니다. 내적 죄가 아니라 자기 결점이나 규칙에 불순명한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또는 부족했던 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 각자는 스스로 어떤 친구 수녀를 선택하여 그에게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장상이 수녀를 꾸짖어서 마음이 상했으면 우리는 이 수녀가 화내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항상 말해주고 장상은 자기 의무를 하는 것이니 그 말을 따라야 한다고 일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수녀의 교만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자가 자기를 치료하는 약을 거절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권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순명을 권고해야 합니다. 교정을 거절하는 것은 수도자 정신과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교정은 완전한 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격 때문에 그 수녀에게 누구도 감히 말 할 수 없는 수녀는 장상에게는 근심덩어리고 공동체 전체에 고통을 줍니다. 교정을 원하는 사람은 고침을 주는 이를 사랑하고 올바른 판단과 굳은 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번역 : 최 벨라도 수녀)

관구설립? 아! 천주께 감사!!



| 이 레오날드 수녀 |

이 글은 이 레오날드 수녀님이 설립자 성 신부님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수녀님의 마음의 눈으로 소비녀들의
관구설립에 대한 설립자 신부님의 마음을 읽어보았습니다.



신부님!

소비녀들이 두 개의 관구를 설립한다고 말씀드리면 신부님은 분명 이렇게 대답하셨겠지요. “성령께서 하신다. 나는 너희가 커 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성령께서 항상 너희를 데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 보고 놀라고, 기도하며 지켜보고, 기쁨으로 ‘천주께 감사’를 드렸다. 나는 지금 또 놀라지만 기쁘다, 천주께 감사 한다.”

항상 무엇인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여쭙어 보면 신부님은 결코 의견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 내가 막을까 두려워요” 라고 하시고 “지금은 예수께서 너를 데리고 너와 함께 일 하시니까 성령께 기도하면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974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회칙 변경의 무거운 소임이 주어졌을 때 제가 그래도 조금 안심 한 것은 설립자 신부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매번 한결같이 “지금은 수녀가 설립자라고 생각하시고, 공의회 정신, 신학 공부한 대로 잘 하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요” 하셨어요. 회칙 한 조항 한 조항 써서 신부님께 보여 드려도 읽으시고 활짝 웃으시는 얼굴로 원고를 넘겨주시는 것, 저는 매번 그 모습에서 격려를 받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신부님, 저도 제 후임들이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저를 도와 주셨듯이 그들을 도우심을 믿고 보고 확신하며 신부님의 표양대로 제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많이 조심을 했습니다. 관구 설립에도 물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믿으며 신부님처럼 ‘천주께 영광’을 드리며,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관구들의 미래를 꿈꾸기도 합니다.

저희가 관구 설립을 통하여, 더욱 널리 복음을 선포하고
강생의 영성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며
저희 자신과 공동체가 쇄신되어 증거 하는 삶을 살아가려 하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길로 이끌어 주시고
기쁘게 비우고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부님,

저희가 관구를 설립하는 목적을,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또 미소로 축복하시겠지요! 언젠가



그러셨죠, “아! 거룩한 경쟁은 좋은 것이다.” 이제 두 관구가 거룩한 경쟁을 하며 ‘열심 중에 살 것’입니다.

신부님의 유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열심 중에 기뻐하는 작은 여종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밝게 따뜻하게 비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은 소비녀들이 너희 친 형제라고, 합심이 너희 문장이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는데 이제 두 형제에게 살림을 내 주시는 아버지 마음, 걱정이 크시겠지요? 사실은 저도 그 점을 많이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어느 날 기도 하는데 문득 흥부네 가족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도 보이고 그때 저에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우리 소비녀회의 두 관구는 놀부와 흥부의 두 형제가 아니야! ‘흥부 쌍둥이’ 형제야!”

신부님, 두 흥부네 쓰러져 가는 울타리에 커다란 박이 아이들만큼 주렁주렁 달려서 세상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이들과 풍요롭게 나누어 주며 그 속에서 두 가족은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두 흥부 가족은 서로 돕고 하느님께서 커다란 박 속에 가득 담아 주신 보화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며 기쁘게 비우고 내리고 또 내릴 것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 까지… 신부님 이 원하시는 것도 그것이기예요…

가난함과 가난한 이들 사랑은 흥부네 쌍둥이에게는 삶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신부님, 활짝 웃으시는군요. 꿈이 아름답다고, 속으로 ‘너는 항상 영똥한 데가 있지, 예수님은 너의 그 모습을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래요. 그렇지만 저의 꿈은 곧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공동체가 커서 걱정하시기도 했잖아요? 이제 작게 나누어 살면서 서로 사랑으로 일치하여 기쁘게 살 것입니다. 작게 또 작게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 행복을 나누며, 기쁜 소식을 빨리 빨리 전하는 것은 신부님께서 온 생애를 바친 선교사의 삶, 소비녀들은 닮아갈 것입니다. 신부님께서 원하시는 것, 소비녀들 가난하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에 기쁘게 순명하는 것, 항상 활짝 웃는 행복한 모습 보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딸들, 신부님의 사랑하는 딸들, 이제 비우고 떠나는 그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마리아님 요셉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읍니다. 아멘.



이 레오나르트 소비녀

성가소비녀회 의정부 · 인천 관구 설립

2008년 12월 28일 복음 선포와 주님 강생을 더욱 힘차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2개의 관구를 설립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선포하였다.

이제 복음 선포와 주님 강생의 두 갈래 길을 떠나는 소비녀들,
한 벌의 옷을 반씩 나누어 입고, 하나의 지팡이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한 켤레의 신발을 한 짝씩 나누어 신었기에
우리는 늘 반쪽의 가난함을, 더 깊은 사랑으로, 더 큰 합심으로
서로 채워주고 부추겨 주며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관구 설립의 날까지



사제 성재덕 베드로
(Pierre Singer)



그의마음 안에
그의기도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강생하였습니다.



강생의 길을 따라

예수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셨으니
당신들 또한 내리시오, 내리시오, 강생하십시오.



선교사로서
성가소비녀회의 설립자로
학생을 바친 그는
아름답게 죽은 나무의
가냘팠 그후리가
되었습니다.

그를 보았습니다.
정운이 감동과 사랑
그 슬픈 시대의 표징과 아픔을
하느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들이 응답하였습니다.
하느님이 불러주시는
“소비녀!” 그 작은 이름에
순명하여 기뻐하여
죽음을 많은 가냘팠 단련함
소비녀들이 이룬 작은 성가정에
하느님의 사랑이 강생하였습니다.

소비녀

(나사렛 성가성의 작은 여종들)



강생하신 사랑의 강은
세상의 낮은 자리,
가난과 고통의 땅을 적시며
아래로 아래로 흐릅니다.





스물 다섯 공이 열성과 성장의 길을 지났습니다.

백세기 비둘기와 소새의 길을 지났습니다.

60년 하숙의 뜻에 우리들이 온 집은 사랑과
내적성장의 길을 지났습니다.

소녀네들을 통하여 이어온
주님 감성의 역사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에도 흐르는
그 사랑의 감을 아뭇 포박을 수 없습니다.

2008. 12. 28

관구 설립 선포미사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영성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며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쇄신되어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관구를 설립한다.



▶ 온산이프함소아수녀의 교령선포



▲ 양 관구의 관구장, 관구 범의원 수녀들의 영성 및 순명성서



수련사들의 봉헌 후



▲ 세원의 성명서와 설립사 말씀달력, 말씀수련노트 봉헌



▼ 축하식



아무 것도 없었던 성가의 첫 살림에서
 이토록 보배로운 성가집,
 아름다운 영성과 사명의 공동체를
 일구시고 물려주시는 람신들처럼
 우리도 그렇듯 작고 기난함으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더욱 깊이 강생하게 하소서.



합심외문잔 아태 노인 수비니들(선 회원사님 촬영)

우리, 가장 큰 하나가 되기 위하여



소녀녀, 기쁨을 노래하라!



소녀야, 하나님의 춤을 추라!



소녀녀, 어제를 감사하라!



소녀녀, 네일을 꾸꾸라!



2009. 1. 12

의정부 관구 설립 감사미사



미사 시작



본헌예결(동복, 성가대), 설립자의 유언서, 후착, 지구본 봉헌 ▼



합심(合心)의 손을 잡고 성가(聖歌)의 딸들



관구(管區)상(上)회(會)순(巡)행(行)을(을) 시(時)원(願)하(하)는(는) 회(會)원(員)들(들)



현판(懸板) 축(祝)복(福)식(式)

기쁨의 열정

성가(聖歌)소(小)녀(女)회(會)의(의)정(正)부(副)관(官)구(區)설(設)립(立)

김사(金)마(馬) 2009.11.12

새 하늘로부터 떠오르는 태양이
가장 먼저 찾아오신 동녘, 새 땅에서
첫 발자국을 내딛는 소년(少年)들(들) 위에
주님의 영(靈), 기쁨(喜)과 열정(熱)의 영(靈)이 머물러니
땅 끝까지 강생(强生)의 사도(使)들이 되소서.



2009. 1. 13

인천 관구 설립 감사미사



미사의 시작



▲ 편곡상님께 순영을 서원하는 회원들

◀ 헌당 축복식



보혈애설(인천외국선교회)의 이듬이 설립 축복 봉헌



외국선교회 소니녀의 감사의 말씀을



인천외국 231명 소니녀들의
이듬이 세겨심 조

모든 것을 받아들인 바다,
 더 큰 세상을 향해 열려진 바다에 청배를 띄우고
 복음 선포와 강생의 뜻을 물리니
 힘찬 선교 의지를 실현하소서.



성가를 비추는 말씀의 빛

관구 설립 봉헌물

세 권의 성경책



상징!

성경책 표지에 새겨진 십자가는 합심의 십자가이다.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두 십자가는 마치 대바구니처럼 짜여 지고 끊임없이 연결되어 서로를 보완하며 나란히 걸어간다는 의미로 설립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합심의 문장을 상징한다. 성가소비녀회 로고 옆에 놓인 세 개의 점은 우리 수도회의 영성인 강생과 삼위 일체의 사랑, 예수마리아요셉 세분께서 이루신 나자렛 성가정을 의미한다.

의의!

세 권의 성경책은 총원과 두 관구에서 각각 한 권씩 소중히 보존하며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소비녀들을 비추어주는 빛이 될 것이다. 또한 총회 때마다 새로 소임을 맡는 총장과 관구장은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말씀 안에서 소임을 받고 이행할 것을 선서하며 서명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족보처럼, 우리 성가정의 가보처럼 대대로 소중히 이어가며,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온전히 살아가는 표지가 될 것이다.

설립자 말씀 달력

설립자 성 베드로 신부님이 쓰신 글과 강론집 등에서 영성, 봉헌생활, 기도생활, 공동생활, 사도적 생활, 수도회 운영과 교회, 기타의 7가지 주제에 따라 발췌하여 365일간의 말씀으로 엮은 달력이다.



말씀 수행 노트

소비녀들이 주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말씀 수행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제작한 노트이다.





성가소비녀회 의정부·인천관구설립
교령 (Decretum)
(2008-1)

2007년 1월 5~12일 개최된 우리 수도회 총회는
두 개의 관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인 이 프랑소아 수녀는 의정부관구와 인천관구 본원이 설립될
의정부교구 교구장 이 한택 요셉 주교와 인천교구 교구장
최 기산 보니파시오 주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고, 교회법 제 581조와
제 29-30조, 우리 수도회 회헌 제 104, 112조의 규범이 나에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구가 설립되었음을 이 교령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 의정부 관구본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김용동 555-24
(관구본원을 의정부교구 내에 신축하기 전까지 그 본원을 김용동 555-24번지에 둔다.)
- 인천 관구본원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2-5
- 관구설립 목적 : 복음을 선포하고, 강생의 영성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며,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채신되어 증거하는 삶을 살기위해서 관구를 설립한다.

2008년 12월 28일 성 가 소 비 녀 회

총장 이규선 프랑소아 수녀

이 프랑소아 수녀

서로의 뿌리를 얻고 자라는 삼나무처럼

오늘 성가정 축일을 맞으면서 두 관구, 의정부 관구와 인천 관구를 탄생시키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성가정 축일이기에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성가정의 예수 마리아 요셉 세분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상해봅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창설자 성재덕 베드로 신부님께서도 흐뭇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창설 65년을 맞이하며 그동안 살아온 여러 가지 일들의 열매로 오늘 하느님과 창립자이신 성 베드로 신부님께 선물을 바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0년이라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60년을 살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편에서 본다면 물론 짧은 세월이겠습니다. 이제 두 관구로 나누지 않으면 안될 만큼 성장했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창립자의 정신에 의해서 설립된 이 수도회가 그동안 오백 명에 가까운 큰 수도회로 성장하면서 둘로 나눈다고 하니 예수마리아요셉 그리고 설립자께서 어찌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그동안에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둘로 나누는 것이지만 앞으로 더 큰 성장을 위해서 하는 일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제가 본당 주임 신부로 있으면서 본당을 여러 번 분할해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교적 상 신자 수 1600명밖에 되지 않는 본당에서 둘로 나누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분할을 하고 나면 즉시 멀지 않아서 두 곳 다 예전 숫자로 성장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두 관구를 탄생시킴으로써 생각보다 훨씬 빨리 두 관구가 크게 성장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 그리고 양적인 성장, 양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빨리 성장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뜻이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 너희는 세계 만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느님의 뜻을 알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봉헌생활을 하시는 수녀님들께서는 그런 뜻에서 오늘 관구를 분할하고 큰 수도회로 발전하기 위한 틀을 짜고 계심이 틀림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기뻐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



서울대교구 수도자 담당
황인국 몬시뇰



는 수녀님들에게 많은 은총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역시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또한 틀림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두 관구가 틀을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복음 16장 21절에서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힘든 작업을 시작하지만 곧 기뻐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다 해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주시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화합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두 관구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신다면 수도회는, 그리고 두 관구는 틀림없이 크게 성장해갈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삼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그 근방에 삼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곳을 걸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의하면 삼나무는 휘거나 썩지 않는 독특한 성질 때문에 갑판을 만든다거나 집 외부를 장식하는데 목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삼나무는 크기가 엄청나서 높이가 무려 100m에 가깝고 무게가 2,000톤 되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크기나 그 긴 수명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큰 나무의 뿌리가 그리 깊지 않고 얕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폭풍우에 쓰러질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그 삼나무는 끄덕도 하지 않고 그렇게 크게 높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비밀은 균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숲을 이룬 나무들이 자라면서 뿌리를 서로 엮는다고 합니다. 뿌리는 아주 얇지만 서로 엮고 있는 한 힘으로 그 큰 나무들이 쓰러지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단단한 나무로 계속 성장해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썩지 않는 성질 또한 생존 방식에서 기인한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한 가족으로서 이런 삼나무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각자가 보람 있는 수도생활을 하시게 될 것이고 수녀원도 계속 성장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들은 대로 성모님은 얼마나 큰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시므온의 예언대로 칼날이 그분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성모님은 모든 것을 받아들여시고 구세주를 이 세상에 낳으시고 인간 구원사업을 도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시면서 두 관구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모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집 주인의 난처한 입장을 아시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는 아드님에게 도와주시도록 간청을 합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는 말씀으로 도와주시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 많은 도움을 간구해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양쪽 관구 모든 수녀님들 계속 성장해가시고 또한 개인적인 생활면에서도 훌륭한 수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교구장님을 대리해서 축하인사 드리고 모든 수녀님들께 하느님의 무한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설립자의 정신을 앞세우고

65년 전 소비녀들을 통하여 이 땅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가운데 강생하시어, 성가소비녀회 65년 여정을 함께 걸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관구설립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해주신 좋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비녀들에게는 먼 길 떠나는 아브라함처럼, 익숙하고 안정된 곳을 떠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 새 땅을 향해 가는 비움의 날이며, 우리에게 주신 강생의 소명에 더욱 헌신하고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서로의 손을 굳게 잡는 쇄신과 합심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설립자 성 신부님과 수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소비녀들이 하고자 하는 일, 소비녀들이 가려는 길을 사랑과 격려로 축복해주시는 최창무 주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때때마다 와주셔서 저희 공동체의 큰일, 작은 일들에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서울대교구 수도자 담당 황인국 문시놀과 모든 신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성생활의 한 길을 걸으며 언제나 도타운 도반의 정을 나누어주시는 이웃 수도회의 모든 수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치 겨자씨 한 알과도 같은 작음으로 시작한 우리 수도회가 오늘 이렇게 두 개의 관구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동체가 성장하고 확장되고 발전했다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관구 설립의 여정은 더 큰 성장을 위해 익숙하고 안정되고 소중한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나누어야 했던 우리 모두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오직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합심과 기도로 함께 하며, 새로운 각오로 길을 나서는 우리 수녀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비우고 떠날 수 있었기에 더욱 기쁘고 희망이 실린 발걸음입니다. 관구설립 전에 성가병원을 식별하고 무상양도함으로써 전회원이 합심의 마음으로 비움의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우리의 비움은 하느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임을 전 회원이 체험했습니다. 비움이



총장 이 프랑소아 수녀



어떤 것인지 비움의 멧을 알고 체험한 소비녀들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관구 설립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되뇌었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해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강생의 영성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며,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쇠신되어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관구를 설립합니다.

더욱 널리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의 더욱 낮은 곳으로 소외된 곳으로 주님의 강생을 계속하기 위해 길을 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궁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두 관구와 총원이 동시에 하느님의 말씀과 설립자의 정신을 앞세우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에서 우리는 세권의 성경책과 설립자 말씀달력, 말씀수행노트를 봉헌하였습니다. 성경책은 하느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달력은 우리의 매일 매일을 설립자의 정신으로 쇠신하며, 말씀수행노트는 말씀을 내면화하고 그 말씀을 세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소비녀들의 삶을 상징합니다. 의정부관구, 인천관구, 그리고 총원이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간다면 우리는 하느님 마음에 꼭 드는 소비녀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봉헌한 세 권의 성경책은 아주 의미 깊은 것입니다. 성경책 한 장 한 장을 손으로 제본하였기에 이 책은 보통의 책과는 달리 몇 백년 이상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의 무한성과 영원함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표지는 양가죽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어린 양 세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관구 설립을 계기로 새로운 길을 나서는 소비녀들도 어린 양처럼 하느님 앞에 새롭게 바쳐지는 제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하신 말씀과 함께 우리 성가 소비녀회를 통해 이루시려는 주님 사랑의 역사가 무한히 계속되기를, 어린양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소비

녀들도 세상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바쳐지는 강생의 제물이 되기를, 제물이 되는 삶을 살기를, 오늘 관구 설립을 선포하는 날에 깊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권의 성경책을 의정부 관구, 인천 관구, 총원에서 한권씩 보관하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족보처럼, 우리 성가정의 가보처럼 대대로 소중히 이어가며,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끊임없이 되새기고 온전히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관구로 살아가게 됨을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둘이지만 더욱 더 하나임을 선포한 날이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 하나이시듯이 의정부 관구, 인천 관구, 총원이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 하나임을 선포합니다. 설립자 성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합심”을 문장으로 주신 그 뜻을 오늘 더욱 깊고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성가정에서 예수님, 마리아님, 요셉님이 사셨던 것처럼 의정부, 인천 두 관구와 총원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 기도해주며, 두 개의 같은 길, 주님 강생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임을 항상 되새기며,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설립자 성 신부님의 유언서 앞에서 약속해야겠습니다. 유난히 형제애가 깊고 애뜻한 우리들이기에 헤어짐이 많이 힘들고 아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주님께서 새롭게 마련해주시고 열어주시는 길 앞에서 “예”라고 응답하신 성모님처럼 우리 소비녀들의 마음도 기뻐 뛰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구설립은 우리 소비녀들에게 희망에 찬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길로 걸어온 우리에게 이제 이만큼 컸으니 두 개의 길로 가라고 파견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받은 날입니다. 더욱 가난한 세상으로 더욱 낮은 곳으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초대장을 손에 든 우리 작은 여종들, 이제 힘차게 복음 선포의 길을 떠납시다.



강생의 카리스마를 세상에 증거할 기회

관구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수녀님들 나름대로 이 의미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밖의 사람이 와서 이 의미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 빛이 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가소비녀회의 의정부 관구 설립은 의정부 교구의 경사입니다. 성가소비녀회에서 이렇게 뜻 깊은 경사를 의정부 교구와 나누시겠다고 하니 의정부 교구의 입장에서 여간한 은총이 아니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가소비녀회의 한 관구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제가 느끼는 의미 몇 가지를 여러 수녀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관구 설립은 성가소비녀회가 그동안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보편교회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총장 수녀님께서 공포하신 교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가소비녀회가 강생의 카리스마를 이 세상에 더 증거하고 더 주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수도회를 창설하신 성 베드로 신부님의 카리스마가 교회에 끊임없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사라는 것입니다.

이 성당은 제가 예전부터 여러 번 수녀님들과 함께 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수녀님들과 함께 미사하고 강론도 하고 장례미사를 주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흰 수건을 쓴 수련자들이 이 자리에 소복하게 앉아 있었고, 흰 수건 쓴 언니들을 동경하던 많은 지원자들도 이곳에 앉아 있었지요. 여러 가지 행사에 제가 종종 와서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성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라 정원에서 왔다 갔다 하시며 산책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사시던 그 집이 지금도 남아있지요? 거기는 성가소비녀회의 성지 중에 성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 신부님께서 수녀님들에게 행동으로, 삶 자체로 당신의 카리스마를 풍기시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 남



의정부 교구장 이한택 주교



겨놓으신 글을 수녀님들이 정리해서 강론집 같은 것을 만들어내셨지요. 신부님께서 남기신 몇 가지 글을 읽으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강론과 피정지도를 여러 번 한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성 신부님께서 여러 수녀님들을 통해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아주 의미 깊은 것을 심어주시려고 노력하신 것이 이제 싹만 튼 게 아니고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큰 고목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뿌리를 잘라서 접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뿌리까지 옮기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두 관구로 나누는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 뿌리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가소비녀회가 두 관구로 갈라진다는 것은 새로운 수도회가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가소비녀회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 방법적으로 관구가 갈라지는 것이지 수도회가 바뀌거나 새로운 수도회가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뿌리를 강조하는 것이지요. 성가소비녀회의 역사가 길건 짧건 간에 성가소비녀회 전통이 세워졌고 이제 다시 갈라져 나가지만 그 뿌리를 갖고 가야 성가소비녀회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일차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성 신부님의 카리스마는 오늘 날 한국 사회 내지는 한국 교회에서 의미가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전파시키고 이 카리스마를 통해 교회에 봉사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성가회가 커진 것도 중요하지만 커진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가회가 이렇게 커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것은 수도회의 카리스마가 우리교회에 대단히 소중한 뿐만 아니라 이 카리스마가 살아나야지만

된다는 필요성을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의정부 교구 교구장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의정부 관구 수녀님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의정부 교구로 갈라지는 관구는 집도 없고 갈 데가 없어서 살 곳을 마련할 때까지 총원에서 살도록 총장 수녀님께서 관대하게 몇 년 동안 허락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서부터는 더부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면 그렇게 의정부 교구와 똑같은지요! 의정부 교구가 생겨날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교구의 크기나 신자 수나 사제의 수로 보면 한국에서 작은 교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열악한 교구 중의 하나입니다. 생긴 지 이제 다섯 살, 우리나라 나이 세는 법으로 해서 다섯 살이지 만 네 살 조금 넘었습니다. 성가소비녀회 의정부 관구는 이제 막 생겼으니 갓난이지요?

성가소비녀회 갓난이와 네 살 배기 의정부 교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의정부 관구는 걸음마도 못하는 단계이고, 말도 엄마 아버지밖에 몰라요. 그러므로 의정부 관구는 이제 하느님께 매달리고 성모님한테 매달리고 요셉 성인한테 매달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의정부 교구와 성가소비녀회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관구로 오시는 수녀님들,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성 베드로 신부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성 베드로 신부님은 시성은 안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정부 교구로 오시는 의정부 관구의 수녀님들께는 의정부 관구로 소속된 것이 특은 중의 특은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주님공현대축일과 예수님 세례 축일을 지나서 이 성당에도 구유가 모두 치워졌는데 이 “구유”에 의정부 관구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성가는 예수님 성모님 요셉 성인이 계신 집입니다. 성가정을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리적으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하면 외양간, 외양간 하면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구유입니다. 이 성당에 있던 예수님의 구유는 어떻게 꾸며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의정부 교구의 곳곳을 다니면서 구유 꾸며놓은 것을 볼 때 항상 미흡하게 느낀 것은 아기 예수님을 너무 부드러운 요에 눕혀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신심 차원에서조차 좋은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유통에 누우신 것이 참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외양간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유통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누워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정부 교구로 갈 때, “나는 베들레헴으로 간다, 나는 외양간으로 간다”는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 다. 의정부 관구 수녀님들, 수녀님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외양간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계시는 성모님과 성요셉님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성 베드로 신부님께서 쓰신 글 중에 성가소비녀회가 처음 생긴 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창립25주년 책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도생활 시작할 때 한국은 전쟁터였습니다. 고아가 생겨나고 가난한 사람들뿐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수녀님들을 큰 소리로 환영할 수 있는 것은 의정부 교구가 아무리 열악해도 6.25때보다는 낫다

는 것입니다.(웃음) 전쟁 중에 시작된 성가소비녀회의 초창기의 사진보다 의정부 교구가 훨씬 부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도회가 시작한 곳이 혜화동이었습니다. 의정부 교구의 아무리 가난한 본당이라도 수녀님들의 대 선배 수녀님들이 혜화동에서 사셨던 모습과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예전에 피정을 하면서 제가 종종 언니 수녀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혜화동 언덕을 올라가는 길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성가소비녀회 수녀님들이 빨래 거리를 가져와 거기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 빨래를 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이지만 제가 그때 우리 수녀님들 뵈었을 때는 이보다 더 추운 날이었습니다. 빨래를 하고 있는 수녀님들의 손이 새빨갳고, 얼굴, 코가 다 새빨갳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 우물물에 빨래하시는 것을 저는 신학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수회 신학생 들은 통학을 했습니다. 자전거 끌고 혜화동 길을 올라가면서 수녀님들을 위해 화살기도도 종종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초창기의 수녀님들은 가난하게 시작하셨습니다. 그 열악한 여건에서 이 수녀회가 탄생을 하고 점점 커졌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의정부 관구로 오시는 수녀님들은 한편으로는 혜화동을 생각하시고 한편으로는 외양간의 구유를 생각하시면서 의정부 교구에 오시게 된 여건이 하느님께서 마련해주신 것이 아닌지 그 뜻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의정부 교구와 의정부 관구가 이렇게 비슷한 여건이니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동창생들로 수녀님들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뜻을 부여하고 싶은 것은 성 베드로 신부님의 글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제가 해석하기에 성 베드로 신부님의 영성



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가소비녀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하느님의 뜻 외에 아무 것도 강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성 베드로 신부님께서 성가소비녀회에 강조하신 것이 소비녀입니다. 제가 여기 정릉 수녀원에 처음 왔을 때 몇몇 수녀님들이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큰 비녀도 아니고 작은 비녀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 베드로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소비녀는 바로 성모님입니다. 우리가 삼종경 때마다 바치는 “주님의 소비녀이니 지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이것이 바로 제가 느끼는 성 베드로 신부님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소비녀가 뭘니까? 소비녀는 주인 양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주인 양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주인 양반이 제일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든지 내가 어떤 취급을 받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주인이 기뻐하시고 주인이 좋아하시고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 안팎으로 꼭 필요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에게 필요한 영성은 Anchilla, 소비녀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난 상황, 국회 문짝이 전기톱으로 부숴지고, 도끼, 망치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소비녀는 고사하고 대비녀도 되기 싫다는 것이지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시중드는 입장에 있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현대인의 삶의 철학 중의 하나입니다. 성 신부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마 지금 여기서도 “정말 세계 평화를 원하느냐? 대한민국의 평화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소비녀처럼 살아라” 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수도회 밖의 사람으로서 해석하

기를 성가소비녀회가 두 관구로 나눈 것은 성 신부님의 고귀하고 거룩한 이 카리스마를 보다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거대한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좀 가볍게 될 수 있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동성을 주고,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관구가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수녀님들께서는 새 관구에 소속되면서 한편으로는 총원뿐만 아니라 성가소비녀회의 전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은 항상 살아있어야 합니다. 서로 이쪽 관구 저쪽 관구로 갈라져 있는 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뗄 수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수녀님들을 맞이하는 교구의 입장에서 수녀님들의 관구 설립에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의정부 교구에 오셔서 여러 수녀님들이 성 베드로 신부님의 카리스마를 최대한으로 활성화하시면서 열매를 맺으신다면, 좁게는 의정부 교구의 여간한 은총이 아니겠고, 또 크게는 한국교회, 나아가 보편 교회에 큰 은총이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수녀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약혼 시절에로 초대받은 우리

성가소비녀회를 두 개의 관구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관구를 기꺼이 받아주신 의정부교구 교구장 이한택 주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소비녀회 의정부 관구 설립이라는 역사적이고 뜻 깊은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는 작은 여종으로 주님 앞에 대령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리워하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약혼시절에로 우리도 초대받은 느낌입니다. 에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따르겠지만,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오직 주님만을 찾아가는 강생의 길임을 확신하며 힘차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널리 복음을 선포하고 강생의 영성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며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쇠신되어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걸음을 떤었습니다. 이 출발은 제14차 총회 결의문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삶으로 옮기는 순례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어진 명어를 오직 순명으로 “예”하며 소임을 받아들였으나 부족한 제가 어떻게 이 여정을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네 힘이 되어 주겠다.”(탈출3,12) 하시며 모세를 부르신 하느님을,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따를 뿐입니다. 아버지 성 신부님의 신앙의 모범을 바라보며 끝없는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녀들의 문장인 합심 아래 사랑하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부족한 저를 마음으로부터 함께 해주며 기도와 사랑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믿으면 위로와 용기도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성가정의 특으로 모든 것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할 수도 공동체가 있음은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은인지 모르겠습니다.

관구설립의 상황은 종의 모습으로 성가정 안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더 가까



의정부 관구장
고 프란치스코 수녀



이 철저히 따르며, 내리는 사랑의 강을 따라 세상의 더 낮은 자리로 우리 소비녀들이 내려가길 재촉합니다. 설립자 성 신부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마와 사명을 이 시대의 표징과 요청 안에서 어떻게 재창조 할 것인지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으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적유산들을 보존하고 꽃피우며, 세상에 주님의 인자한 얼굴을 보여 주는 기뻐하는 소비녀들의 작은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며, 한 알의 밀알처럼 밀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형제적 사랑 안에서 강생의 영성을 사는 행복한 소비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함께 이루고 싶습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수도 삶의 본질적인 의미와 맛을 함께 되찾아 보다 온전한 봉헌의 삶이 되도록 마음을 모으고 싶습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도우심으로 생기 넘치는 우리의 새 출발이 되길 희망합니다.

“주님의 안배를 믿고 해보시오.”라고 격려하시는 설립자의 말씀 따라 두려움 없는 신앙의 시작이기를 희망합니다. 초창기 수녀님들의 기쁨과 용기를 지니게 되는 새 출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성모님의 피앗 정신으로 응답하며, 세상 곳곳에서 기뻐하는 소비녀의 마니피캇을 노래하는 기쁨과 열정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을, 성체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 거듭 내려오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소비녀들이 되는데 온 마음을 기울이고 싶습니다.



나자렛 성가정의 작은 여종의 모습대로

인천 관구 설립을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핸드폰 소리가 들렸어요. 당황해서 웬 전화인가 하고 받았는데 교황청 비서 추기경님이 축하한다고 전화하셨어요(웃음).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인천 교구에 수도회 관구가 설립되는 것에 교구장님의 환영과 함께 축하와 감사를 전합니다. 성가소비녀회, 나자렛 성가정의 작은 여종 수녀회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임을 책을 통해 보았습니다. 1943년 12월 25일 수녀회가 창립되었고 그 역사가 65년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943년이라면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직전으로 일제 말기가 될 것이고 또한 그때는 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었으니 상황이 어려울 때지요? 그때 설립자이신 성재덕 신부님이 국내에서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 받는 이웃을 돕기 위한 수도회가 필요함을 느끼시고 이재현 신부님, 공 베드로 신부님과 상의하여 당시 혜화동 본당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을 지원자로 받아들여 성가소비녀회가 창립되었고 회칙을 만들어서 노기남 대주교님께 인준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이웃 돕기 위한 성가소비녀회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시작된 공동체가 65년의 성장을 거듭해서 두 관구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47년에는 첫 서원자가 생겨서 충청도 합덕 첫 본당에 파견되었고 또 수원 본당에도 파견되어 나가셨고, 49년에 교황청 인가를 받으셨습니다.

주요 사업들을 보니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업을 주로 해오셨습니다. 양로원, 병원, 나자렛 기술학원, 미망인 양재소, 안나의 집, 시작할 때의 그 목적대로 이웃을 돕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성가정의 작은 여종의 모습을 담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77년도의 안나의 집은 신체장애인을 위한 양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업인데도 하셨어요.



인천교구 사무처장
김용환 신부



74년에는 성가소비녀회를 성가수녀회로 개칭하셨다가 다시 성가소비녀회로 이름을 되찾으셨지요. 시작할 때의 첫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셨고 그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좋은 정신을 갖고 수도회가 시작되었고 또 그 정신을 꾸준히 실천해온 과정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 마음으로 흐뭇하고 계속 이런 일을 많이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제가 소사3동 성당에 주임 신부로 약 3년간 소임했었는데 끝날 무렵에 수녀님들이 공동생활을 하시겠다고 본당을 떠나시기를 청하셨습니다. 본당에서 나와 공동생활을 하시면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본당 일도 중요하지만 수녀님들이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아픈 곳을 달래주고 정서적으로 위해 주는 것이 이 시대의 수도자들의 본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임 신부님과 의견 차이가 있어 잘 성사가 안 되었습니다. 어쨌든 성가소비녀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을 보면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늘 함께 하고 있는 수녀님들 모습이 이 시대의 하느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나자렛 성가정의 작은 여중 수녀회의 그런 모습을 늘 지니고 사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새롭게 한다는 말씀과 함께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도전적인 말씀으로 기존의 생각이나 틀을 바꾸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깊은 뜻을 새롭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시대의 징표를 잘 알아야 되겠지요.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 시대에 어찌면 하나의 징벌일 수 있는 요즘의 경제 불황을 보면서 느낍니다. 물질에 모든 것을 두는 것에 대한 하

느님의 일침이라고 생각됩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천 교구에 새로운 관구 설립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조금 전에 인천 관구 수녀님들이 인천 교구에만 121분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약 500여명의 회원들 중 230여분이 인천 관구에 소속되었고, 그중 3분의 1 이상이 인천 교구에서 활동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무엇보다 그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여종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에 따뜻한 말 한 마디,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 한 마디가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녀님들이 지향하고 실천해온 것처럼 사회 복지 차원에서도 많이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구 설립과 함께 성장하는 수도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구장님께서도 관구 설립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인천 교구의 발전을 위해서 분투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관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택과 응답의 여정을 시작하며

먼저,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해주시고, 소비녀들을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가 새 하늘 새 땅을 향해 의미 깊은 첫발을 내딛으며 하느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인천교구의 사무처장 신부님과 모든 신부님, 총장 수녀님을 비롯한 모든 수녀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수도회 설립 이래로 가장 큰 변화의 조류를 헤치며 한 배에 올라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쇄신의 물결 위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깨달아 알도록 소비녀들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하느님께 깊은 기도로 청하면서 우리는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의 새 역사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 4반세기 동안 우리 수도회는 소비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도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식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수도생활이 요구하는 본질적 삶을 회복하고, 설립자를 통해 드러난 수도회의 카리스마에 따른 소비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로 수도회의 관구설립이라는 과제를 통해 이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수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쇄신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크고 작은 식별 작업과 그에 따른 변화들을 통해 우리 내면에 다져진 소비녀의 정체성은 이제 좀 더 과감하게 우리 자신을 비우고 세상 안에서 소비녀가 영적 유산으로 받은 고유한 성소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구설립은 우리 자신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이는 또한 소비녀 성소에 충실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열망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라 여겨집니다. 이 선택과 응답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다만 시작을 알리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안에서 하느님이 이미 응답하셨고 앞으로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천 관구장
김 미카엘 수녀



따라서 이제 수도회의 재 창립자가 된 인천관구의 모든 소비녀들은 “복음의 빛으로 서원생활을 쇄신하고, 우리의 영성인 강생의 삶을 심화하여 세상 안에서 이를 삶으로 증거” 할 수 있도록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비움을 실천하며, 쇄신과 변화에 따른 물살을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길처럼 도전과 역경으로 험난한 광야의 길이 되겠지만 우리는 희망하며 힘을 얻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1950년대부터 소사, 복사골이라 불리던 이 땅에 소비녀들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가난하고 부족하기만 했던 소비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시어 오늘 새롭게 강생의 역사를 열어갈 인천관구의 터로 일구어주신 하느님과 우리의 주보이신 예수님, 마리아님, 요셉님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성가소비녀회가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은인들과, 지금 하늘나라에서 소비녀들의 새 걸음을 지켜보시며 힘을 내라고 응원해주실 설립자 성재덕 신부님, 수도회 초창기 수녀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소비녀의 삶을 증언해 주시는 원로 수녀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수녀님들과 함께 새 역사의 장을 열어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사독서에서 들은 것처럼(요한복서 21,5)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새 마음으로 강생의 길을 따라 내리는 소비녀들이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며 새 하늘, 새 땅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 길에 함께 나선 인천관구의 모든 수녀님들께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래로 가는 길
“소비녀, 비우고 가시오”

관구 설립의 새 날을 여는 목소리

관구 설립에 대하여 소비녀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1. 우리 수도회의 관구 설립이 수녀님 개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 관구 설립 이후 두 관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소비녀로서 그리고 한 작은 예언자로서 관구 설립을 한 우리 수도회의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드러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소비녀들의 깊고 낮은 목소리입니다.



1. 관구설립의 개인적인 의미 2.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가장 소중한 것
3. 관구설립을 한 우리 수도회의 미래에 대한 예언

더 푸르고 무성한 나무 되소서

ㅣ 김 막달레나 수녀 ㅣ (1956년 입회, 1967년 종신서약)

정릉 나자렛집에 사시며 하느님과 공동체와 꽃과 나무와 더불어 아름다운 노년기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1. 이제 저도 천상 관구로 갈 날을 준비해야겠지요. 우리는 초창기에 입회해서 수련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지금 하늘나라로 갈 수련을 받고 있고 그 수련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잘 기도하고 싶고 더 잘 봉사하고 더 베풀고 싶습니다. 이제야 철이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어서 힘이 듭니다. 이것까지도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나의 하루 하루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하느님 뜻대로 살았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게 됩니다. 하느님 뜻대로 했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오직 하느님 보시기에 그분 닮게 살고 싶습니다.

2.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관구 설립하게 되면 지금은 하나라고 말해도 차츰 남처럼 살게 될 거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성가회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야 합니다. 관구를 책임지신 어른 수녀님들께 부탁하고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관구가 자주 모여 함께 하는 기회를 자주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수도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난했지만 서로 화목했고, 설립자 신부님도 합심하라고 유언으로 당부하셨으니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지난 해 정원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들을 전지 작업하는 것을 보며 그 큰 나뭇가지들이 잘려 나가는 것이 무척 마음이 아프고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들은 우리 소비녀회가 이곳 미아리에 터 잡을 때, 내가 수녀원에 입회했을 때 심었던 나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 잘려진 나무에 더욱 탐스럽고 무성한 초록 이파리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과 맞물려 우리 성가소비녀회가 두 관구로 분리되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몸살도 앓고 힘들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가지를 잘라낸 나무들같이 더 푸르고 무성한 이파리들을 달고 하늘의 새들이 깃드는 더 넉넉한 나무로, 우리 성가회 두 관구가 크게 자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집니다.

한 이불 속에서 자란 형제애가 보존되기를

| 정 방그라시오 수녀 | (1964년 입회, 1973년 종신서약)
의정부성당에서 선교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1. 대 공동체의 원활한 순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수도자로서 거룩한 삶의 근원을 살게 하려는데 그 바탕을 두고 회원 각자의 내적 생활에 더욱 더 사랑하며 열심 중에 살게 하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 같은 목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성가소비녀들의 한 가족이기에 관구 설립 후에도 한 가족이라는 정신을 잊지 않고 서로 협조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 신부님의 “합심이 너의 문장이다”라는 말씀을 잊지 말고 새기며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각자 처한 소임지에서 성소계발에 온힘을 다 기울여 참신한 젊은이들이 우리 수도회의 새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3. “소비녀들 비우고 가시오, 그리고 기쁘게 사시오”를 명심하며 새로운 각오들로 관구 설립을 하니, 더욱 열심히 살려는 마음가짐이 보여 희망적입니다. 새로운 관구의 새로운 장상들과 힘을 합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소비녀로서의 삶을 향해 힘찬 새발걸음을 내딛을 각오와 결심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 내다봅니다.

사람에게나 물질적이거나 내 관구에 대한 이기심을 버리고 편파적인 생각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우리가 자랄 때 한 이불속에서 서로 더 많이 덮으려고 끌어당기며 발싸움을 하던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한 형제애가 보존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또 회를 위한 긍정적인 평가나 바른 소리 등의 작은 소리에까지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여 회원 하나하나가 존경받는 수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관구설립은 성공적이고 희망적이며 성가소비녀회의 주보이신 예수님 마리아님 성요셉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1. 관구설립의 개인적인 의미
2.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가장 소중한 것
3. 관구설립을 한 우리 수도회의 미래에 대한 예언

조용하고 부드러운 하느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 유 바스칼 수녀 | (1977년 입회, 1986년 종신서약)
현북 분원에서 공소 사목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1. 수도회의 설립 70돌을 가까이 하고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수도회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는 소비녀로서, 나아가서 또 세상의 빠른 변화 가운데 살고 있는 소비녀로서, 관구 설립은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라 생각하며 가난과 나눔의 정신을 내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설립자 정신에 나 자신의 수도 생활을 비취 내면적 성장과 쇠신의 시간이 되고 성령의 역사의 내어 맡기는 빈 마음을 수련할 수 있어 기쁩니다.

2. 하느님의 일을 어느 관구가 더 잘 하는가가 아닌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 일과 사도직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구와 관구 사이, 소비녀 각 개인과 개인 안에서 서로의 섬김과 내림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관계 안에서, 공동체와 공동체 교류 안에서 일이 아닌 하느님을 만날 때 모든 일을 하느님이 이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성령께 마음을 열고 개인적 판단을 넘어서 엘리야가(열왕19,13)조용하고 부드러운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만난 것처럼 그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3. 미래는 하느님이 아시겠지만, 하느님이 시작하셨으니 그분께서 이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관구 설립에 하느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회원 모두 각자가 깨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야겠습니다. 우리 수도회 전체가 깨어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은 개개인이 깨어서 소비녀 서로를 존중함을 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말입니다. 서로 깨어 사는 삶이 기쁨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위에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 신비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모두 갖고 있으니 그보다 먼저 소비녀 공동체 가족의 관계 회복과 영·육을 위해 서로가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행복하고 기뻐하는 소비녀 되기 위해서!

어디에 사느냐 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

| 하 제노비아 수녀 | (1981년 입회, 1991년 종신서약)
괴산 성당에서 선교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1. 갑작스런 질문을 받고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관구 설립이 저 자신에게는 도전이고, 갈등이며 새로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르는 길을 떠나듯이 수도회에 입회 했을 때처럼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쇄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겠습니다.

2. '합심' 이라고 생각합니다. 성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라, 소비녀로서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요? 원천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강생의 신비를 온전히 사는 것, 우리 모두가 '소비녀' 임을 알아듣는 것이지요.

3.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점은 긍정적인 생각과 실천이 앞서는 수도생활을 지향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남의 말을 옳다고 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들을 버리고 더 철저하게 소비녀로 살기 위해서 하기 힘든 소임과 주변 상황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서 수도연령이 많아도 어디선가 적응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지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하고 싶은 소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고, 요즈음은 특히 혼자 하는 소임을 선호하며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더욱 자발적인 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소비녀 공동체의 깊숙한 뿌리에 '함께 하는 의식' 이 강함으로 외부에서 보면 답답할 정도로 붙어있는 우리들이지요. 그 힘으로 관구 설립이라는 어려운 여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안배를 믿고 작고 힘없이 시작했던 수녀원의 초창기 모습을 거울삼아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저력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소비녀들 해보시오' 하고 힘을 실어주시길 아버지 성 신부님과 함께 우리의 여정도 순조로운 첫발을 내딛길 기도합니다.

1. 관구설립의 개인적인 의미
2.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가장 소중한 것
3. 관구설립을 한 우리 수도회의 미래에 대한 예언

인삼이 홍삼이 되는 과정처럼

| 신 에밀리아 수녀 | (1981년 입회, 1991년 종신서약)은
성가마을에서 모자가정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1. 관구 설립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몇 년에 걸쳐 준비 작업을 거쳐 드디어 2008년 12월 28일 관구설립 선포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소임에 충실하고 여전히 복음정신에 따라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2. 관구설립이 복음 선포와 수도생활을 더 잘 하기 위함입니다. 수도자로서 복음정신을 철저히 따르고 설립자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립자께서 늘 강조하셨듯이 합심하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인삼에 성분은 18종의 샤포닌이라고 합니다. 샤포닌 성분이 분열하고 찢고 말리고 하는 과정을 통해 생합성되어 32-34종의 샤포닌으로 변화되어 누구에게나 잘 맞는 홍삼이 된다고 합니다. 분열되고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겠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이나 제도에 얽매어 복음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소외되면 안 되겠지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수도회의 뿌리를 잊지 말자

| 정 정혜엘리사벳 수녀 | (1983년 입회, 1993년 종신서약)

아르헨티나의 시골 차꼬마을에서 선교사로서 가난한 기쁨을 살고 있습니다.

1. '쇄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보다 충실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라는 메시지 같습니다.

2. 우리 수도회의 '뿌리', 두 관구이지만 한 수도회라는 것입니다.

3. 관구 설립이 우리를 어떻게 해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기점에서 지금의 삶의 형태에서 변화되고, 증거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탄탄한 수도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도회를 탓하기보다 우선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 더 우리 수도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었어도 결정한 것에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우리들이기에 관구분리 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1. 관구설립의 개인적인 의미
2.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가장 소중한 것
3. 관구설립을 한 우리 수도회의 미래에 대한 예언

웅크렸던 마음을 활짝 펴고

| 조 영보마리아 수녀 | (1988년 입회, 1998년 증신서약)

성기병원에서 간호사 소비녀로 치유와 돌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 그 동안의 안주하며 세속주의의 삶을 수도생활인양 살아왔던 나의 수도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 가장 소중한 것은 성가정의 공동체 삶이고 그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소비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소비녀 각자가 변화되는 삶에 대해 각오를 한다면 현대에 필요한 소비녀로 존속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재까지 살아온 삶이 변화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어쩌면 관구설립 전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다 보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일률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개인의 성향이나 개인의 삶이 무시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개인이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나누고 식별하고 결정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권위를 가진 수도자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을 물어보지만 결국 권위가 부여된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부분들로 인해 말하면 뭐하나 하며 체념 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습니다.

권위가 주어진 수도자와 그렇지 않은 수도자 간에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관구설립을 통해 웅크렸던 마음들이 활짝 펴져 진정 하느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성가소비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수도회의 역사의 또 다른 획을 긋는 중요한 때에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 마리아님, 요셉님께 우리 수도회를 봉헌합니다.

서로에게서 가난을 배우고 가난을 살아야 할 때

| 김 리디아 수녀 | (1992년 입회, 2002년 종신서약)

중국 목단강 안나의 집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수녀원에 예절이 있을 경우(사실 집안에 언니나 동생이 결혼하는 큰 중대사인데...) 수녀님들이 무관심하여 예절미사에 참석하는 수녀님들도 적고 (장례가 있어도 묘지에 가시는 수녀님도 적어지고) 일할 사람도 없어서 회보에까지 부탁하는 상황을 보면서 수도회가 안정적인 상황이다 보니 서로 미루고 나태해지는 것 같습니다.

관구가 분리되어 회원수가 적어지면 자기 관구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하는 마음이 생겨 예전보다 더 많은 관심이 갈 것 같고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새로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2. 수도회 설립 목적인 강생의 영성을 잊지 말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모든 회원들이 애쓰다면 우리는 서로 “무슨 관구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소비녀회의 회원으로서 일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리에 대한 두려움(관구에 대한 이기적인 마음, 성가정의 해체 등)도 강생의 정신을 잊지 않고 산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수도회는 가난을 지향하며 여러 가지 노력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개인을 중점적으로 돌아볼 때 나오는 결론입니다. 부족한 듯 살면서도 언젠가는 꼭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주변 상황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젠가 꼭 채우게 됩니다.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여도 개인이 가난하게 사는 모습이 주위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보며 가난을 배우면서 가난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구설립 후 수도회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좋은 것들로만 채워질 수 있어 희망적이라기보다는 부족한 듯이 보이는 것 속에서 그것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그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로 인해 얻어지는 희망이기에 값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여러 사람이 함께 했을 때 더 클 것이라는 것을 많은 회원이 느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1. 관구설립의 개인적인 의미
2.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가장 소중한 것
3. 관구설립을 한 우리 수도회의 미래에 대한 예언

공동체 영성을 살자

| 이 쥬세페 수녀 | (1995년 입회, 2005년 종신서약)

4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총원 영양실에서 새 사도직을 시작했습니다.

1. 입회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관구설립이 저 개인에게는 새롭게 수도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주하고 타협하려는 모습에서 능동적으로 깨어 살아야 함을 일깨우는 것 같습니다.

2. 합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장기 수녀님들의 삶을 생각해볼 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견디어 오신 것은 합심의 정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심은 우리의 문장이다.”라는 설립자 신부님 말씀은 기적을 낳았습니다.

3. 수도회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요즘 수녀님들의 삶을 볼 때 개개인의 삶은 열심히는데, 공동체 생활을 개인의 것을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즉 개인의 영성은 있는데 공동체 영성은 희미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수도회 차원에서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며 회원들 각자 성찰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는 오늘이 모여서 오는 것입니다. 수녀님들 개개인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는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더욱 열정적으로

| 박 빌리아르 수녀 | (1997년 입회, 2007년 종신서약)
부산 도마성당에서 유아교육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1. 특별한 의미보다 그동안 오랜 준비였고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지금껏 수도회와 선배수녀님들의 보살핌으로 양성되었기에 종신 후 함께하는 관구설립이기에 이제는 제가 우리 수도회를 위해 무언인가 더욱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결심을 합니다.

2. 설립자 신부님과 초창기 수녀님의 삶과 우리의 영성인 강생의 정신과 비록 관구 설립으로 나누어지지만 우리는 소비녀 한 가족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우리의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3.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껏 우리가 하고자는 열정을 잊지 않는다면 관구 설립 후에도 우리의 정신을 잃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걱정은 개인적으로도 수도회 전체를 볼 때 그동안 많이 정신적, 물적으로 부유했던 저희의 현실이 몸에 배어 소비녀가 아닌 대비녀 모습이 습성으로 남아 있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조금도 힘든 것을 참지 못함: 자가용 이용, 택시이용, 음식에 대한 편협, 편리함을 찾는 일,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도 정신만 가난함이지 삶에 있어서는 결코 가난하지 않은 현실이 걱정됩니다.)

희망이 있다면 그래도 아직은 깨어 살려고 하는 수녀님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과 의식한다는 점입니다. 의식과 생각만이 아니라 삶으로써 보여졌으면 하는 마음이 개인적으로도, 수도회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 관구설립의 개인적인 의미 2.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가장 소중한 것
3. 관구설립을 한 우리 수도회의 미래에 대한 예언

모든 것을 0으로 시작해야

| 비 마튜 수녀 | (2004년 입회, 2007년 첫서약)

중림동 학생의 집에서 교리신학원에 다니고 있는 유기서약 소비녀입니다.

1. 우리 수도회 관구 설립이 저에게는 소비녀다운 소비녀로 살아가려면 모든 것을 0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증거자로서 우리 수도회의 영성(강생)에 따라, 아무것도 가짐 없이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오직 하느님께 의탁하신 그분을 닮아 우리도 하느님께 의탁하여 모든 것을 비우고 원만의 상태로 돌아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비녀 비우고 가시오, 그리고 기쁘게 사시오)

2. 우리는 한 몸을 가진 각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듯이 어디에 가서든지 같은 영성과 사명을 사는 우리들은 성가소비녀회에 주님의 여종(소비녀)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모든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크게 번성하게 마련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수도회의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 초창기 수녀님들이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작은 것에서 만족하며, 성신부님의 “합심은 우리의 문장이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서 ‘기뻐하라 소비녀’를 생각하며 자립정신으로 우리 수도회가 설립되었듯이, 오늘의 관구 설립을 한 우리도 그분의 뜻을 따라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에 기도 속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행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고 주님의 보상을 받을 것라고 믿는다. 믿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들었다.

“잘 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좋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마태25.21)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 남 가밀라 수녀 |

한창 성가병원을 식별한다고 할 무렵에 꿈을 꾸었는지, 기도 중이었는데 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누가 한 말인지도 알 수 없지만 복음의 말씀이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셨겠지요.

우리가 비운다고, 또 비워야 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다 주님께서 소비녀들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 수도회는 초창기부터 거저 받은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 수도회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교회 어른들이나 교우들이 우리 소비녀들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보잘 것 없이 작고 가난한 수도회였지만 소비녀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에 좋은 표양이 되었나 봅니다. 소비녀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할 수 있게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늘 있었습니다.

주위의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소비녀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해야 수도생

활이니 우리가 겪는 가난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소비녀들이 가난하게 살며 아껴 모은 것으로 보육원 짓고 양로원 짓고 병원 지어 하느님 일하는데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받기도 했지만 많이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초창기라 우리가 잘 가꾸어 놓은 자리들을 어이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 내어주고 마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저 받은 것이라지만 우리 수녀님들이 더 이상 가난할 수 없을 정도로 청빈하게 살면서 일구어놓은 것들인데 그렇게 내어주고 잃게 되는 것이 마음 아픈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또다시 가난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큰 은총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재산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면 처음보다 더 커졌습니다.

성가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라 사도직이 얼마 없을 때, 약현에 있던 요셉 병원에서 우리 수녀님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나와야 하고 그곳에 함께 있던 보육원 자리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많이 힘들었지만 성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주셨던 대로 교회의 뜻에 순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빈손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안 주교님(제오르지오)께서 우리 사정을 듣고 조용히 도와주셔서 미아리 성당 옆에 조그만 성가의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성가병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가병원을 교회에 내놓았다고 아까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물론 성가병원은 우리 수녀님들의 땀으로 지은 집입니다. 주변에서 도와주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수녀님들의 고생은 말로 다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병원을 이렇게 크게 일으켜놓느라 고생하신 것도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개미들처럼 부지런하고 알뜰한 소비녀들이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거저 받은 것이지만 거저 받은 것만으로 이루어진 성가병원이 아니지요. 그렇기에 거저 주는 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어준 성가병원을 다른 분들이 운영해서 아주 잘 되면 기쁜 일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도회 만년이라고 나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하지만 나는 늘 이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성 신부님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신부님 원칙대로 살면 잘사는 거지요. 그것 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합심하고 애덕 실천하라고 하신 말씀, 가난하게 사는 게 행복이다 하신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순명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셨습니다. 순명 안하고 살 수 있나요? 순명했기에 지금까지 나는 큰 어려움 없이 수도생활을 해왔습니다. 공동생활도 재미있었습니다.

수녀님들도 하느님 뜻에 순명하는 소비녀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가병원 식별과정을 통한 비움

| 이 테오도라 수녀 |

비움은 부르심이었다

“소비녀들 비우고 가시오. 그리고 기쁘게 사시오”라는 제14차 총회주제는 소비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안배로 다가왔다.

비움과 떠남이라는 도전은 멈추어 소비녀들 각자의 삶을 그리고 수도공동체의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새로운 부르심이었다. 그 부르심은 지금까지 가꾸어온 것, 잘 다져온 것을 모두 내려놓고 안정되고 익숙한 자리를 떠나, 초창기의 가난과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 현 시대에 걸맞은 소비녀들의 사도직을 찾아 나서라는 부르심이었다. 소비녀들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며 찾고 부르고 있는 더 낮은 곳, 더 아래로 내려가라는 부르심이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희생과 십자가 없이는 따를 수 없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알아들었다.

수도회 전체가 그 부르심에 가장 크게 응답을 드린 것은 관구 설립의 결정이었다. 관구설립이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와 도전을 주는 크나큰 봉헌임은 두 말 할 것도 없겠지만 성가병원 식별 또한 크게 내려놓고 포기해야 가능한 쇄신의 첫 봉헌물이었다.

성가병원, 우리 사도직 중에 가장 정성과 사랑으로 키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소중한 것을 주님께 봉헌하라는 하느님의 뜻 앞에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늘그막에 얻은 목숨과 같은 외아들을 봉헌하라는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느님의 뜻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이 불어나게 해주시겠다는 미래에 대한 축복과 약속 사이에서 얼마나 깊은 갈등을 느꼈겠는가!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분 앞에 엎디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식별회의를 하는 동안, 우리 앞에 놓인 짙은 절벽을 마주하면서 “오소서 성령님! 어려움 중에 있는 성가병원을 위하여 청하오니 당신 치유의 터전이며 저희 수고의 열매인 이 사도직 현장이 당신께서 원하시고 시대와 장소가 꼭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당신 뜻 저희 앞에 밝게 드러내시어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창립자의 의지대로 주님의 안배를 믿고 저희가 해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라는 사도직 식별기도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쳤는지 모른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면 그때마다 불안하고 떨리고 텅 비어있던 생각과 마음에 평화와 편안함이 찾아들고 마음이 고요해졌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1950년 6. 25 동란 직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시작한 성가의원이 부천으로 이전하기까지 성가병원이라는 존재는 그대로 초창기 수녀님들이 배고픔과 가난을 인내하며 희생과 극기로 낳은 자식과 같은 존재였다. 서울성가병원이 부천으로 증축해 이전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충당의 부담으로 수도회 존립의 위기를 맞았을 때, 다만 주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리며 올린 간절한 기도와 희생은 또 얼마나 많고 컸던가. 욕심 없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며, 함께 하는 모든 이와 한 가족이 되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오직 복음 선포만을 사명으로 알고 성실하게 또 절약하여 얻은 것을 나누며, 소박한 마음으로 일구어 온 성가병원은 어쩌면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사도직이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별 탈 없이 잘 자라던 병원, 우리에게 소중한 보물인줄만 알았던 병원에 2000년 8월부터 불기 시작한 의료계의 무서운 폭풍은 의약분업, 수련의 파업, 노동조합 파업이라는 후폭풍을 연달아 몰고 왔다. 그것은 우리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변화하는 시대와 사회가 가져온 문제였다. 더 이상 우리 카리스마대로 운영해가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상황과 병원 상황을 우리들에게 초창기 병원 설립목적으로 돌아가라는 하느님의 섭리하심으로 알아듣고, 병원의 미래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2000년 12월 16일 연구회원회가 결성되었다. 12월 대의원회의를 거쳐 2001년 성가정모임에서 총장 수녀님은 전 회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할 것을 청하셨다. 그때부터 양도 때까지 성가병원 식별을 두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비는 기도를 모든 회원이 매일 봉헌하였다. 성가병원 식별은 이렇듯 모든 회원의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성가병원의 연구과정

연구회의는 2000년 12월 16일 시작하여 2003년 3월 6일까지 계속되었다. 가톨릭중앙의료원과의 계약만기를 기해 수도회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것에 전환 목적을 두고 총 28차의 회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병원규모, 진료과, 기존건물 이용 시의 장단점의 도출 분석연구가 이루어졌고, 타 시설과 병의원 등을 견학했으며, 병원, 교회, 지역 내 관련되는 어른들, 전문가의 다각적인 의견 청취와 자문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도회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도 많고 큰 문제점들과 한계성 앞에서 수차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마침내 우리의 욕심, 애착 등을 버리고 오직 하느님 섭리에 맡겨드리며 그 뜻만을 찾기로 의견을 모우고 연구회의는 종료되었다. 이어서 연구회의에서의 미비한 점을 보충하고,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들을 식별을 하기 위해 식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성가병원의 식별과정

식별추진위원회가 병원문제를 위임받아 양도하기까지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특히 식별회의의 3년간은 식별회의, 실무팀 회의, 노무, 회계법인, 교회법, 전문가 자문, 교회장상들, 관련되는 신부님들과 상담을 수십 차례 반복했다. 가능한 방법들에 대한 심도있는 경영진단결과로 제안된 컨설팅의 도움을 받아가며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이 과정을 걸어왔다. 그 결과는 하나였다. 예측불허한 의료계의 현실 앞에서 수도회가 뜻하는 바도, 경영진단을 통한 결과도, 경쟁적인 대열에 함께 긴 병원운영도, 대학병원으로서의 지역사회 기여의 측면에서도, 이제 수도회의 병원운영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수도자가 경영자로, 관리자로서 주어진 입장으로 살아가는 것은 소비녀로 불림을 받은 우리가 영성적 삶을 사는데 더욱 큰 문제와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식별회의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이런 상태의 성가병원 운영은 우리 몫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가야할 길은 분명해졌지만 현실적으로 풀어가야 할 갈등이 작지 않았다. 식별과정에서 우리가 늘 막다른 길에서 만난 두 큰 장벽은 직원과 회원이었다. 둘 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했고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었기에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너무도 힘든 갈등이며 아픔이었다.

이때 주님은 또 한번 소비녀들에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깨우쳐 주셨고, 주님의 안배를 믿고 소비녀들 해보시오 하시는 창립자 신부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해주셨다.

그것은 소비녀들의 비움이었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기쁘게 주님의 안배에 맡겨 드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분께서 이끄시는 길을 빈손으로 걸어갈 때 더 큰 주님의 축복의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성가소비녀인 우리들이 가야할 길은 양도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식별추진위원회는 성가병원을 CMC()에 무상 양도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렸다.

성가병원 문제가 워낙 크고 중요한 안전이라 제14차 정기총회 본회의에서 다루기는 벅차므로 미리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쳤다. 교구에 양수의사를 확인한 후 2차 총회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이 성가병원을 두고 1일 피정을 했다. 그리고 3차 대의원회의에서는 이를 전 회원과 공유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전 회원이 성가병원 양도 문제를 가지고 2차에 걸쳐 1일 피정과 나눔을 한 후 양도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2006년 12월 1일 병원장이 수도권 총회 결정사항으로 성가병원 무상 양도를 전 직원에게 공포하였다.

직원들에게 공포한 후 구체적인 양수양도 준비를 하면서 관구설립과 더불어 수도권에 미칠 영향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나타남을 바라보며 비움의 과정은 끊임없이 요청되고 계속되는 우리의 길이였다.

특히 수도권에 직영하던 성요셉관(장례예식장)의 양도는 또 한번의 아픔이었다. 성요셉관은 우리 소비녀들의 정신에도 맞고 또 그 정신대로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빛이 되는 참한 사도직



이었다. 내려놓기 정말 아까운 것이었다. 많은 회원들도 그것만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느냐고 안타까워하였지만 앞으로 발생될 더 큰 문제점과 심각했던 병원공간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등에서 양도는 불가피했다. 비우려면 완전히 비워야한다, 훌륭히 양성된 인적자원과 열정으로 병원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초창기의 가난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 완전히 비우자며 우리는 성요셉관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양수 측에서도 수도회가 어려움을 감수하며 비우는 그 마음에 고마워하며 우리가 요청하는 모든 것을 수용해주었다. 비움으로 인해 오히려 그동안의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비움으로 새로 태어난 성가병원

우리의 비움과 동시에 성가병원은 개원 50주년을 맞았다. 50주년 행사를 치르는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놀라움과 함께 주님의 섭리를 강하게 느꼈다.

우리가 애써 가꾼 성가병원을 환자들의 치유의 보금자리로, 우리의 분신과도 같았던 사랑하는 직원들의 신나는 복지의 터전으로, 계속 성장발전 시켜가고 계신 하느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계획만 하던 일들이 활기차게 진행되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병원을 변화시키는 모습에서, 시대에 걸맞는 병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된 적절한 시기에 양도하게 하신 하느님의 섭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녀들의 비우고 떠난 자리에 더 큰 축복을 주심에 기쁨이 벅차오르며 감사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성가병원을 양도한지가 1년 6개월이 지난 9월 하순에 성가병원 무상양도 과정에 따른 수도 회의 비움의 대한 내용의 원고를 청탁받고 그 동안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연구, 식별의 4년이라는 긴 시간, 특히 병원책임자로 또 식별추진회의를 맡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느님께 봉헌하는 “양도”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오기까지의 6년이란 긴 암흑속의 터널을 헤쳐 나오기까지 겪었던 고통과 갈등이 힘들기만 했는데 그 긴 여정을 돌아보는 지금은 그 모두가 주님께서 업고 안고 손잡아 이끌어주신 은총의 날들이었음을 새삼 가슴 벅차게 느낀다.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빌며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자문하고 확인하고서도 나의 부족함으로 하느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과 두려움은 힘들기만 했었다. 그런데 그 모든 불안하고 어두운 길에서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걸어와주셨음을 이제 분명히, 환한 빛 아래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는 맏이인 성가병원을 내려놓고 비우고 가는 길에서 우리는 이제 관구 설립이라는 더 큰 비움과 쇄신의 역사를 맞이했다. 비움은 더 큰 비움으로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고 있음을 느낀다.

비움을 빛나는 영광으로 채워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 성가소비녀회의 미래를 축복해주시리라 믿고 희망하며 기도드린다.

좋은 주님, 주님께서 저희 소비녀들을 부르시는 그 곳으로 기쁘게 다 비우고 떠나립니다.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고, 함께해주지 않아 아프고 슬픈 마음으로 우리 소비녀들을 애타게 찾고 부르는 거기가 어디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쁘게 살며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인자하신 주님 얼굴을 보여주는 소비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아멘

소비녀들의 비움과 “성가병원”의 희년

| 이 프랑소아 수녀 |

| 이 글은 성가병원 개원 50주년 기념행사 중에 있었던 직원 교육 때
총장 수녀님의 강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성가병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회에서는 이런 기념일들을 은혼식, 금혼식, 회갑, 희수(고회) 라는 말로 축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50주년은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냈고, 안식년이 일곱 번 돌아오게 되는 49년의 다음해인 50년째에는 <희년>이라고 이름붙인 큰 축제를 성대하게 지냈습니다.

희년은 은혜로운 해, 거룩한 해입니다. 자기네 논과 밭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을 거두지 않고 고아나 과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연과 가난한 이웃을 아끼고 살리는 해인 것입니다.

이러한 희년의 의미를 생각하면 2007년 2월 13일은 주님께서 마련해주신 날이었습니다. 제가 총장 소임을 맡고 한 달 후 성가병원 무상 증여 계약이 체결되고 병원장 이취임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가병원을 시작한지 49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우리 수도회로서는 성가병원을 봉헌한 그 해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때에 맞춰 마련해주신 굉장한 거룩한 해, 모든 것을 내려놓기에 은총으로 마련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가병원이 서있는 이 자리도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이곳의 옛날 지명은 소사입니다. 지금은 산이 깎이고 많은 건물이 들어섰지만 예전에는 그냥 산 한 자락이었고 그 아늑한 산 밑에 고아들의 집 성가보육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아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해방과 자유를 알리는 좋은 땅, 은총의 땅에 우리 성가병원이 들어선 것입니다. 예부터 집


터를 잘 잡는 것이 그 집의 흥하고 망함을 결정한다고 해왔듯이 성가병원은 이토록 특별한 의미가 담긴 땅, 축복받은 땅에 자리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굉장히 번창하고 발전할 것이라는 그 희망을 예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곱 번의 안식년을 지나 맞이한 희년에 성가병원을 봉헌하여 하느님께 돌려 드렸다는 것에서 우리 수도회를 이끌어주시는 은총의 힘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썬을 할 줄 알면서도 썬 할 줄 모르는 수녀들이 한 일입니다. 썬을 할 줄 안다면 결코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을, 마치 손가락 숫자 열까지 밖에 셀 줄 모르는 사람들처럼 썬을 하지 않는 우리들이기에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 소비녀들은 썬을 할 줄 모르도록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립자를 통해 그렇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선뜻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수녀들은 가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한 행위를 하곤 합니다. 처음 병원 옆에 있는 소명학교를 식별해서 오래 전에 양도하였고 서울 성가병원을 식별하여 무료 성가복지병원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많은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성가복지병원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셨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후 서울 시내에 있는 큰 본당을 내려놓는 작업을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성가병원을 하느님께서 운영하시도록 하느님께로 돌려드렸습니다. 그것은 가톨릭 중앙의료원의 이념처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재현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설립자 신부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걸어온 여정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우리 소비녀들의 회심의 여정이며, 설립자 성 신부님께서 소비녀들에게 걱정하셨던 “공심판 때 이 집 허물어지는 소리가 무섭다” 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려 깨어 살아온 여정이었습니다.

지난 총회에서 우리 성가소비녀들은 비우고 떠나서 기쁘게 살자는 슬로건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비움이 성가병원이었습니다. 성가병원은 우리에게 참 특별한 곳입니다. 초창기 수녀님들 때부터 지금까지 피땀과 정성을 한 곳에 다 쏟아 부은 자리입니다. 병원 땅은 우리 수녀들이 개미 역사하듯 피땀으로 조금씩 조금씩 준비한 땅이었습니다. 전 회원이 마음을 쏟아 부은 곳이니 우리 수도회의 가장 큰 것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성가병원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성가소비녀회의 마음을 건네 드린 것입니다. 성가병원 자리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담긴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축복해주시고 이 세상 끝까지 번영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강생의 터
소비녀, 꿈을 꾸다

소비녀, 농부 꿈꾸다

풀무 농업 고등기술 학교 | 김 니꼬데모 수녀 탐방

한 소비녀가 꿈을 꾸었습니다. 착한 땅에 순수한 씨앗을 뿌리고 비료도 농약도 쓰지 않고 오직 소비녀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을 다해 건강한 곡식과 푸성귀를 길러내고 싶은 그런 꿈입니다. 그 열매와 채소를 날마다 우리 수녀님들의 식탁에 올려주고 싶은 꿈입니다. 그 소박한 꿈 뒤에는 오염되고 병들어가는 지구를 살리고 싶은 보다 큰 소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박한 꿈 밑동치에는 아주 오래도록 키워온 깊고 단단한 뿌리가 있었습니다.

설립자 신부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하려 않는 일”,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되새길 때마다 소비녀는 가슴이 찡뚱합니다. 모든 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살아야 할 설립자 신부님이 말한 가난과 성가소비녀의 영성은 무엇인가? 라는 끊임없는 질문 앞에 그는 서뚱뚱합니다. 환경과 농촌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현대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농촌에서 시작되었고 농촌에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체적 노동이 힘들어서, 돈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버리고 간 땅, 화학비료를 주고 농약을 한 땅, 그 땅에서 생산된 위험한 먹거리, 그리고 예상되는 식량위기, 그 불편한 진실 앞에서 당장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눈을 감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사라져가는 농촌을 살리는 일, 파괴되어가는 생태를 아주 조금이라도 지키는 일, 그 작은 일이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낍니다. 그에게는 그 일이 설립자 신부님께서 권고하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로 보입니다. 그 안에 움직이시고 그를 불타오르게 하는 성령께서 그를 땅으로 이끌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소비녀의 꿈이 파랗게 싹이 틔우고 아직 어린 순이지만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 곳, 김 니꼬데모 수녀가 다니고 있는 풀무농업학교를 찾았습니다.



풀무학교 가는 길

저녁 무렵에 도착한 홍성군 홍동면, 저무는 가을 햇살에 금빛으로 물든 그 마을은 진정 꿈꾸는 농부들의 마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마을 초입에 50년 역사의 풀무농업고등학교가 있고, 다리를 건너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귀농 자녀들이 주로 다닌다는 갯골 어린이집, 그 앞에 여성농업인센터,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오면 풀무학교 생협 재생비누공장, 그 곳에 우리가 환호할만한 장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 책방이었습니다. 말이 현 책방이지, 예쁘고 좋은 책들이 정말 많더군요. 재미있게도 서울에 사는 분들이 기증해준 책들이 많은데 그것을 서울에서 구경 온 사람들이 또 사간다고 합니다. 우리도 몇 권의 책을 샀습니다. 어떤 것은 반값에 살 수 있는 것도 있었고요.

현책방 옆에는 유기 재배 통밀로 빵을 굽는 빵집이 있었습니다. 책방과 빵집 사이 뜰에 누군가 열심히 가꾸어놓은 흔적이 역력한 예쁜 정원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정원에는 배추도 있고 허브도 있고 꽃도 있고 무도 있었습니다. 꽃과 채소가 어울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추도 무도 꽃처럼 보였습니다. 니꼬데모 수녀가 말해주네요. “2학년 선배가 만든 꽃밭이에요. 허브가 배추나무에 달려드는 해충을 막아준대요. 다양성을 인정하며 공생하는 거지요”

그래, 공생이구나! 그것이 풀무학교의 첫 번째 강한 인상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책방도 빵집도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냥 사는 사람이 알아서 돈 내고 잔돈 거스르고 기록하고 물건 가져가고... 그렇게 믿고 열어놓고 어울려 사는 동화 같은 마을이 이곳에 있었네요(나중에 결산해보면 남는 건 없답니다. 모자라지도 않고요).

그 사이 해가 넘어가 어둠이 찾아든 숲길을 지납니다. 앞이 잘 안보여 더듬더듬 걷는데 니꼬데모 수녀는 잘도 걷습니다. 1년 가까이 살아서 익숙한 길인 거지요. 숲 한가운데쯤으로 여겨지는 어느 지점에선가 어둠 속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두어 채의 집을 만났습니다. 그곳이 니꼬데모 수녀가 다니는 풀무농업학교 전공부 과정 학생들의 터전이지요. 생각보다 작은 규모입니다. 한 건물은 학교로 쓰는 곳이고 옆에 또 한 건물은 기숙사라고 합니다. 학생은 1,2학년 합쳐봐야 20명 정도,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여자 기숙사 손님방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맞아준다고 하네요.

“우리한 평민”을 양성하는 풀무학교

풀무의 뜻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풀무는 불길을 살리기 위해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세상에 진리와 생명의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 뒤에서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풀무의 역할, 그것은 우리 소비녀의 정신과 닮지 않았냐고 니꼬데모 수녀는 말합니다.

풀무 학교의 역사는 50년 전 문을 연 풀무고등학교로부터 시작됩니다. 풀무고등학교는 대안학교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풀무 학교의 정신은 성서에 바탕을 둔 깊이 있는 인생관과 학문과 실제 능력에서 균형 잡힌 인격으로 하느님과 이웃, 지역과 세계, 자연과 모든 생명과 함께 더불어 사는 평민(교훈)을 기르는 것입니다. 풀무가 꿈꾸는 학교는 모든 주민이 교사와 학생인 학교, “조각이 아닌 지역의 생의 전체와 연결된” 학교, 지역의 입지 조건을 살리고 인간과 지역과 세계의 앞길을 비치는 그런 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꿈은 풀무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에 뿌리내린 평민 대학이 전국 곳곳에 세워지는 날을 희망하는 그런 꿈이랍니다.

니꼬데모 수녀가 다니고 있는 곳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환경농업전공부로 환경 농업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경제제일주의를 향해 과속으로 달려오는 동안 파괴되고 상처 입은 자연과 화해하고, 서로 단절된 도시와 농촌이 화해하고, 환경 호르몬과 유전자 조작의 해악으로부터 하느님께서 주신 건강한 땅과 맑은 생명의 원천으로 돌아가기 위한 치유와 회복의 농사짓기를 배우는 곳입니다.

풀무학교의 하루 생활은 오전 시간은 인문과 이론 수업을 하고 오후는 학교 농장에서의 실습을 통하여 필요한 지식을 함께 공부해 갑니다. 농업을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의 기본이 되는 종교, 책 읽기, 역사 등 인문 교양 과목을 중시합니다. 그 무엇보다 농업에 대한 가치관과 영적인 뿌리가 튼튼해야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실습은 농업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건축과 원예 그리고 농산물 가공 등을 함께 배우고 이러한 실습은 계절과 농가의 월력에 맞추어 이루어집니다. 모든 교육은 지역 주민 또는 관심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또한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시행하여 주민이 함께 가꾸고 배우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가족처럼 지내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존중하고 대화하고 합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입니다. 그것이 땅을 일구고 생명을 키우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며 방 하나에 둘씩 씩니다. 니꼬데모 수녀도 예외가 아닙니다. 식사준비도 학생들이 식당번을 짜서 돌아가며 하고 선생님 사모님들이 식당엄마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은 자연의 생리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혼자서만 잘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과목은 농민교양국어, 종교, 일본어, 농부와 인문, 임상역사, 시각 소통, 농요 배우기, 주간학교 계획, 농업 & 환경, 생명과학, 농업과 사회(합), 퍼머 컬처, 유기농업 I, 식물가꾸기, 논농사, 밭농사, 원예 등이며 재배 실습과 원예실습이 있습니다.

니꼬데모 수녀가 좋아하는 과목은 아마도 농부와 인문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논어, 노자 같은 고전을 배우고 생활글을 읽고 쓰고 나눕니다. 그 시간에 쓴 농부들의 글과 시를 풀무학교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니꼬데모 수녀가 쓴 글도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농부의 글, 농부의 시는 아름답게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쓰는 글이 아니라 흙에서 길어 낸 신비로 쓰는 것이 농부의 시랍니다. 그들이 쓴 생흙 같은 글은 풀무학교 홈페이지(www.poolmoo.net)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니꼬데모 수녀가 쓴 글 몇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소풍 (2008년 5월 4일)

소풍 간다.
한 달 동안 혼자 한 수도생활을
하루라도 함께 하려고
학교에서 수녀원으로 소풍 간다.
수녀원으로 소풍 왔다.
수녀님들의 맑고 생동감 있는 성가, 고요한 기도,
풀무에서 배운 생명, 음표 되어내 마음은 노래한다.
소풍 간다.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알아
자연에서 살려고 수녀원에서 학교로
소풍 간다.
학교로 소풍 왔다.
선생님들의 끝없는 사랑, 학생들의 지혜로운 가난,
마음 모아 하는 작은 기도예,
내 몸은 덩실덩실 춤을 춘다.
소풍 간다.
수녀원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수녀원으로
나는 소풍 다닌다.

메주콩밭을 매며 (2008년 7월 20일)

그 동안 논 김매기가 급해 논작업 위주로 일을 했다.
그래서 밭에서 일할 시간은 거의 없었다. 감자를 캐
고 메주콩을 심은 밭에, 콩보다 더 큰 풀들이 콩보다
더 많이 있다. 트랙에서 내린 우리는 어디서부터 김
매기를 해야 할지 모른다. 잠시 방향한다. 밭고랑에
한 명씩 앉아 풀을 뽑는다. 밭 전체를 둘러본 장 선생
님은 낫으로 베아겠다며 낫을 가져오셨다. 몇 명은
그 낫으로 풀을 베었다. 어제부터 비가 온 탓인지 땅
이 촉촉하다. 풀도 잘 뽑힌다. 호미가 필요 없다. 호미
를 한쪽에 던져 놓고 손으로만 뽑는다. 호미 없어도
잘 뽑힌다. 큰 풀도 잘 뽑힌다. 풀과 함께 콩을 뽑기
도 한다. 땅이 촉촉해 뽑은 콩을 다시 심는다. 그 콩
이 살아날지는 모르겠다. 장 선생님은 살아난다고 하
셨다.
이러저러 콩밭의 풀을 갖추어 간다. '어쩌면 콩을 먹
어서 얻는 것보다 콩을 먹기 위해 일하는 이 노동이,
우리의 몸과 정신과 마음을 더 크게 하는 건 아닐
까?' 하는 생각이 든다.

모 가야 미야해 (2008년 9월 24일)

고구마를 썰다. 고구마를 캐기 전에 고구마 순을 뺐다. 고구마 순은 바로 먹어도 맛있고 데쳐서 말렸다 먹어도 맛있다. 고구마 순을 많이 뺐다. 이후 낮으로 고구마 줄기를 걷어내고 호미로 고구마를 썰다. 고구마는 먹고 싶어 침이 넘어갈 정도로 진한 자주빛 색을 띠고 있다. 적당한 두께에 길쭉한 모양의 고구마를. 경례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줄씩 캐 간다.

그런데 엉덩이가 따갑고 가렵다. 모기가 무는 것일까? 장갑을 끼고 있어 손으로 긁을 수도 없다. 게다가 그 부위가 또 엉덩이가 아니냐. 참았다. 참아도 계속 가렵다. 긁지는 못하고 내 손으로 엉덩이를 한 대 쳤다. 모기 두세 마리가 달아난다. 놀래 달아난다

는 것이 그만 내 앞으로 날아왔다. 두 손바닥을 모아 '딱' 모기를 잡았다. 옷 위에서 무는 모기도 잡는다. 옷을 입고 있어 모기가 물 줄 생각도 못했다. 손바닥 위에서 죽은 모기를 보면서, 모기는 자신이 고구마 주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고구마를 수확할 수 있는 건 하늘, 흙, 햇빛, 비, 바람, 미생물, 유기물, 굼벵이, 모기 등 모든 자연물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우리의 조그마한 노력-우리는 고구마를 심고 풀을 세 번 뺐다-이 덧붙여졌다. 그렇다면 고구마의 주인은? 햇빛만이 아니고, 비만이 아니고, 모기만이 아니고, 우리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공동소유라고 해야겠지.



아침 연기

아침이 왔습니다. 학교 구경 가져고 니꼬데모 수녀가 앞장섭니다. 기숙사를 나와 보니 어젯밤 어둠 속에 본 풍경이 환한 빛을 입고 서 있습니다. 학교 건물은 실제로 작은 규모였고 학교를 둘러싼 공간도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엄마 소금순이가 내는 소리, 송아지 금새(금순이 새끼)가 내는 소리, 금새를 부르는 농부의 목소리, 닭 소리, 오리 소리 이렇게 자연과 생명의 소리로 가득한 참으로 원시적인 아침을 경험합니다. 대패밥 냄새가 향기로운 목공소와 꽃모종들이 자라는 비닐하우스도 기웃거리 봅니다.

학교 아래로 구불구불한 다랑논이 내려다보입니다. 경지정리도 환경 훼손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일부러 경지정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니 미생물이 다 살아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게도 있고 오염이 되지 않은 아주 좋은 토양에서만 사는 생물들이 함께 서식하는 다양성이 다 살아있는 논이라고 니꼬데모 수녀는 연신 자랑스러워 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30분,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한 강의실에 모여듭니다. 우리도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시간은 “아침 열기” 시간으로 한 주간의 일상이나 특별한 일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니꼬데 모 수녀는 이 시간이 참 좋다고 합니다. 가장 보여주고 싶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아침 열기에 함께 하면서 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모든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솔직하고 진지하고 아름다운 자기 개방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지난주에 있었던 자잘한 일상의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학교 행사나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철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농사에 관련된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그 주간에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의 일에 대해 서로 다른 느낌과 생각이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마을에 아이들이 많이 사는데 인도가 없어 위험하니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하루빨리 만들도록 홍보하고 건의하자는 얘기, 축제 기간 동안 ‘농민가’ 라는 영화 상영을 섭외한 얘기 등 공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사소한 것에 상처받는 자신의 약함으로 아프게 지냈던 날들에 대한 고백도 나눕니다.

풀무에서 고등부를 졸업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다른 진로를 찾는 대부분의 아이들 가운데 아주 드물게 전공부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소망이와 푸른들이가 그런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전공부에 입학한 새내기 남학생과 여학생입니다. 아마도 풀무 학교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막내들일



것입니다. 그 갓 스물의 막내 소망이가 이렇게 속 깊은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학교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사람들과 경쟁관계에서 치열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치열하게 살고 싶어요. 나와 투쟁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니꼬데모 수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기농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한해 수확의 값을 따져보았습니다. 1년 농사를 마치고 수확을 했지만, 기계값, 유박(유기농 거름)값, 우렁이(제초)값, 기계 부품비 등 요것저것을 빼보니 남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아니 품값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기쁨보다는 이런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망설여졌습니다. 일도 힘들고 기계도 잘 못 다루는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현실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돈을 생각하고 농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김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계산하면 농사 못 저요. 지금 들로 나가봐요, 꼭 고희의 그림 같잖아요. 이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 보상의 전부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 일하는 사람의 아름다움, 일하는 장소의 아름다움, 우리가 하는 일 자체의 즐거움이나 기쁨을 느끼는 것 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니꼬데모 수녀의 꿈이 아프게 만나야 했던 현실의 이야기도 소중하고, 그 현실 속에서 다시 꿈을 추슬러주시던 선생님의 말씀도 소중했습니다. 참 큰 것을 배웠습니다. 니꼬데모 수녀는 땅에게서 자연에게서 그리고 사람에게서 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풀무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풀무에서 하루를 거닐었습니다. 논에도 가보고, 밭에도 가보고, 올해 수확한 고추 자루가 보물인양 보관되어 있는 교무실에도 가보고, 재생비누공장에도 가보고... 이날부터 벼 베기가 시작된 실습기간이라 수업이 없는 주간입니다. 모두들 논과 밭으로 나가 일하는데 우리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구경만 다니니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혼연했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니꼬데모 수녀는 선생님들이 참 훌륭하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주의 생명을 위해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온 삶을 들어 풀무에 뿌리를 묻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의 가치를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실상 풀무의 선생님들이 받는 보수는 최저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계산법이 참으로 귀했습니다. 농촌에서 품을 파는 분들의 하루 일당이 평균 3만원, 많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나 또 품값이 3만원을 넘기게 되면 농부

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조금은 가난하겠지만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생의 원칙에 따라 선생님들의 월급도 일당 3만원으로 계산한 것이지요. 오늘 아침열기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듯이 계산을 하면 미래의 농부들을 양성하는 스승 역할을 할 수 없었겠지요. 다만 참 생명을 살리고 참 사람을 키우는 소명과 보람을 보수의 전부로 여기는 분들이었습니다. 부유함을 바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분들이 보여주는 삶의 열정과 헌신은 진심으로 학생들의 존경을 받고 있음을 잠시 머물렀던 그 시간 안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경할만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또 귀한 일인지요!

그래서 이 학교는 마치 농부네 가족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버지 농부, 어머니 농부이시고, 학생들은 아저씨 농부, 처녀 농부, 막내 농부, 니꼬데모 수녀도 그곳에선 언니 농부, 누나 농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렇게 저렇게 닮은꼴입니다.

홍동의 들녘 곳곳에서 낡은 작업복과 흙과 거름과 풀과 꽃과 곡식과 어울려 땀을 흘리고 있는 그들이 범상치 않은 것은 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이지만 아무도 하려 하지 않은 일에 그들이 온 몸 온 마음으로 뛰어들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출 수 없는 맑은 빛이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풀무의 들녘에 감돌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들의 눈이 맑아서, 그들의 이상이 높고 빛나서, 그들의 말이 진지하고 참스러워서, 그들의 노동이 신성해서, 그들이 하느님을 닮아서 그들은 행복했고 그들을 만난 우리도 행복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이 학교가 성서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의 분위기도 있지만, 신자가 아닌데도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것도 매일 하자고 니꼬데모 수녀를



졸라대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후에 우리 수녀님들이 내놓은 공동번역 성서를 모아 보내주었습니다. 곧 성경공부 그룹이 만들어져 진지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 방학 때도 모여서 계속하고 싶다는 그들의 열성에 학교에서도 기숙사를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을 위해 기숙사 전체에 보일러를 돌리는 것은 아무래도 낭비인 것 같아 방학 동안은 모이지 않고 구약성경을 모두 통독해오는 것을 과제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매일 미사는 할 수 없지만 학교가 있는 마을 한쪽에 작은 공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니꼬데모 수녀는 그곳으로 가서 묵상과 기도를 하고 돌아와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니꼬데모 수녀는 풀무학교에서의 생활이 즐겁기도 하지만 기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적어놓은 묵상 글을 보면 그의 삶 전체, 땅을 일구고 생명을 키우는 것 자체가 묵상이며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보물 (1) - 사람	하느님의 보물 (2) - 땅	하느님의 보물 (3)
하느님의 보물은 사람	하늘나라의 보물은 흙	하느님의 보물 땅과 사람이 만나면
이 세상은 밭	흙에 닿으면 흙 속에 들어가면	하느님의 보물 흙에 사람이 살면
예수님은 나를 구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보물 중에 보물
인간은 하느님의 보물	땅은 하늘나라의 보물	

소비녀, 농부를 꿈꾸다

2학년이 되면 실습으로 직접 농사짓기를 합니다. 학생마다 선생님과 면담을 해서 무슨 농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시작됩니다. 니꼬데모 수녀의 계획을 들어보았습니다.

유기농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유통과정입니다. 제철 먹거리를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상태로 전달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부와 소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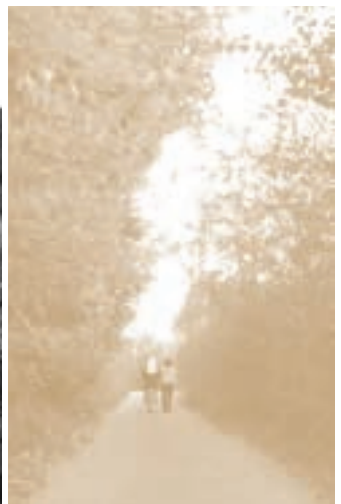


가 계약을 맺고 1년 동안 건강하고 안전한 제철의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니꼬데모 수녀는 그런 방식으로 수녀님들의 밥상을 책임지고 싶다고 합니다. 자연에서 정성스럽게 마음과 몸으로 지은 먹거리, 밭에 흙을 묻히고 눈으로 보면서 지은 것을 그 누구보다 우리 수녀님들이 드시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2년 과정의 이 학교에서는 졸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창업이라고 합니다. 실상 졸업이라는 말은 맞지 않지요. 창업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배운 것을 이제 자신의 업으로 일로 삶으로 시작해야 할 때임을 말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1년을 지낸 니꼬데모 수녀도 앞으로의 창업을 생각합니다. 가장 소박한 시작이라면 밭 하나에 채소를 길러 우리 수녀님들의 식탁에 올리는 꿈이겠지요. 먼저 수녀님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하고 싶은 아주 작은 꿈이지만 그것은 어쩌면 지구 생태계 전체를 살리는 큰 꿈의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살아가가면서 나 하나부터 생태계를 파괴를 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농사를 짓는 한 사람, 그 정직한 농산물을 먹어주는 한 사람, 작은 하나 하나가 모여 생태계를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우주를 살리는 큰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꼬데모 수녀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관계로 엮어지는 첫 번째 그물코가 되고 싶은 것이겠지요.

한 소비녀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꿈을 살기까지 꿈을 비워야 할 때도 있고, 비움으로 더 크게 자라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소비녀의 키 작은 꿈 안에 성가소비녀회의 새로운 미래가 움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함께

새로운 성가정을

삼정 분원 | 이 유정를베드로 수녀 인터뷰

꿈꾸다



설립자 성 신부님께서 소비녀들에게 편지를 보내셨다.

“가난한 집에 가서 가난한 가족을 도와 드립니다.”

“각 가족에게 가서 평화, 기쁨 주시오. 도와주시오”

“집에 가서 당신 애덕 보여주시오”

“성가회의 첫째 목적은 가난한 노동자입니다. 특히 노동자의 부인입니다. 여러분의 전교 장소는 특히 가난한 사람의 집안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자들하고, 불쌍한 자들하고 제일 가까운 자 되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소비녀는 행간에 서려 있는 설립자의 간곡한 마음을 느낀다. 아버지 신부님의 당부 말씀은 소비녀의 마음 깊이 새겨진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소비녀는 설립자의 말씀과 정신을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 소비녀, 삼정분원에서 특별히 설립자께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으로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필리핀 노동자의 부인, 그들의 가족과 함께 해운 이 유정률베드로 소비녀를 만났다.

“3년 전 비아 분원에 삼정 분원으로 이동되어 왔어요. 공장에 취직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피정을 했는데 피정 끝나던 날, 그 당시 총장 수녀님이셨던 프리스카 수녀님이 종이쪽지 하나를 건네시며 가보라고 하셨어요. 그곳이 국경 없는 친구들이었죠. 프리스카 수녀님이 주신 것은 그곳에서 나오는 회보 한 장이었고 거기 가서 뭐를 해라, 얼마만큼 해라,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성격이 한 번 무엇들 하라고 하면 그것을 내 집일, 남의 일 가리지 않고 하거든요. 수도회에서 그곳으로 나가라고 하시고는 그만 하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나갔죠. 국경 없는 친구들에서 일을 많이 배웠어요. 국경 없는 친구들의 책임자 수녀님이 저를 많이 데리고 다니시며 일을 배우게 해주셨지요. 출입국 사무소에도 데려가시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만나볼 일도 저에게 자주 시키니까 그들과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만나서 일처리를 다 하고 오고, 수녀님이 요만큼 원하시면 저는 이만큼 해놓곤 했어요.

처음에는 이주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가끔 가다가 국제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주 노동자보다 다문화 가정에 더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간이 되면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남편들과도 만나고요. 그런 점에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수녀님들의 방식과 제가 하는 방식에 차이를 느꼈어요. 수녀님들은 맡겨진 사람의 일이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이었지만 저는 계속 방문하고 연락하고 다른 데도 연결해주었어요. 실제로 그들과 만나 보면 당장 가져온 문제보다 그 뒤에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경 없는 친구들에서 나와 그곳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혼자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일

국경 없는 친구들에서 이주 노동자들, 특히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과 인연을 맺은 정률베드로 수녀는 삼정 분원의 지하 공간을 이용하여 한국어 교실을 시작했다.

알고 보니 국경 없는 친구들에서 만났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삼정 분원 주변에서 살고 있었다. 삼정분원 뒤쪽으로는 작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다. 공장지대에 있는 삼정분원 근처에 그들 대부분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계속 일이 생겼다.



“여기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엄마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러 와요. 엄마들을 만나다보니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계속 생겼어요. 작게는 생활에 대한 소소한 도움과 크게는 취직을 해야 하는 일들이죠. 다문화 가정은 거의 다 엄마가 외국인이에요. 대부분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남편들이 나이가 많은 편이죠. 요즘 사는 게 참 어렵잖아요. 회사가 어렵고 회사들이 중국으로 간다는 말도 있고, 결국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되면 나이들이 많으니까 다시 취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취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제가 취직도 시켜줄 때도 많았어요.

여기에서 3년을 살았지만 제가 특별하게 한 것도 거창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을 제가 하거든요. 이주노동자 같은 경우 바쁘니까 전기세, 가스비 같은 것을 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제가 해주는 거지요. 아주 일상적인 일들이예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방 얻어야 한다면 제가 부동산에 가거나 길에 붙어 있는 광고문 같은 것을 알아보고 그들의 수준에 맞는 것을 찾고, 또 계약 할 때도 함께 가서 제대로 되었나 확인하고 그러지요. 수녀가 따라가면 방값도 깎아주고 잘 해줘요. 가스비를 못 내서 가스가 끊어지면 그들은 찬 방에 그냥 살고 있어요. 가스비를 내려고 전화하면 요즘은 다 음성 시스템이잖아요. “뒀는 몇 번 뒀는 몇 번을 누르세요”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고치거나 인터넷 같은 걸 연결하는 것도 다 낮에 오는데 그 사람들은 공장에 가서 일하니까 제가 연락받고 가서 문 열어서 설치하고 그러는 거지요.

병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한테는 참 큰일이에요. 병원비 낼 형편이 어렵잖아요. 한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 전체에 대해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고 병원비에서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 내가 도와주어야 할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저도 쓸 데는 있는데 만날 돈이 간당간당하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느님, 당신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다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신기하게도 다 도와주셨어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꼭 필요한 그만큼을 항상 도와주셨어요.”

소비녀의 하느님 체험이다. 그리고 그것은 외국인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의 하느님 체험이기도 하다. 소비녀는 자신이 가진 자원이거나 장점은 오직 무식하다는 것 하나였고 그 무식함 안에서 움직이는 하느님의 힘이었다고 고백한다. 그것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하신다는 비움의 체험이었을 것이다.

“제가 처음 2년 동안은 사복 입고 이 일을 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과 입장을 뼈저리게 체험했죠. 외국 사람들이 출입국사무소 가면 무작정 기다리게 해요. 저도 처음에는 무작정 기다렸어요. 제가 후줄근하게 생겼으니까 출입국사무소의 직원들이 무시하는 거죠. 제가 수녀라는 걸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에게 따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아줌마는 누구냐고 왜 그러냐고 그래요. 아줌마건 뭐건 왜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거냐, 여기 책임자 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 저 여자가 생긴 것은 후줄근해도 무슨 큰 뺨이나 있는 것은 것은 아닌가, 긴가민가 하면서 태도가 달라져요. 막 죄송하다고 그러고 문 앞까지 나와서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참 슬퍼요. 하지만 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더 따졌어요. 제가 수도복을 입고 가면 저는 잘 대해주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맨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말도 잘 못하고 약한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정당한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고 누군가 그들을 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막 따졌어요.

저는 무엇을 배운 것도 아니고 이주 사목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어요. 다만 배운다는 심정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몸으로 뛰었어요. 보통 이주민을 위한 센터에서는 전화로 알아봐주고 연결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는 그냥 직접 데리고 가서 해결했어요. 노동부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취직할 수 있는지, 출입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단속반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몸으로 뛰어다니며 알고 터득하고 도와주었어요.”

이 시대의 강생은 무엇인가?

2천년 전 이스라엘의 한 작은 마을에 강생하신 예수님은 어린 아기였다. 하느님이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할 아기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2천년의 세월을 넘어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강생하신 예수님을 소비녀는 만났다. 익숙한 자기나라를 두고 낯선 땅, 말이 통하지 않는 한국 땅에 와있는 외국인 노동자 예수, 말을 하지 못하니 어린 아이와 같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취직 자리, 방 하나 얻기도 힘들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조차 힘들다. 소비녀는 그들이 바로 사람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작은 아기 하느님이심을 알아보았다.

“사람들이나 삼정동 신자들이 가끔 그이들이 뭐가 가난하냐고 되묻곤 해요. 솔직히 그들이 돈을 막 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악착같이 돈을 모으지를 않고 별로 벌지도 못하면서 비싼 것을 퍽퍽 사거나 그래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 못하는 것만큼 가난한 게 어디 있는가! 말을 못하니까 손해 보는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아요. 실제로 그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다 고등교육을 받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말을 잘 못하니까 어린 아이나 바보 취급당할 때도 많아요. 우리와 말을 할 때는 진짜 순진하고 어린애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가끔 자기들 끼리 자기 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아주 다른 모습이에요. 아, 저런 모습도 있구나, 저 사람들이 저런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니 얼마나 가난한가,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보살핌을 받으셨잖아요.”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굉장히 심각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부 문제와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이어진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엄청 많아요. 한국으로 시집온 여자들 중에 결혼이 목적인 것 보다는 돈 버는 게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 부부간에 사랑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도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서로 대화를 하다보면 사랑도 생겨날 텐데 사랑도 없이 결혼했는데 말도 안 통하니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제결혼해서 한국에 시집오는 여자들을 보면 모두 데려다 한국말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어 교실을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제가 만난 엄마들도 처음에는 진짜로 한국어 공부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알림장을 들고 오는데 뭘 소리인지 모르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공부방이었어요. 다섯 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오전에는 다른 일을 하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돌아온 애들을 돌봐주었어요. 엄마들은 주일날 한국어 교실을 했고요.

아이들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요. 우리 공부방이 아이들 다섯 명으로 시작했는데 다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다문화 가정 아이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이들의 첫 번째 문제는 말을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였어요. 학교에 들어갔는데 2명만 한글을 알고 세 명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에게 한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가르치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은 안 돼요. 예, 아니오 밖에 못해요. 알고 보니 엄마 아버지가 말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엄마는 필리핀 사람인데 거의 말을 안 하고 살고, 아빠도 말이 없는 사람이예요. 그러니 아이가 말을 못 배운 거지요. 가만히 보니 아이의 성격은 아주 밝아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는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미술치료도 해보았는데 봉사자 차원으로 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언어전문치료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했어요.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또 한 명은 소아우울증에 걸려서 놀이치료 전문 기관에서 놀이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 아이도 지금은 보는 사람마다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다고 놀라워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도와주는 거지요. 이런 것들도 다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면 다 이루어주시는 것을 체험해요.”

새로운 성가정 안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주민 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한 가정을 돕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정률베드로 수녀가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국제 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에 관심이 기울어진 까닭이 짐작이 된다. 그것은 성가소비녀이기 때문일 것이다. 소비녀 안에 생생하게 살아 올리는 설립자 신부님의 목소리가 있었다.

“한 가족은 우리와 앞집 뒷집으로 살았는데 아빠도 엄마도 새벽 일찍 나가니까 제가 아침에 가서 애들 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막내는 우리 어린이집에 데려오기를 몇 달을 계속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아, 이게 우리가 할 일이구나, 별 일은 아니지만 성 신부님께서 너희가 노동자 가정을 도와라 하신 말씀 그대로였죠. 아, 이게 우리 수도회 영성에 맞는구나, 하는 기쁨을 느꼈어요.

또 우리 어린이집에 오는 한 아이의 가족은 아빠가 약간 뇌성마비였어요. 사람이 괜찮고 직장 생활도 잘 하는데 말할 때나 외모가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를 꼴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봐도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엄마를 만나 때마다 아이 아빠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외모는 그래도 저렇게 좋은 사람 만나기 힘들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이도 아주 예뻐 해 주고 남편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좋게 말해주니까 엄마가 확실히 변하는 게 보여요. 남편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남편을 필리핀에도 데려가 가족들에게 인사를 시켰어요. 그때가 처음이래요. 부끄러우니까 그동안 남편을 가족들한테 소개도 안했던 거예요. 아이 아빠가 필리핀에 갔다가 돌아와서 장인 장모가 자기를 너무나 좋아했다고 기분이 아주 좋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문화 가족의 문제는 일단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들과 얘기를 해봐도 정말 답답해져요.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지만 학력 차이도 커요. 필리핀 출신의 엄마들은 거의 다 대학 나왔거

든요. 그런데 한국 남편들은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거나 그래요.

엄마들을 만나보면 평평 울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얘기를 해요. 평평 울고 가니까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묻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죠. 이러저러 해서 부인이 힘들어한다고 얘기해주면 그때부터 남편이 변화되어요. 대화를 하면 풀릴 일을 서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겪는 어려움이지요.”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엄마들에게 좀 더 나은 취직자리를 찾도록 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때죠. 대부분 공장에만 취직하려고 하는데 필리핀 엄마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칠 만큼의 실력이 되잖아요. 제가 하도 잔소리를 했더니 공장에 안 가고 학원에 취직을 하기도 했는데 학원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어린이집에 관계 되는 놀이기구 같은 것을 파는 사장님을 알게 되었는데 엄마들을 실습시켜서 어린이집에 소개시켜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을 시켜달라고 부탁해서 지금 2명이 배우고 있어요. 또 한 엄마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센터에 취직을 해서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삼정 분원은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들을 취직시켜 주고 엄마가 취직을 해서도 어린이집과 공부방이 있어서 애들은 우리가 봐줄 수 있으니까요.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멀리 내다보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잖아요.”

정률베드로 수녀는 3년간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해왔다. 무슨 계획이나 비전이나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하다 보니 보였다. 필요로 하니 도와주게 되었다. 이 사람한테 여기가 가려우면 이쪽을 긁어주고 저기가 불편하면 그쪽을 다독였다. 그때 그때 다가오는 일들을 그때 그때 적합하게 하느님이 주신 지혜로 살았다.



“수녀님들이 외국어를 못해서 외국인 사목을 못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외국어는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한국말을 잘 하거든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는지 설명해주고 또 선생님이 하시는 말을 그이

들이 알아듣게 설명해주는 거예요. 어찌다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면 말을 잘하는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이들은 자기들이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하지만 들어 보면 무슨 소리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마음만 있으면 다 들리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의 가려운 데를 알고 함께 해주고 희망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정률베드로 수녀가 3년 동안 쌓은 노하우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 저절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 알게 되었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방법이 보이니 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미래도 내다볼 수 있게 되었다.

서로 연대하는 내일을 꿈꾸며

“저는 크게 시작하는 걸 바라지는 않았지만 작게 시작해도 좀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앞으로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소비녀들이 설립 카리스마를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강생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미래를 내다본다면 저는 연대가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도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센타나 일반인이 운영하는 센타와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고 또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주 사목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고 활성화 된 것도 10년 안팎이잖아요. 초반기에 저는 개신교에서 하는 세미나에 많이 가봤어요. 우리 가톨릭과 다르게 그들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많이 한다는 점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배울 것이 아주 많았어요. 가톨릭보다 훨씬 깨어 있고 질문도 굉장히 예리하게 해요. 우리 가톨릭은 그런 점에서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센타들과 연대해서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수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알게 되면서 가톨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예요.



지금까지는 도당동과 삼정동의 세 팀이 연대해서 미니 축제를 2년째 하고 있어요. 말이 미니 축제이지 모이면 곳곳에서 몇 백 명이 모여요. 공원에 함께 모여서 각 나라 음식 같은 것을 준비해서 나누고 각 나라 춤이나 장기 자랑을 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미니 축제뿐만 아니라 캠프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연대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쪽 지역에서 코시안(국제결혼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은 우리가 처음이고 지금까지도 여기에는 우리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수도권 수녀님들이 보러 오기도 하고 정보를 얻어가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도 서로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쪽이 앞으로 재개발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공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처를 옮긴다 해도 그들이 가는 곳으로 또 우리도 가야지요. 재개발 후를 내다보면서 우리도 변화와 새로운 적응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봐요. 다시 시작한다면 물론 작게 시작하고 처음 지향한 것처럼 소소한 일들이지만 그들의 가정과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좀 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인원도 더 있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뛰어 다니는 수녀가 있는가 하면 또 엄마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모임도 하고 가족 모임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비슷한 입장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어려운 점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예요.

이 일을 하면서 우리의 성가정 정신이 이 시대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체험해요. 이들이 이곳에 뿌리 내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가정이 안정되고 가족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거든요. 또 가족 모임을 해서 가족 간에 서로 알고, 특히 엄마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겪는 어려움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서로 마음 터놓고 나누며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요. 지금도 자기네들끼리 명절이나 이럴 때 모여서 음식을 해먹고 그러는데 우리를 초대해서 가기도 해요. 우리 공부방에서도 일년에 세 번 추석, 성탄, 설에 파티를 하고 있어요. 센타끼리도 연대하고 가족들 간에도 연대하고 우리도 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비전이라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천천히 그리고 멀리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수도자라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면서 한계점이기도 하다. 처음에 그들은 수녀가 무엇인지도 몰라 정률베드로 수녀를 아줌마라고 불렀다. 이제는 수도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신뢰하면서 자기들의 가장 어려운 것과 가장 귀한 것을 맡기고 부탁한다. 이 낯선 곳에 와서 모든 것에 약자이고 불리한 입장에 있는 그들이 그래도 자기들의 편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으로서 믿고 맡기고 기뻐 태가 있다는 점에서도 소비녀가 하는 역할은 소중하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정률베드로 수녀도 지난 2008년은 어린이집 일을 맡고 나서는 그 일이 바빠 예전처럼 그들을 위해 직접 발로 뛰어다니는 일이 뜸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 시간 안에서 얻은 것도 크다.

“요즘 제가 기도 중에 만나고 있는 것은 ‘천천히’ 라는 것이예요. 그동안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시간

이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아이들과 지내면서 천천히 가는 것, 느림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도 멈추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라는 신뢰가 생겼어요. 예전 같으면 내가 당장 달려가서 부탁하고 재촉하고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1년을 지내면서 깨달은 것은 길만 터주면 그 다음은 꼭 내가 하지 않더라도 그들 스스로 찾아서 할 줄 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다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3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그들을 잘 알게 되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보이게 되었지만 제가 그만 두고 다른 사람이 오면 아마 다시 0에서부터 시작해야겠지요. 그게 걱정이 될 때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하신 것이기에 그분이 계속 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제가 여기 있든 없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깨달음이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도구로 쓰여졌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면 다른 어떤 도구를 쓰시든 그를 통해 이 일을 계속하시겠지요. 그리고 늘 함께 마음 써 주시고 용기를 주신 공동체 수녀님들의 배려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합심은 너희의 문장이 라는 설립자 신부님의 말씀이 뿔속까지 새겨지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소비녀는 비움과 떠남을 목상하고 있다. 그랬다. 처음부터 무슨 계획이 있어서도,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소비녀가 있는 곳에 가난한 이들이 있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눈에 보였기에 그 일을 했을 뿐이다. 그것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한 소비녀의 꿈은 진정 자유롭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어질 그 모든 일 앞에서….



곶다시 모여사는



강생의 영성과 자기 양성

| 김 레오 수녀 |



I. 시작하는 말

우리는 지금 수도회 설립 70주년을 다섯 해 앞두고 있다. 50주년을 지내면서 설립자 사제 성재덕 기념자료집을 처음으로 발행하였고 60주년을 기념하여 성가소비녀회의 영성확립 작업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2008년 12월 28일, 설립65주년 성탄절을 기하여 관구 설립선포식을 가졌다. 복음 선포라는 대의명분을 걸고, 그의 내적인 목적을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쇄신에 두고, 새로운 창립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제14차 총회에서는 종신서약 이후, 임종에 이르기까지의 계속 양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는 진단 하에 그에 합당한 실행방법을 강구하였다:

“지속적인 양성을 통하여 자기 양성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개인, 공동체, 수도회 차원).”¹⁾

회원들의 양성은 전인적 성숙을 전제로 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청원기는 물론 수련기를 정점으로 서약기간에 들어가면서부터 점차 자기 책임이라는 인격적 측면이 확고히 드러나게 된다. 책임은 진다는 것이 자기양성의 관건이 되고 있다.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단어의 뜻은 응답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하느님이 주신 능력이며 수도생활의 삶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수

1) 제14차 정기총회 문헌 17.

도성소는 7성사 중 하나가 아니고 사제직과 함께 성소, 하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한다.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삶의 양식이 초자연적인 방향으로 규정된 것이기에 성소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응답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조화롭게 개방할 수 있는 존재의 성장에 관한 요청이며 인간 영혼의 내적인 급박한 요구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하느님의 명령(레위19,2)은 곧 책임 있는 인간이 되라는 뜻이 된다.²⁾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자기 자신의 수도성소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성가소비녀회 수도자 양성의 각 단계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수련해왔으며 지금은 어떠한 관계로 느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성가소비녀의 영성과 사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진정성에 대한 질문으로 요약되는 것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하여 설립자가 소비녀들에게 가르치신 강생의 영성과 사명이 어떠한 것이며 자기양성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한다고 하는 요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하는가? 그와 함께 소비녀라는 이름에 합당한 수도자의 이상 상(理想像)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등의 질문에 답해보기로 한다.

II. 강생의 영성과 사명

1. 설립자 성재덕 신부의 가르침

2004년 제8차 지역모임에서 우리는, 성가소비녀회의 영성은 “강생의 영성”이며 그 정신은 “소비녀 정신”이라는 것,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는 구체적이고 상당히 실천적인 우리의 영성을 살아가는 것”임을 공유하

였다.³⁾

강생의 영성과 소비녀 정신. 이는 영성과 사명을 구분하여주는 말이다. 영성은 정신으로 육화하고 삶을 통하여 공동체적 행위와 사도직으로 표현된다. 쇠신의 문제도 여기에 달려있다. 영은 몸으로 표현되고 몸은 영으로 살게 될 때만 친교의 유대가 되기 때문이다.⁴⁾

예수성탄은 설립자가 처음부터 소비녀들에게 거듭 되풀이하여 말씀하여주신 원래적인 우리 영성의 원천이다.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창조물인 우리들에게 내려오시는 사랑을 시작하신 날이며 성가회의 본 정신이 시작된 날이다. 그러므로 성가 소비녀회의 영신적 축일은 예수성탄이다. 예수성탄의 메시지는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있다. 그 사랑은 역동적인 사랑이다. 그 사랑의 역동은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 베들레헴의 마굿간에 내려오셨고 인간인 마리아의 품에 내리셨으며 그리고 날마다 미사성제 때 빵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내려오시는 사랑, 강물같이 흘러내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을 말한다.

강생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말과 행실로 기쁘게 천주를 찬송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윗사람, 부자들을 쳐다보지 않고 아랫사람, 불쌍한 사람에게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구속을 완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내리는 정신, 소비녀 정신은 강생영성의 핵심이며 성가소비녀회의 큰 프로그램이다. 모든 사도직을 수행하는 마음 자세를 가리킨다(회헌49).

2. 강생의 신비: 임마누엘의 신비

필립비서 2,6~11에서 표현되는 강생의 영성은 초대 교회서부터 시편과 같이 애송되어왔다.⁵⁾ 하느님이 종의 신분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

2) 깨달음을 통한 치유. 그리스도테라피. 버나드 J.티렐 지음/유병일,김종원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2. 50-51.

3) 60주년을 기념하여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영성확립 작업을 단행하였다는 것. 참조: '04.10.회보. 별지2,III.

4) 수도생활신학 370. 세베리노 마리아 알론소 지음. 강운자 옮김. 기쁜 소식. 2007.

5) 아래로부터의 영성 31-32. 안셀름 그린/마인라드 두프너. 전현호 옮김. 분도출판사. 2006. 31-32.

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낮추시는 움직임과(2,6-8) 하느님께서 그분을 들어올리시는 움직임의 상반된 두 가지 움직임을 보게 된다(9-11).

7절의 '비우시어'는 케노시스(kenosis: 그리스어 동사에서 유래하는 명사), 즉 스스로를 낮춤이다. 예수께서는 낮추심으로써 하느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계시하셨다. 예수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신 첫 번째 형태는 강생 또는 육화이며, 그 두 번째 단계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자기비하(自己卑下)를 선택하신 것이다. 그분의 낮추심은 인간의 몸을 취하셨음이며 동시에 자기목숨을 내어놓는 순명을 선택한 이중의 낮춤이었다. 선택하셨다는 것은 소비녀 성소의 동기가 된다. 낮춤은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려오심의 목적인 '함께하심'을 이야기한다. 이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인데 그것은 내적으로 물처럼 스며들어 흘러넘치게 하는 것, 또는 빗처럼 투과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요한 7,37~39, 1,1~5,12,46).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신다는 7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이사 52,13-53,12)를 떠올리게 한다.⁶⁾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53,10b).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송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질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52,13-15).

모든 사람의 고통과 죄악을 짊어진 '그' 라는 인물은 속죄의 사명을 받아 완수하는 신비스런 하느님 종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예수그리스도 이전에는 아무도 그 사명을 받지 못했다는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며 궁극적 의미를 주는 것이다.

강생의 신비는 성탄의 신비이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역동의 신비이며 우리와 함께 하고자 끊임없이 움직이는 임마누엘 Immanuel의 신비이다. 구약의 시대로부터 하느님은 명명할 수 없는 존재 자체로서 여러 가지 속성적 의미로 불리어 왔다(엘로힘, 야훼, 엘샷다이, 아도나이 등). 그러나 이제 임마누엘의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과 같은 조상들의 하느님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이름이다. 우리는 사회 정치적 관계의 상징만이 아니라 우주적 상징으로서의 하느님의 이름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임마누엘이신 하느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느님 이름 가운데 가장 적절한 이름이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부모처럼 우리를 보살피고 돌봐 주시는 살아계신 사랑의 하느님이시다. 어머니가 태중의 아기를 먹이고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사랑의 하느님, 마치 나의 몸과 일처럼 끼여 함께 고통을 겪고 공감하는 사랑의 하느님,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털어주는 연민의 하느님이다.⁷⁾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아버지 하느님 또는 어머니 하느님만을 느끼게 하는 편애적인 이름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6) 구약성서 새 번역, 240-243, 입문18-19; 제20이사야서(40-55장)에서는 '종'이라는 낱말이 21번 나온다. 이스라엘 전체, 정예의 이스라엘인들을 가리키거나 제20이사야 자신, 그리고 페르시아의 임금 키루스를 가리킬 수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9292.

7) 예수 우리의 동반자 146, 각주63; 연민(Compassion)에 대한 히브리어는 'rahamin' 이다. 이는 '여성의 태' 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인만희 지음, 김영미 옮김, 한국천주교여성사수도회장상연합회, 양성장교육원, 2008.

인간의 성(姓: 남성 혹은 여성)을 통합적으로 초월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관계적 상징으로 표현해주는 이름이 된다.⁸⁾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이 먼저 우리 위에 내리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직차원의 하나님 섬김과 수평차원의 이웃에 봉사하는 삶이다. 그것은 포물선 운동과 같은 나선형 궤도를 그리며 상승하는 삶이다. 미사성제는 바로 이렇게 내려주시는 사랑과 그 사랑을 다시 살아 올려드림으로써 치유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순환의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인간의 종이 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 설립자의 뜻을 헤아리게 된다.

III. 소비녀 정신 : 주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1943년 12월 25일 성탄축일 미사 후, 현재 혜화동 성당 성모상 앞에서 두 명의 지원자가 순명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가소비녀회의 수도공동체 역사는 시작되었다. '소비녀' (小婢女)라는 명칭은 예수탄생예고 장면에서 성 마리아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한 사실을 생각하여 설립자가 지어준 우리의 고유한 이름이다(창립25, 13-15). 그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사도적 사명을 표현해준다.

역동적인 강생의 신비에 따르는 성가소비녀회의 사명은 낮은 곳을 향하여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성가소비녀의 첫 번째 정신은 소비녀 정신, 즉 종의 정신이다. 이사야 예언서에서 예수를 '주님의 종'으로 지적하여 예언하였듯이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자기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사도들의 발을 씻어주기까지 하셨다.

야훼의 종, 주님의 종이라는 칭호는 구약성서에서,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 모세, 칼렘, 여호수아, 다윗 임금, 그리고 아히야, 엘리야, 요나, 이사야 등, 예언자들에게 주어졌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하고 그분의 계획을 선포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받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다.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도, 페르샤의 키루스 임금도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수행할 때는 그분의 종으로 불리었다. 그들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정의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제2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의 집단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이며 손수 빚어 만드신 민족이기에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⁹⁾

하나님은 당신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 예수를 뽑아 파견하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셨으며 인간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은 야훼 종의 사명을 당신의 사명으로 이해하셨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참된 종,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스승으로서 당신 제자들에게도 섬기는 분이셨으

8) 참조: 하나님의 백한번째 이름, 엘리사벳 A. 존슨 지음, 함세웅 신부 번역, 188-192, 188: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많은 이름을 부여해야 한다" 고 아퀴나스는 결론짓고 있다. 189: 하나님은 어머니, 아버지, 남편, 사랑받는 여인, 동반자, 친구와 같이 인간적 관계에서 취한 용어들과 변호자, 해방자, 왕, 용사, 판관과 같이 정치적 삶에서 나온 상징들로 표현된다. 191: 그러나 이러한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아퀴나스가 "우리 어휘의 부족함"이라 고백한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9) 당신 종, 나의 종: 탈출32,13, 신명9,27, 창세24,14, 26,24, 예제28,25, 그분의 종 모세: 탈출14,31, 묵시15,3 등 약 40번, 나의 종 칼렘: 민수14,24, 여호24,29;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기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1,1)이라고 단 한 번 명명되었다. 그리고 죽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종이라고 명명 된다. 다윗: 그 당시 임금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미래의 메시아로 추앙받은 임금이었으므로 모세 다음으로 자주, 30번 넘게 이 칭호가 붙여진다: 2사무3,18, 2역대32,16, 하개2,23, 즈카3,8, 시편28,1, 루카1,69, 사도4,25, 당신 종 아히야: 1열왕14,18, 당신 종 티스베 사람 엘리야: 2열왕9,36, 갓 헤페르 출신으로 당신의 종 아미타이의 아들 요나 예언자: 2열왕14,25, 나의 종 이사야: 20,3,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 예레25,9, 27,6, 43,10, 키루스내 종, 나의 목자: 이사44,26-28, 레위25,42-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종들이니, 종이 팔리듯 팔려서는 안 된다. 1역대16,13, 느헤1,10, 이사63,17, 예레30,10, 루카1,54, 이사41,8-9, 43,10, 44,1, 21, 45,4.

며 동시에 그들의 주님으로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 사랑의 요구를 남김없이 받아들여 생명을 바치셨다.¹⁰⁾

예수께서 수난 전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그것은 스승으로서의 가르침 곧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삶의 가르침이었다. 하느님의 종은 인간의 종도 된다는 것, 지금 그분은 성부오른편에 앉아계시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 사도들은 이 일을 위하여 파견된 사람들이며 그들은 자신들을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사도들의 후계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주님의 종이라는 칭호가 붙는다.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교황들은 자칭 ‘하느님의 종들의 종’(Servus Servorum Dei)이란 칭호를 통해 자신의 직무가 하느님의 종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임을 겸손하게 표현한다.¹¹⁾

“성가수녀원의 첫 번째 정신은 소비녀 정신, 즉 종의 정신입니다. ... 첫째, 하느님의 종이 되어야 하며 둘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고 셋째, 교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¹²⁾

이렇듯 먼저 하느님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드디어는 교회의 종이 되는 것이다. 교회는 하느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종으로 봉사한 사실에서 우리도 하느님의 종이며 인간의 종이 되어 봉사하여야 한다는 것을 수용하게 된다.

하느님의 종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느

님의 종, 소비녀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종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 불러주신다(요한15,15). 소비녀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때문에 단순한 종의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 소비녀는 자유롭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예수의 형제자매들이며 친구들이다. 스승 예수와 함께, 친구 예수와 함께, 예수 주님과 함께 가는 동반자의 길에서 성가소비녀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다.

IV. 임마누엘 양성

예수께서는 스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셨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느님 나라 건설이라는 미끼를 던짐으로써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불러 모으신 제자들 중에서 열두 명을 사도로 삼으시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파견하셨으며 그로 인하여 그들은 이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길을 따를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의 운명과 함께 할 것을 요청하신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시련과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스승님께 대한 충실성을 발휘하게 된다. 예수께서는 사도인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동반을 원하신다.¹³⁾

모든 수도회들은 각기 고유한 사도적 지향을 가지고 생겨났으며 한 수도회의 사도적 활동은 그 수도회 봉헌 생활의 본성에 속한다. 사도적 활동이 수도서원의 우선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은 축성의 역동적 표현이다. 회원들의 존재와 행위는 각자의 수도공동체 삶을 표현해주고 증거 해주는 상보역할을 한다(수도생활 신학, 536-537).

10) 성서신학사전, 659-660. 루카4,18-19, 22,27. 마태11,29, 20,26-28, 요한13,12-15, 13,1, 15,13. 마르10,43-45.

11) 한국 가톨릭대사전, 한국교회사 연구소, 분도출판사, 2006, 9288-9293.

12) 성재덕 신부1, 96쪽. 강론 집 나해, 140쪽.

13) 예수 우리의 동반자. 인만희 지음. 김영미 옮김. 125.

수도생활은 그분, 예수와 함께하기 위하여 생겨난 공동체이다(마르3,13-15). 정결과 청빈과 순명이라는 복음적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의 양식을 선택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얼굴을 찾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분을 향한 초월적 성장과정은 먼저 수도자라는 정체성과 소비녀라는 정체성을 통합하는 방향설정을 전제로 한다. 소비녀 정신을 체득하고자 하는 전단계적(全段階的)인 과정을 기초로 하고 그 개별적인 양성의 단계들을 일치시켜주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 그 무엇, 그 소비녀 합심의 심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하느님의 종이라는 성가소비녀의 사명은 전인성과 거룩함의 양성을 위한 합심의 심지가 된다. 이 심지는 나의 자아 안에서 불태워져야 하는 것, 곧 자비하신 하느님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다.

임마누엘 양성은 전인성과 거룩함, 그리스도를 따르는 완전한 성숙을 향한 부르심의 응답 과정이다. 우리의 양성은 현실로 드러나는 나의 자아를 발견하고 그 자아가 이상적인 자아상이 되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동반해주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靈 spirit, 요한4,24)을 소비녀 각자의 마음 안에 받아 모시고 영과 진리로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지속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자아는 완전한 그리스도 자아를 향하여 나아가려는 사람의 자아이다.¹⁴⁾

하느님이 생략적으로 우리 영혼에 부여하신 힘은 생명력이다. 지상 생명을 비오스(Bios)라 하고 영원한 생명을 쯔에(Zoe)라고 한다. 영원한 생명력은 이미 이 지상에서의 유한한 삶의 에너지와 함께 내 마음 발에 씨앗으로 뿌려졌다고 하겠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나의 모든 언행은 내 자아로부터 형성되어 나오며 자아는 생명력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나는 나 자신의 이 생

명력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 관찰함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비추어 보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전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다. “그 뒤에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마르1,12). 그분을 광야로 내모신 하느님은 성령의 하느님이다. 거기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내적 통찰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뜻이다. 성령께서 통찰의 빛이 되어주셨고 힘이 되어주셨기에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스도 자아를 온전히 확립하는 시간이 되었다. 요르단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1,11).

우리 모두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그리스도의 형제자매가 되었고 하느님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다. 그 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려오시는 하느님의 은총과 생명력을 받았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광야로 내던져진 우리는 내적 투쟁을 계속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사탄은 적(賊) 그리스도 자아, 하느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반(反) 그리스도 자아이다.¹⁵⁾

우리는 작년(2008년도)에 만 8일간의 연중피정을 통하여 심우도(尋牛圖)를¹⁶⁾ 보면서 마르코 복음서 말씀 수행의 시간을 가졌다. 그것은 깨달음의 과정을 열 가지 소 그림으로 보여준다. 맹목적 의지만을 지닌 소와 이성적으로 소를 길들이려는 인간의 싸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소는 역동적인 내부의 자아상이며 그리스도 자아와 반 그리스도 자아와의 갈등을 투쟁의 모습으로, 점진적인 상승단계의 길로 묘사한 것이라

14) 깨달음을 통한 치유, 그리스도테라피, 84-87.

15) 위의 책, 60. 자아에 관하여 제3장, 57-93: 자아, 그리스도 자아, 자아상.

16) 심우도: 불교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도가(道家)의 것으로서 노자, 장자, 열자를 포함한 도교 일본 사람들의 흐름이 에서 나온 것이다. 선사는 12C 중국인이며 정주, 양산에서 살았다고 한다. 참조: 잠에서 깨어나라, 라즈니쉬, 19-24, 범우사, 1987.

- 필자가 계시용으로 사용한 심우도는 본 회 회원인 이 카리스마 수녀가 직접 그린 것이다. 제8우도(空과 無에서 끝남)를 십자가의 삶의 궤도로 바꾸어 그림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과 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빛의 세계로 들어감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겠다.

이 선(禪)의 십우도는 원래 팔우도(八牛圖)였다고 한다. 그 후에 중국 선의 대가로 꼽히는 곽암선사가 소 두 마리를 더 하여 십우도가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선(禪)의 여덟 번째 그림은 텅 빈 원을 보여준다. 모든 것을 초월한 침묵에 도달하여 완전하고 깨끗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아직 무언가 덜 되었다는 미완성의 아쉬움을 남겨준다. 그래서 곽암은 돌아온 탐구자의 모습을 두개의 그림으로 하여 첨부하였다는 것이다. 기나긴 여정에서 돌아온 탐구자는 이제 깨달은 사람이 되어 돌아왔으나 예전에 하던 대로 다시 시장바닥으로 나가서 암흑 속에 파묻혀있는 중생들에게 신성한 술을 부어주는 것이다(제+牛圖에서 깨달은 자는 통달한 도사의 모습: 배꼽을 내어 놓은 도복 차림에 지팡이, 그리고 술병을 건네 주는 모습). 그는 넘치는 연민으로 인하여 세상으로 돌아왔다. 깨달은 사람이 되어 돌아와 그 깨달음을 나누어 주려고 온 것이다. 고통스러워하는 이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이와 함께 그의 기쁨을 배가시켜주며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 주셨겠는가?

깨달음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8,13-14)이다. 우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그 좁은 문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내적인 영적투쟁이라는 것은 적대적인 전투관계가 아니라 삼위일체적 친교와 사랑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율법과 예언서들을 폐지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왔다고 하셨다(마태5,17). 내 안에 갇혀있는 반 그리스도적인 자아를 폭력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5,43-48) 동반해

가야하는 것이다.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며 외적인 모양새까지도 변모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내외적인 일치를 이루는 조화야말로 역동적인 사랑의 결과로 나타난다. “스승님은 그리스도 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모(變貌)사건에 참여할 수 있었다. 우리의 신앙고백은 예수그리스도의 빛나는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모습이 변한다는 것(마르9,2)은 영적인 변모(The Transfiguration)를 뜻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전망 안에서 가능한 변모인 것이다.

예수의 영을 지니고 그 영이 인도해 주시도록 허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수도생활은 역동적인 하느님 사랑의 삶을 살게 한다. 오직 나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감각들은 정화의 일로를 걷는다.

나를 휘감고 있는 욕망과 공포, 선과 악을 찾아내려고 길을 떠나야 한다. 누구든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이 여행을 떠나지 않는다면 되지 않는 일이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라고 마태오 복음사가는 표현하였다(11,12). 성경에서 ‘폭력을 쓰는 자들’이라는 말은 항상 원수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내 안에 숨어있는 원수, 반 그리스도적 자아의 정체를 찾아내어야 한다. 그 모습을 대했을 때 나의 생명력은 활기차게 움직인다. 그 때, 나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요동치고 내 존재의 무거움과 그 무거움이 깨어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소위 내 존재의 바닥치기를 경험하고 그것을 내 몸으로 받아 안는 것, 그 어두움을 털고 일어나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반하려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한다.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셨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 해줄 것,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겹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마저 가져가게 내버려두라고 하셨다. 이것은 신앙으로부터 가능한, 끝없는 희망의 나라로 들어가라는 초대이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기. 받을 생각 말고 꾸어주기.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지 않기. 이렇게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눅6,27-36). 이래서야 동반이 가능한 것이다. 나와 내 자신과의 동반이 가능하게 되고 나와 이웃과의 동반이 가능해진다.

나의 모든 감각기관의 정화 작업을 계속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서를 점점 닮아가고 그분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깨닫게 된다. 예수님이 나를 동반해주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정결과 청빈과 순명의 서약은 예수님이 나를 동반해 주시도록 이 일에 봉사해야하는 것이지 회헌과 회칙을 잘 지킴으로 끝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사랑으로 이루어야 할 나의 과업임이 더욱 분명하게 다가온다.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계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하느님과 친밀하게 살기위해서는 하느님께 텅 빈, 해방된, 평화스러운 영혼을 준비해 드려야합니다. 주님은 스승이시니,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첫째 자리를 내드릴 때 비로소 주님은 우

리 안에 내려오시고 머무실 것입니다.”¹⁷⁾

양성을 담당하는 모든 단계의 담당자들은 물론, 회원 각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동반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¹⁸⁾ 입문에서부터 생애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종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도록 하는 것, 그 모든 단계마다 겸손하고 온유한 인격적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비우고 종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동반하여 주는 것이다(필리피 2,6-11). 설립자 말씀과 성경말씀수행을 통하여 그 가르침들을 수행하는 수련을 지속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자기가 속하여 있는 양성의 단계에서 자기 자신이 곧 자기양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일상적인 삶의 모든 것에서부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양성해 나아가야한다.

초기양성에서는 공동체적으로;

처음부터 각 단계마다 성서에 나타나는 하느님의 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한다. 이것은 연계성의 맥을 제공한다. 동시에 공동체 삶 안에서 가난과 겸손의 덕을 닦음이 최고의 사랑임을 터득하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동반하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반하는 자기수련으로 인도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 마음으로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착복 전, 첫서약 전, 종신서약 전의 수련 기간 중에는 소비녀 영신수련 피정을 기획하여 그 시대와 그 시기에 적합한 하느님의 종 수련을 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¹⁹⁾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는;

17) 수도자 피정과 영성강의, 283.

18) 연피정 기간에는 자유롭게 서로 동반자를 선택하여 영적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19) 회칙기조와 양성지침 관련 사항이다.

초기양성부터 임종 시기까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친구가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기획하고 실천하여야 한다.²⁰⁾

지속적인 양성을 통하여 자기양성에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IV. 맺는 말

강생의 영성으로부터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역동이 시작되었다. 그 사랑은 성재덕 베드로라는 사제를 통하여 성가소비녀 수도회로 흘러내렸다. 성가의 비녀들은 자기 자신의 수도생활의 단계 단계마다 하느님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며 살아간다. 그 하느님이 아버지 하느님처럼 생각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머니 하느님으로 느끼기도 한다. 호세아 예언자는 하느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자기 삶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가서는 이스라엘이 사랑받는 여인으로서 배필을 찾아다니는 신비한 사랑의 서사시를 노래한다. 소비녀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반자 관계이며 이 관계는 임마누엘 양성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어떻게 함께 하는가의 물음은 개인 각자에게 달려있다. 나의 주님을 나의 스승으로 친구로 변호자로 해방자로…….

어떻게 그 사랑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이웃과 맺는 동반자의 관계를 보람 있게 완수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명하셨고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종의 임무를 완수하였다. 그리고 가장 높이 올림을 받았

다. 하느님의 종이라는 명칭은 성서에서 하나의 명예로운 칭호이다. 하느님의 종들은 먼저 시련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하느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의 설립자께서 가르치신 이상적인 소비녀 상(像)이 있다:

첫째. 가난하고 부지런한 소비녀.

둘째.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소비녀.

셋째. 시련이 오고 어려워도 지금까지에서 전 생애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굳센 의지의 소비녀 이미지이다.²¹⁾

유언서에도

1.열심 중에 살고 2.서로 사랑하며 도와주고

3.가난한 수도 삶과 미소한 이를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4.교회지도자들을 잘 공경하라는, 네 가지 말씀으로 요약되는 소비녀 상을 남겨주셨다. (성재덕 신부1. 313-320).

내적 생활은 육신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하기위해서 양분을 필요로 한다. 수도자는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매일의 복음묵상과 관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하나 하나 습득해가는 사람이다. 복음묵상, 영적독서, 성서독서, 묵주기도, 양심성찰, 피정 등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장하는데 요구되는 것이다. 수도자, 성가의 소비녀는 고독과 침묵 속에서 감각 정화의 내적 투쟁을 쉬지 않으며 복음적 가치관을 따라 꾸준히 진보하는 사람이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느님과의 일치를 갈망하는 열심한 영혼들

20) 성경 읽고 나누기: 지침원기부터 수련기에 성경강의만이 아니라,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복음서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읽되 “하느님의 종”을 염두에 두고 읽으며, 그것을 주제로 묵상 나눔을 함으로써 연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유기서약기와 계속수련 기간에도 할 수 있음.

성재덕 신부1. 223-224쪽: 설립자가 준 소비녀 정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녀 상을 보게 된다:

소비녀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지켜야 할 첫째 도리이며 단 5분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둘째 도리이며 온실 속에서 자란 꽃보다 마른 땅에서 자라는 들꽃이 더 강하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그 셋째요,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낮추시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모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과 같이 소비녀들은 가난하고 소외받고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네 번째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특별히 우리 소비녀회의 착복식과 허원식이 성모왕고 7월2일에 있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셨다. (7월2일은 마리아 엘리사벳 방문 축일을 말하는 것이며, 현재는 이 축일을 5월31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방문 축일로 지낸다. 성재덕 신부1. 223-224쪽; 故 명마리아 수녀님이 성신부님을 회고하는 말씀 중에 들어있는 글이다: 1992. 9.17. 김미리암 수녀작성).

은 매일의 양심(의식)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식 교정을 위하여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성찰은 늘 깨어있으며 하느님의 뜻을 찾도록 하는 훈련이며 마음의 자세이다.

-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했나? 어떻게 살았나? 생각과 말과 행위로.
- 내가 왜 그렇게 했나? 생각과 말과 행위로.
-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이 질문들은 매일 저녁 좋은 꿈을 꾸게 해주는 안내양이다. 지속적인 양성, 책임지는 양성의 바로미터가 되며 마스터키가 되는 것. 하느님의 내재하심을 어떻게 체험했는지 그리고 나의 응답은 어떠했는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성찰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깨어있으려는 노력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 1) 공부할 것. 2) 환상을 조심할 것. 3) 의식을 교정할 것
- 하느님과의 합일을 찾는 항구한 내적 영혼들은 자

주 양심 성찰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기에 그렇게 한다.(수도자피정과 영성강의. 70.237-365)

“소비녀들은 친구 대 친구처럼 그리스도께 기도할 시간과 분위기 조성을 신중하게 할애하여 이러한 친구로부터 ‘어떻게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는 종이 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찾고 간구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04. 10. 회보).

- 그리스도 영이신 예수님!
-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 매순간 제가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고
- 갈등을 풀어가며 살고자 합니다.
- 저로 하여금 새로운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 새로운 말과 행동을 하게하여 주십시오.
- 내가 나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 올바른 의사소통을 통하여
- 관계적응에 길들이게 하여주소서.
-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참조 문헌

1. 제14차 정기총회 문헌.
2. 2004년 9-10월 회보.
3. 성재덕신부1집. 서울성가소비녀회 50주년사 기념자료집. 1993. 분도인쇄소.
4. 소비녀들에게. 서울성가소비녀회 편. 2003. 기쁜소식.
5. 성재덕 신부 강론집 나해,다해. <성가소비녀회 설립자 강론집>. 2000. 2008. 기쁜소식.
6. 성가정의 벗 제3호 40주년 기념특집호.
7. 창립25주년. 1968. 성가 수녀원.
8. 수도자 피정과 영성강의. 설립자 성재덕 신부. 서울성가소비녀회 편. 2006.
9. 수도생활신학. 세베리노 마리아 알론소 지음. 강운자 옮김. 2007초판. 기쁜소식.
10. 예수 우리의 동반자. 인만희 지음. 김영미 옮김. 2008.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양성장교육원.
11. 깨달음을 통한 치유 그리스도테라피. 버나드 J.티렐 지음/유병일,김중원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2.
12. 아래로부터의 영성. 안셀름 그린/마인라드 두프너. 전현호 옮김. 분도출판사. 2006.
13. 하느님의 백한 번째 이름. <하느님 신비에 관한 여성신학적 논의>. 엘리사벳 A. 존슨지음/함세웅 옮김. 2000.
14. 잠에서 깨어나라(선의 심우도).브하그완 쉬리 라즈니쉬 지음.길연 옮김. 1987. 범우사.
15. 구약성서 새 번역. 신약성서 새 번역.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임승필 번역.
16. 성서신학 사전. 광주가톨릭대학 전명편집부. 1984. 분도인쇄소.
17. 한국가톨릭 대사전.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4판. 분도출판사.

나의 공동생활 이야기

“들숨과 날숨”

| 박 마리후고 수녀 |

1. 들숨 하나

어린 시절, 겨울은 지금보다 더 길고 무척 추웠던 것 같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에는 아주 추운 겨울날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가 안방 아랫목에 깔려 있는 빨간 담요 속에 손을 꼭 잡아 넣고는 따뜻하게 녹여주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에 차가운 기운이 다시 따뜻해지고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꼭 잡고 주물러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리 넉넉하지도 않았고 딸보다 아들이 더 귀했던 어머니에게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늘 집에 가면 어머니가 있었고 따뜻한 아랫목이 있었던 것은 제 유년기의 행복한 기억 중 하나입니다.

가끔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서 집에 안계시면 심통이 나기도 했지만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늘 저를 맞아 주셨던 어머니와 따뜻한 아랫목이 기억에 남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 옹기종기, 아웅다웅 가난한 가족들이 방 한 칸에 모여 살았던 기억은 지금의 저를 있게 하는 커다란 밑바탕이 되어준 듯 합니다. 아마도 나이 어린 저는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해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셨듯, 저에게도 가정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숨결을 따뜻하게 불어 넣어주신듯 합니다.

2. 날숨 하나

초등학교 3학년 영호와 2학년 영혜(가명)는 공부방에 다니는 연년생 남매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했고 그 후 엄마마저 아이들을 두고 그냥 집을 나가 버려 지금은 동사무소에 소년소녀 가장으로 등록이 되어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공부방에 다니고 있습니다. 외할아버지 역시 가난한 집에 태어나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 어린 시절 가출을 하였고 술과 가난, 질병으로 평생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영혜의 엄마 역시 가난과 외할머니의 가출로 이미 어린 시절부터 술, 담배, 가출을 일삼으며 살아오다 영혜의 아빠를 만나게 되어 두 남매를 낳기는 했지만 결혼 생활은 원만하지 못하였고 남편과 이혼 후 다시 가출하여 오랜 동안 연락이 거의 두절된 상태입니다.

수녀님과 함께 방문해 보았던 영호와 영혜의 집은 할아버지가 계시기는 하지만 폐기종을 앓고 계시기에 당신 몸 하나 추스르기도 어려워 보였고 집안은 온통 옷가지와 여러 가지 살림살이로 너저분하게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과연 영호와 영혜가 어른이 되어 어린 시절을 돌아보았을 때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게 될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정 안에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받았던 하느님의 숨결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요?



3. 들숨 들

공동 생활이란 주제를 앞에 놓고 내용을 정리하려 하는데 한동안 아무 것도 잡히지 않았고 자꾸만 영호와 영혜의 얼굴이 오버랩되면서 제 유년 시절을 돌아보듯 지금까지의 수도 생활 안에서의 제 공동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입회를 준비할 때 주변에서 들은 말 중의 하나가 ‘그 곳도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더라’, ‘공동생활이 어렵다더라’ ‘수녀원에 살아 남으려면 아주 착하거나 아주 독하거나 해야 된다더라’는 말들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이런 말들이 걱정스러워 아는 수녀님께 털어놓으니 세탁기에 옷을 세탁하듯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려면 서로서로 아프게 비비고 부대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도원 입회 후 과연 여기도 천사가 아닌 인간이 사는 곳임을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느님 안에서 서로가 약한 존재임을 받아들이며 서로서로 부대끼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더욱 정직하게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 앞에서의 끊임없는 자기 수련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매들과의 공동 생활을 통해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공동 생활은 수도 생활은 곧 공동 생활이란 말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자매들과의 공동 생활과는 또 다른 수도원의 언니, 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그 속에 사도직이 맞물려 있는 공동 생활은 제가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커다란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내면화되지 못한 복음 삼덕과 기도 생활, 수도자로서의 신원 의식이 빛나지 않도록 길잡이가 되어 줍니다. 물론 서로의 다름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차이로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다시 하느님 앞에 앉아 그분의 빛 안에서 비추어 보면 결국 제 자신의 부족함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게 되고 아직 하느님 안에서 성숙해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을 고백

하게 됩니다. 예전에 박문성 신부님께서 강론 중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 그를 거들 짝을 만들어야겠다'는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또한 혼자서 더욱 거룩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보다는 서로 함께, 더불어 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하느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있음이 참으로 버겁고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 생활 모습을 보며 아마도 하느님께서 '보니 참 좋구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년 시절의 기억에서처럼 제게 공동 생활에 대한 기억은 제 손을 잡아 끌어 따뜻한 하느님의 품속에서 녹여주려 했던 따뜻한 사랑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성가소비녀회 안에서의 공동 생활은 수도자로서 그리고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제 자신의 내면적인 미성숙함마저도 결국 수도 공동체 안에서의 겸손한 기도와 끊임없는 자기 수행을 통해서 나아가야 함과 하느님을 중심으로 강하고 튼튼하게 엮여져 있는 공동체의 울타리가 제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어린 시절, 따뜻한 아랫목이 있었던 집처럼, 뭘지도 모르고 그저 수도자가 되고 싶다고 찾아 들어온 저에게 성가정 공동체와 공동 생활은 하느님의 품안에서 영적인 숨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4. 날숨 돌

간혹, 우리 수도회가 예수, 마리아, 요셉을 주보로 모시고 있는 성가정 공동체임에 마음으로 감사드리게 되곤 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이야말로 하느님 사랑을 가장 충실히 따르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한 공동체라는 것을 조금은 알겠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성가정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기도해 주시는 수녀님들과의 공동 생활을 통해 성가정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보속이 공동 생활이라고 성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 다른 타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산다는 것은 분명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의견이 엇갈리고, 마음이 맞지 않고 뒤틀리기 시작하면 마음은 바늘 구멍보다도 더 작아져 아무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느님도 예수님도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마음 안에 커다란 자 하나가 자라나 이리저리 재어보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듯 말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등돌리고 앉은 채 단단한 벽돌을 쌓아 올리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사랑을 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말을 제 가장 가까이에서 한술밥을 먹는 식구들과의 공동 생활 안에서 매일매일 체험하며, 내 자신을 더 적나라하게 비추어 주고 내 안의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의 움직임이 하느님을 향하고 있는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함께 있음이 부담스럽고, 괴롭고, 피하고 싶기도 하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공동체라는 울타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느님 안에 한 형제자매임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기

도 안에서 겸손함을 청하게 됩니다.

저를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장시켜 주었던 가정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성가소비녀회의 공동 생활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봉헌된 수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에게 공동체와 공동 생활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 줍니다.

공동 생활 이야기를 정리하며 왜 영호와 영혜가 떠올랐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부대끼며 사랑을 받고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고 느끼게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도 그렇지만 영호와 영혜가 어른이 되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 볼 때, 과연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게 될까?... 종종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대해 갖고 있는 따뜻한 기억들을 우리 모든 아이들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지만 되도록 아이들을 많이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반겨주려 합니다. 특히 영혜와 같이 반겨줄 엄마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더욱 마음이 쓰입니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 학교를 마치고 오게 되는 공부방이 따뜻하고 소박한 가정의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뒤엉켜 지내야 하는 공부방에서의 생활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예수님의 손길과 성요셉, 성마리아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성가정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동체와 공동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힘을 얻듯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이 곳에서 우리들의 공동체가 내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부르게 먹고 마시며 '너랑 나랑 함께 사는 게 참 좋은 것이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구나' 라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 들숨과 날숨의 조화

성령강림 대축일에 공동체 미사 중에 신부님께서 들숨과 날숨 이야기를 하시며 성직자나 수도자들 많은 일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공허해지고 힘이 빠지는 이유는 내쉬기만 하고 들이쉬지 않아서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기운을 내 안에 들이마셔야만이 건강하게 세상을 향해 다시 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부족한 가운데서도 수도 생활을 할 수 있고, 소임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공동체와 공동 생활 안에서의 들숨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공동 생활,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해하려 노력하고 격려해 주는 공동 생활은 하나님의 성가정이 얼마나 복된 곳인지를 알게 합니다.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제 어머니가 차갑게 언 손을 따뜻한 아랫목으로 잡아끌어 녹여주었던 것처럼, 공동체의 사랑이 제 마음을 하나님의 품 속으로 이끌어 주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응어리지고 웅크린 마음을 성가정의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 줍니다.

성삼위 하느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성가정을 이루어 함께 기도하고 일치를 이루고자 서로 애쓰고 노력하는 성가소비녀회의 공동 생활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며 그 어떤 사도직에 앞서 가장 뚜렷한 복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한 분야에서 10년은 살아야 전문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수도 생활과 공동 생활은 예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5년을 살았든 10년을 살았든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수도 생활과 공동 생활은 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느님보다 내가 힘이 더 세어지고 커져버린 자리, 공동체와 이웃 형제자매들이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비좁아진 마음 자리를 늘 비워내고 닦아 내며 그 자리가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수도 가족과 가난한 이웃 형제들이 편안히 들어와 앉을 수 있는 아랫목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느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는 들숨이 되어 주고 날숨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수고해야 합니다. 편해지고 게을러지려하는 제 자신을 더욱 추스려야 하고 자꾸만 불어나는 이기심과 욕심을 수고로운 희생으로 덜어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이 가득했던 자리에 하느님의 숨결을 들이쉬고, 다시 그 숨결을 내 형제자매와 이웃들에게 내쉬기 위해 끊임없이 수련해야 합니다. 이렇듯 매일의 끊임없는 들숨과 날숨이 나와 공동체,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해줄 것입니다. 때로는 길이 참 멀다..싶기도 하고 아득하기도 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며 손을 잡아 주시는 성가정 공동체 안에서의 하느님 사랑을 믿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 내딛을 것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공동생활 성가소비녀회 소사분원 공동체를 중심으로

| 김 오상비오 수녀 |

1. 강생의 영성을 사는 공동체 생활원칙

우리의 영성이 강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보인다.'는 것은 '만들어 낸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산다.'는 의미이다.

또 '산다는 것'은 내 육체뿐 아니라 영혼과 마음 모두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겠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은 아마도 내 의지와 지향 모두를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 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내가 존재로서 예수님이 될 수 없으니 나의 최선은 바로 나의 의지를 그분께 향하는 것이겠다.

수도생활에서 공동생활이 이렇듯 중요한 만큼 수도회 차원에서, 또 개인 차원에서 공동생활을 위한 많은 노력과 연구들이 실천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역동적인 공동생활은 정말 '살아있다.' 수도생활 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 공동생활이 가장 중요하고도 또 가장 어려운 과제인 것 같다. 많은 숙고 끝에 수도회에서는 구체적, 적극적으로 우리의 영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 생활원칙을 제시하였다.

그 목적은 성삼위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 하기 위하여 복음과 설립자의 정신으로 합심하여 성가정의 가족적 일치를 이루고, 가난한 이들과 연대함으로써 지역 안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 원칙**
- 1) 복음 정신과 설립자 정신으로 무장한다.
 - 복음과 회헌, 회칙, 설립자 정신을 연구하고 나눈다.
 - 성체 중심의 생활을 한다.
 - 2) 합심하여 나자렛 성가정의 가족적 일치를 이룬다.
 - 종의 정신으로 서로 섬기고 순명한다.
 - 함께 계획, 식별, 실행, 평가한다.
 - 공동체 생활담당은 순환제로 한다.
 - 3) 가난한 자 되어 가난한 이들과 연대한다.
 - 경제적으로 자립한다.
 - 생활기준은 그 지역의 가난한 이들에 둔다.
 - 지역사회에 열린 공동체가 된다.
 - 가난한 이들을 직접 찾아 나선다.
 - 4) 공동사명 실현을 위해 합심한다.
 - 사도적 체험을 공유하여 연대한다.

물론 처음에는 지켜야 하고, 세심하게 성찰하고 의식해야 하는 어찌면 조금은 부담이 되는 규칙들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기도 안에서 함께 나누며 실천에 노력을 하다보면 정말 소비녀 냄새 물씬 풍기는 그런 삶의 지표가 되어 줌을 느낄 수 있다. 바로 이 짧은 문장 안에 소비녀 공동생활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고 생각해 본다. 수도회에서 제시된 이 원칙들이 내면화 되고 잘 이루어져 갈 때 소공동체인 대공동체인 소비녀의 영성과 사명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공동체 생활원칙이 제시됨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 보는 것’이다. 강생의 영성을 사는 공동체 생활원칙을 ‘해 봄’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다. 그래서 공동생활을 위한 원칙이다. 이 단순하고도 당연한 것 같은 말은 사실은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벌써 공동생활을 통하여 강생을 살아감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2. 지역사회 안에서의 공동생활 - 성가소비녀회 소사분원 공동체를 중심으로

강생의 영성을 사는 공동체 생활원칙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소비녀 공동체인 소사분원을 통해 지역 안에서의 공동체 삶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공동체 환경

분원 위치 시장 내에서 시장 사람들과의 친교의 장이 될 수 있으며 병원 가까이에 있어 병원방문이나 병원에 오가는 수녀님들의 열린 장이 될 수 있다. 또 그냥 수녀님들의 주거 공간만이 아니

라 재가복지와 공부방을 겸하고 있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구성원 종신서약 수녀님 5명과 유기서약자 2명의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의 분포도 어른 수녀님 2명, 중간층 수녀님 3명, 유기서약자 2명으로 적당하고 가장 이상적이라고도 할만하다고 생각된다.

2) 사도직과 구성원의 역할

소사분원의 사도직은 존재 사도직(사도직 이름을 찾자면), 본당 사도직, 공부방, 재가복지로 각기 다른 사도직에서 소임을 하는 수녀님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먼저 집안일을 돌보아 주시며 기둥처럼 뒷받침 해 주시고 사도직에서 돌아온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두 분의 어른 수녀님의 사도직이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분이 서로 의지하시며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모습에서 배울 점이 많고 집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느낌을 가져 그 힘이 밖으로 뿔어져 나눔을 실감한다.

두 번째 본당 사도직 수녀님 두 분은 소사분원에 거주하면서 소사본당으로 출퇴근을 한다. 두 분의 존재로 소사분원에 은인들과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끊이지 않으며 봉사자들의 연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세 번째 공부방 소임을 하고 있는 두 수녀님은 아이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단순하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서 배우며 공동체에 그 연결고리가 되어 주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재가복지 소임을 하고 있는 수녀님은 직접 발로 할머니들을 찾아다니시며 우리의 방문과 기도의 재료를 제공해 준다. 물론 다른 소임도 마찬가지지만 재가복지는 더욱 그렇다.

각자의 소임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의 생활을 함께 나누어 줌으로 이웃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며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준다.

이렇게 사도직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에서 각 구성원은 그 사도직에 맞는 몫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개인이 아닌 함께 하는 사도직의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도직의 공동생활은 일 중심의 공동생활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각 지체들이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듯이 하느님이 엮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소임에 충실히 하는 것이 바로 공동생활을 빼먹임 없이 잘 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의 열린 마음과 나눔이 결들여져야겠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한 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고 평화롭게 한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이다. 각자의 자리라면 혼자 서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을 보면 그것이 공동생활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수도생활에 있어서의 공동생활은 단순하게 개인이 여럿이 모여 무리를 이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수도회로부터 파견 받은, 즉 하느님으로부터 파견 받은, 부르심 받은 이들이 모여 사는 생활이기에 사도직의 공동생활이라고 하겠다.

이에 소사분원의 공동생활에서의 구성원의 역할이란 각자의 사도직에 충실하여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공동체에 함께 나누며 열린 마음으로 받아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며 발로 다니며 구체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신비스럽게도 이런 나눔의 시간을 통해 하느님께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서로 더욱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



3) 친교의 자리를 통한 사도직의 연계

우리 공동체가 자랑하는 식사시간~!! 이 시간이 바로 우리 친교의 절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하고도 행복한 시간으로 여겨진다. 이 시간이 행복하게 되면 소임에서나, 다른 공동휴식이나, 이웃을 만나서나, 청소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가 다 행복하고 힘이 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우리 공동체의 식사시간은 조금 길다. 그것도 그럴 것이 대화꺼리와 먹거리가 끊이질 않는다.

여러 사도직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나눔들은 하루만이라도 얼마나 풍요롭고 흥미로운지 모른다. 모두 함께 관심과 지지를 해 주고 있으므로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다.

식사당번을 7명 모두 돌아가며 하는데 모두를 이 행복한 식

탁을 준비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이 식탁에서 우리 공동생활의 중요사들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식탁에서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당신을 나누셨다. 공동체 안에서 나와 나 각자의 것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소임을 나누고 함께 들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온갖 방법을 찾아 돕고, 기도가 필요한 곳에는 기도로, 방문이 필요한 곳에는 발걸음으로 실천에 옮겨갈 수 있다.

자연스럽게 식탁에서의 나눔이 각 사도직의 연계로 이어지고 함께 이끌어 가는 사도직의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하나를 식탁위에 내어 놓으면 우리 일곱 식구의 마음으로 정성껏 맛을 내고 다듬고 소중히 그릇에 담아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음을 체험하며 하느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나눔은 함께 계획하고 식별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자리까지 이어져 무엇이든이 함께 공유하는 습관이 공동생활에 활기를 띠게 하는 것 같다.

예) 본당에서 어려운 할머니의 사정을 알게된 수녀님이 공동체에 돌아와 나누게 되면 재가복지 수녀님이 연결이 되어 직접 방문하여 도움을 드리거나 요양원으로 연결시켜 드림.
또 어린 수녀님들이 이웃의 어려운 가정 소식을 접하여 나누게 되면 그 가정의 아이들을 공부방으로 연결시켜 도움이 되기도 함.

4) 공동순명을 통한 합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듣고 이에 순명하기 위하여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홀로 기도하러 한적한 곳을 찾아 다니셨다. 순명을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

개인의 기도생활, 나아가 공동기도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존중되지 않는 공동체라면 공동순명 은커녕 공동문제를 내놓을 수도 없으리라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교회에 수도회에 장상에게 순명하는 것은 어쩌면 더 쉬운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공동생활에서 공동체에 순명하기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하나됨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는다.

이에 우리 공동체에서는 함께 계획 식별 실행 평가하는 과정들 안에서 공동순명의 기회를 자주 갖게 된다. 작은 일도 함께 나누다보니 함께 식별해야 할 생활에서의 소소한 일들이나 중대사들이 많이 생긴다.

공동체 회의의 목적은 공동체의 평화와 선에 맞춰져야 하겠다. 이런 점에서 수도회에서 각 분원에 실행하도록 한 '식별연습'은 우리 공동체가 늘 하고 있던 모양과 비슷하기도 하고 공동순명을 이끌어 내기 위한 좋은 과정이란 생각이 들었다.

예) 방을 옮기는 문제, 세탁기 사용 문제, 기도 방 자리바꿈 문제, 가구배치 문제 등 아주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없거나 혹은 불편한 맘을 비추이면 다음번으로 이야기를 미루며 하느님과의 시간을 통해 공동선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여유를 둔다.

어쩌면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동체를 도구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기에 공동체에 순명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만남을 더욱 갖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공동순명을 위해서는 내 개인의 이익이나 위함을 접고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동순명에는 평화가 함께 하니 이 또한 신비스런 일이다. 처음에는 내

것을 포기함이 힘들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한 후 공동체에 순명할 때 그 열매는 더욱 커짐을, 지지와 격려를 통한 친교 또한 더 해짐을 체험하게 된다.

5) 소결론 - 복음의 씨앗

복음은 기쁜 소식이며 희망의 메시지이다. 이것을 세상에 뿌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내가 주체가 되어 행한다는 말이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뿌릴 씨앗을 가방 가득 실어주신 부르심 받은 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실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내게 물으실 것이다.

수도자에게 있어 공동생활은 바로 복음의 씨앗을 담은 가방이다. 이 가방이 뚫어지거나 헐어서 수많은 씨앗들을 모두 날려 버린다면 큰일이다. 가방을 더욱 단단히 여며 어떤 바람이나 가시에도 날아가거나 찢이지 않게 하느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덧칠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쪽정이가 아닌 실한 나눔의 씨앗, 웃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기쁨의 씨앗, 배려의 씨앗, 감사의 씨앗이 나와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기쁜 소식들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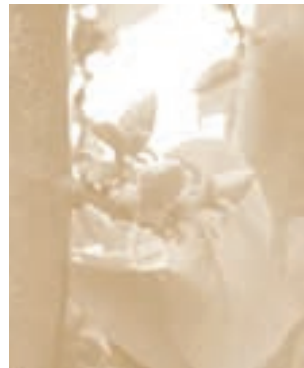
우리 소비녀들의 이 세상에서의 하느님의 일이란 사도직 자체가 아니라 사도직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 바로 성가정을 이루는 공동생활을 충실히 하며 그 안에서 화목과 나눔으로 이웃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얼굴을 보는 것이겠다.

3. 나오며

공동생활 주제를 준비하며 지금의 공동생활에서의 나의 모습을 성찰해 보게 되었고, 이 공동체가 첫 서약 후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두신 은총의 선물임을 고백해 본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예수님의 아픔을 보고, 예수님의 용서도 보며,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 예수님의 슬픔과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보고, 예수님의 오상을 보고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하느님께서 살아 숨 쉬고 계신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과 같이 지극히 명백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공동체 또한 살아 있고, 복음 선포를 위해 세워진 이 성가정의 공동체는 인간인 내가 아닌 하느님의 것이기에 희망이 있고 거룩하며, 판단할 수 없고, 존경해야 할 살아있는 성전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사랑의 노래

| 서 마리도미니카 수녀 |

1. 바다

나는 바다에 가면
내가 사라진다.
바다를 향해 모래 속에 앉으면
내 마음이 숨같이 부드러워지며
내 존재가 어디로 숨었는지
실존이 없어진다.

내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
내 자신이 알지 못한다.
파도와 함께 멀리 부서지고
다시 생기고 부서지는 춤을 추며

하느님께로 다가가서
그 그윽하고 부드럽고 향기로운 품에서
잠든다.

2. 혼인

한 송이 꽃에 별이 날아와 앉았다.
신비롭게 바르르 떨며 춤추며
꽃과 결혼한다.

그 꽃은 아름답고 더 강한 색깔로

신부처럼 화장하고
온몸으로 웃었다.

아아! 신비로운 사랑,
당신만이 해 줄 수 있는 사랑의 혼인
하느님과 피조물의
신비롭고도 가장 높은 사랑의 결합

3. 꽃

오! 나의 주님
꽃 한 송이가 당신의 기쁨입니다
꽃 한 송이가 당신의 사랑입니다
꽃 한 송이가 당신의 생명입니다
꽃 한 송이가 당신의 웃음입니다
꽃 한 송이가 당신의 작품입니다
꽃 한 송이가 당신의 영광입니다.

당신의 피조물들이
당신의 생명, 사랑, 기쁨이니
나도 한 송이의 꽃입니다.

당신 안에서 먹고 살고
당신의 호흡을 받아 마시며
살아갑니다.

기도에 대한 열정과 관상의 삶을 지향하며 평생을 살아 왔고, 이제 노년기를 하느님과 더욱 깊은 사랑에 젖어 사시는 서 마리도미니카 수녀님의 내심의 고백입니다.

회고

하느님이 나를 꼭 붙드셨으니



| 유 레지나 수녀 |

1950. 4. 20 입회(6회)

1955. 8. 13 첫 서약

1960. 11. 21 종신서약

어렸을 때 우리 본당은 중림동 성당이였다. 지금의 광명시에 있었던 우리집에서 중림동 성당에 가려면 오리를 걸어 나와 기차를 타고 가야했다. 그래서 미사 참례 한 번 하려면 근처 공덕동에 사는 고모네 집에서 하룻밤을 자야했다. 내가 9살 10살 때쯤 어머니는 일 년에 한 두 번 성령강림 때나 성모몽 소승천 때 본당 미사에 데려가셨다. 그러면 고모네 집에서 자고 중림동 성당 9시 미사에 참례했다. 그때는 큰 참례도 9시 미사 한 대뿐이었다. 공심제를 12시부터 지키니 하루 종일 굶어야 하니까 9시 이후에 미사 하기는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다.

본당 미사에 참례하면 내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바오로회 수녀님들의 모습이였다. 그 수녀님들은 하얀 고깔을 쓰고 땅에 닿을 듯 잘잘 끌리는 수도복에 큰 목주 두 개를 걸었는데 걸을 때마다 그 목주가 찰랑찰랑 소리를 냈다. 수녀님 들이 똑 같이 제의방에서 나와 제대 앞에서 똑같이 절하고 양쪽으로 좌 갈라져서 제대도 손질하고 꽃도 꽃고 하는 모습이 그렇게 황홀하고 예쁠 수가 없었다. 속으로 나도 저렇게 해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땀가 수녀님들의 모습이 너무 부럽고 좋아서 엄마에게 “엄마, 엄마, 수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하고 물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 우리 엄마는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수녀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준비하고 학당에 가서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다, 너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하고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게 못을 박으셨다. 그래서 생각도 못하고 살다가 좀 커서 고모네 집에 갔더니 고모네 시누님 딸이 바오로회 수녀님이셨다. 그 시누님은 나의 대모님이였다. 그런데 고모와 대모님이 바오로회에 면회 갔다가 노인 수녀님들 사시는 모습이 안쓰러우셨는지 나에게는 절대로 수녀원에 가지 말라고 야단을 쳤다. 나처럼 공부도 못한 애가 수녀원에 가면 구박 받고 살 거라고 절대로 보내지 말라고 엄마와 오빠에게 단속을 해두었다. 그러니 수녀원 가는 것은 터더욱 생각도 못할 일이 되었다.

그런데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랬는지, 나의 혼사가 자꾸 미루어지게 되었다.

내가 열 몇 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삼년상을 지내고 나니 스무 살이 넘었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뒤따라 돌아가셨다. 그때는 부모 삼년상 안에는 혼사를 치를 수 없는 것이 법도였다. 어머니 삼년상까지 지나니 혼기가 늦어졌다.

나는 그때까지도 오직 수녀원에 가고 싶다는 일념으로 버리고 또 버리고 있었다.

우리집은 공소집이었다. 그때는 영등포 성당이 우리 본당이었는데 본당 신부님은 박일규 안드레아 신부님이셨다. 우리 마을에 신자라야 서너 집 밖에 안 되는데 굳이 우리 집을 공소집이라고 정해서 신부님이 가끔 오시곤 했다.

내가 수녀원 가고 싶은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외사촌 올케가 고해소에 가서 신부님께 한번 말씀드려보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어느 날 고해소에 갔을 때 박 안드레아 신부님께 제가 수녀원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를 드렸다. 신부님은 “어느 수녀원 가고 싶냐?”고 물으셨다. 나는 명동 바오로 수녀원밖에 모른다고 말씀드리니 신부님은 대변에 “너 성가회 가라. 우리 본당 수녀원이잖나”고 말씀하셨다. 신부님이 보내주시는 대로만 따르겠다고 하니 알았다고 대답해주셨다. 박 안드레아 신부님이 무섭다고 소문났지만 그때는 아버지같이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셨다.

신부님을 통해 성가회 수녀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영등포 본당에는 말파 수녀님, 가밀라 수녀님, 마리아 수녀님, 말가리다 수녀님 이렇게 4분이 와계셨는데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었다. 빼누리에 손을 넣고 걸어다니면 우리는 천사라고 막 따라다니면서 구경하고 그렇게 성가회 수녀님들을 좋아했었다. 안드레아 신부님이 본원에 연락해서 입회 허락을 받고 옷표까지 다 받았다.

그런데 우리 오빠의 반대가 아주 심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빠가 아버지 같은 분인데 못 가게 하시니 어찌할 수 없었다. 그 무렵에 영등포 본당에서 수녀원에 간 사람 중 두 사람이 중간에 나온 일이 있었다. 모두 똑똑하고 열심히 주일학교 선생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수녀원에 들어갔다가 못 살고 나오는 것을 보고 오빠는 저런 사람도 다 나왔는데 너는 못산다 하고 반대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못가고 있는데 어느 날 신부님이 나를 불러 본원에서 준비되었으면 들어오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오빠한테는 말을 못하고 올케한테만 말하고 수녀님들을 만나러 갔다. 그때는 아직 성 바오로 수녀원에서 오신 떼끌라 수녀님이 원장님으로 계실 때였다. 이미 신부님한테 내 사정을 다 들어 알고 계셨는지 하느님의 뜻, 성소가 있으면 되니까,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해주시는데 양순하고 고운 분이셨다.

돌아와서 한 2개월쯤 지나서였다. 주일날 본당 신부님이 나를 불러 수녀원에서 아무 때나 오라고 하더라고 하셨다. 그때 나는 신부님께 오빠한테 말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그래서 신부님이 오빠를 따로 불러서 막 야단도 치고 달라고 어르고 그랬던 것 같다. 나는 신부님이 오빠를 불렀으니 이젠 됐구나 싶었다. 오빠는 신부님을 만나고 와서도 아무 말이 없었지만 며칠 후부터 올케를 시켜서 이불이며, 옷이며 수녀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수녀원에 입회하게 되었다. 수녀원에 들어갔다가 못살고 나오면 시집가서 소박맞은 거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반대했던 오빠는 나를 수녀원까지 데려다

주고 그때 이후로는 아무 걱정도 말씀도 없었다.

수녀원에 입회해서 나는 한 번도 분심해본 적이 없다. 초창기라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사람은 부족하니 수련 받는 동안 우리 수련장님이 3,4번 바뀌었다.

나는 들어가서 한 달 쯤 있다가 바로 본원에 나갔다. 4월에 들어갔는데 바로 5월에 영등포 본당에 계시던 1회 수녀님들, 말파, 마리아, 가밀라 수녀님이 종신서원을 하기 위해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1달 후 영등포 본당으로 나가서 지원기를 그곳에서 보냈다. 거기서 3달 정도 살고 6.25 전쟁이 일어났다. 1회 수녀님들은 수련받다가 허원도 하지 못하고 피난을 가시고 나도 헤어져서 9월인가 수복이 되어 올라왔다가 다시 합덕 보육원으로 소임을 갔다. 거기서 지원기 2년을 지냈다. 그때는 본원에서 지원기를 지낸 사람이 별로 없었다. 본원에는 청원자들만 있었다. 그래서 청원기는 본원에서 보내고 수련 받고 2년 수련기 때는 소사에 가서 살았다.

1955년에 첫허원을 하고 당진에 가서 7년을 살았다. 종신서원을 하고도 또 갔으니 말이다. 그곳에서 보육원과 본당 전교 등의 일을 했다. 가밀라 수녀님, 지금은 나간 세실리아 수녀님도 계셨고, 소화 병원에서 소임하시는 수녀님들도 있어 공동체가 정말 재미있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것 외에는 힘든 것이 없었다.

밤에 보육원 수녀들, 병원 수녀들, 유치원 수녀들이 모이기만 하면 왜 그렇게 모든 것이 재미있고 왜 그렇게 웃어댔는지 밤새 깔깔댔던 기억이 난다. 다음날 유 신부님이 어제 왜 그렇게 웃었냐고 물어보시곤 하셨다. 그 유 신부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다. 너그럽고 화 한번 내는 일도 없는 성인 신부님이셨다. 그때 미사는 모두 라틴말로 했는데 라틴말이라고는 모르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미사 경본을 찾아놓으면 놓은 그대로 하셨다. 내가 잘못 준비해놓지 않았냐고 여쭙보면 아니라고 다 맞았다고 침례대로 다 따라 잘해놓았다고 대답해주시곤 하셨다.

그때는 서울에서 당진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가야했다. 어느 해 부활침례를 준비할 때였다. 서울에 올라온 길에 화분을 샀다. 화분을 잘 포장해서 버스 뒤에 싣고 12시간을 달려갔는데 내려보니 화분과 꽃만 남았지 흙은 하나도 없었다. 비포장도로에 덜컹거리며 오는 동안 흙이 다 흩어져 버린 것이다. 무덤 제대 잘 꾸밀 거라고 신부님께 장담하고 돈을 타서 사온 화분인데 그렇게 되었으니 정말 난감했다. 마침 당진 농업학교 선생님이 우리 교우였다. 선생님께 부탁했더니 학생들과 함께 흙을 가져다 새로 심어주었다. 그래서 부활을 봤다. 성탄 때는 변전소 소장님이 신자여서 구유 꾸미는 것을 다 도와주었다. 내가 수녀원에 가는 것을 반대하셨던 우리 오빠는 “너를 훌륭하게 가르쳐놓지 못해서 그곳에서 잘 살지 못하고 상처받을까봐 그런다”고 걱정하셨지만 나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는 소비녀들과 함께 사는 기쁨으로, 밖에서는 교우들의 도움과 사랑으로 힘 안들이고 분심 한번 하지 않고 맡겨진 소임을 다 해냈다.

당진에서 소사로 합덕으로 여러 곳을 소임했고 아현동 본당에 전교 소임을 나갔다. 그곳에서는 예비자를 가르쳐 영세시키는 것도 좋지만 냉담자들을 회도시켜서 성사 보게 해주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보람이 되었다. 회개 한번 시키려면 그 집 문턱이 닳도록 다녀야 했다. 그래도 나와서 성사보는 것을 볼 때가 가장 기뻐다. 그때는 검은 수도복 한 벌로 사철을 지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것 한 가지만 입고 살았는데 여름에 그 무거운 수도복에 땀이 나도 더운 줄도 모르고 쫓아다녔다. 남들이 보기에 덥겠다 해도 나는 괜찮았다. 전교하고 냉담자를 하느님께로 데려오는 일이 그렇게 기뻐던 것이다.

내가 수도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이태원에서 겪은 연탄가스 사건일 것이다. 이태원 성당으로 소임받아 처음 갔을 때 성당이 없었다. 성당 지으려고 준비 중이었다. 가자마자 성당 신축 기금을 받으러 다닌 게 일이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 그때 우리는 사제관 아래 반지하에 있는 수녀원에서 살았다. 마침 사제관을 새로 지어 신부님은 새집으로 가시고 우리가 사제관집을 수리해서 올라가기로 했다. 반지하에 방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나와 부르노 수녀가 쓰고 하나는 식복사 언니가 쓰고 있었다.

그때는 10월이라 좀 쌀쌀했다. 서리가 내리기 직전에 고 시몬 수녀님께서 고춧잎이 필요하면 따러 오라는 연락이 와서 그거 따러 간 사이에 연탄 아궁이를 고쳤다고 한다. 그런데 바른 흙이 잘 마르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다. 며칠 후 좀 쌀쌀해서 구공탄을 넣고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연탄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와 수녀들이 쓰는 방으로 다 들어온 것이다. 다음날, 아침 미사에 온 신자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수녀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서 여자 회장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문을 부수고 들어와 보니 두 수녀가 거의 죽어있었던 것이다. 처음 발견했을 때 조금 움직이는 기척이 있었던 부르노 수녀는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숨지고, 꼼짝 않고 죽어있었던 나는 산소기 속에 들어가 다시 살아났다. 아마도 젊고 건강했던 부르노 수녀는 폐활량이 커서 더 많은 가스를 먹었던 것 같다. 그 수녀가 산소기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것이 늘 마음이 아프다. 함께 살던 동생 수녀를 보내고 나 혼자 살아남은 아픔은 말로 다할 수 없어 그냥 입을 봉하려 한다. 그 수녀의 뒤편만 내가 열심히 살아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부끄럽기도 하다.

그때 이후로 나는 오랜 후유증을 겪었다. 심장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떨어진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늙어가면서 점점 기억력이 되살아나서 지금은 아주 좋아졌다. 그전에는 내가 입으로는 지금이라고, 또 아까라고 말을 해도 그게 아주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졌다. 마치 꿈을 꾸고 나면 어떤 것은 생각나고 어떤 것은 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아득한 느낌이다. 아침 점심 저녁이 그렇게 멀리 생각나는 것이다. 오늘 아침, 어제 아침이라고 얘기하지만 나에게는 오늘도 어제도 아닌 아주 아득한 옛날인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아까가 아까 같고 지금이 지금 같다. 그렇게 선명한 느낌이 되살아났다. 그 전에는 한 마디를 들어도 그 자리에서 그걸 써놓아야지, 안 그러면 딴 소리다. 꼭 써가지고 다녔다. 내가 하도

잘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고 엉뚱하게 대답하니깐 주변에서 항상 “수녀님 또 판소리 하는 거야”라고 말해주었다. 그게 그렇게 큰 십자가였다. 내가 뭐라고 대답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틀렸다니깐 아주 절망에 빠지는 거다. 내가 바보처럼 느껴지고, 천치 같이 사는 것 같았으니까.

요즘은 들은 말을 써놓지 않아도 웬만큼은 기억이 난다. 중요한 것은 적어두지만 그 외에 자잘한 것은 다 기억이 나고 틀렸다는 말을 듣는 적도 거의 없어졌다. 이제는 하느님이 기억력을 주셨다. 내가 그걸 느낄 수 있다.

사실 나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걱정이 되었다. 젊었을 때는 정신이 없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힘이 있었는데 늙어서 정신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늙어서 연탄가스 먹은 그 당시처럼 판 소리를 하면 어찌나, 나이 먹으면 점점 더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오히려 예전보다 기억력이 더 좋아지고 정신이 맑아졌으니 말이다. 몇십 년을 천치로 살아온 나에게 하느님이 늙어서라도 맑고 똑똑한 정신으로 지내라고 선물을 주신 것 같다.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당신 사람을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느끼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하느님이 커다란 은총 주시고 수녀님들이 기도해주시고 수녀님들이 마음 좋게 봐주어서 사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다.

일생을 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나를 붙들어주시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그것 하나뿐이다. 하느님께서 오늘날까지 나를 봐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잘못되면 깨우쳐 주시고, 혹여 잘못되려고 하면 틀어놓으시고, 어떻게든 그것을 모면하게 해주시고, 그 당시는 모르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그게 그래서 이렇게 되었나봐, 하느님이 나를 꼭 붙들고 다니나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 이걸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아 이걸 하느님이 막아주시고 붙들어주셨구나 하고. 지금까지 수도생활해오면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사실 없다. 지금 후배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우리 시대가 하늘과 땅 차이다. 모든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나와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로 느껴진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침묵하게 된다. 침묵 밖에는 내가 후배들에게 줄 것이 없다.

이제 나에게 남은 날은 많지 않다. 다음 순서는 하느님 곁으로 부르심 받아 가는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수녀원에 가고 싶어 집안에서 다 반대해도 그래도 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는데 어느 날 밤 이런 꿈을 꾸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가자고 했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못 간다고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라고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드러누워 있는 나를 끌어서 대문간까지 데려나갔다. 그러다 꿈이 깼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아, 호수천신이 나를 수녀원 가도 된다고 하시는구나, 나도 수녀원에 갈 수 있나보다. 그렇게 믿고 열심히 신공만 했다. 그랬더니 정말 하느님이 불러주셨다. 배우지 못하고 부족했던 나를 수녀원으로 불러주신 하느님께서 지금까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나를 또 당신 곁으로 불러주실 거라고 믿는다.

화밀서 : 화밀리아에게 보낸 두루마리 서간

| 김 화밀리아 수녀 |

시작의 말씀

한 처음에<창1/1> 나, 하느님! 거룩한 원의에 따라 내게 완전히 봉헌된 화밀리아에게<수도명> 이 편지를 쓰노라.

내 뜻에 따라 파수꾼으로 파견된 한때 네 곁에서 예언자 노릇을 하였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작은 두루마리를<묵10/2> 전하노니, 이제 완숙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1디3/9>

내가 좋아하는 딸, 수산나는<세례명> 받아 삼켜라<묵10/9>.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나에게서 왔느니라<사도3/20>.

사랑의 격려

나는 밤낮으로 네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에게 준 성소와 은사가 다시 불태워지기를<1디1/6>기다리고 있다.

나로부터 받은 통합능력의 은사와 함축적인 표현력의 은사를 오직 나의 영광이 드러날 때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바란다. 재치 있는 순발력과 따지지 않는 순수, 조각시간을 잘 활용하는 부지런함, 질서적인 정리정돈, 깔끔한 마무리, 때마다 맞추는 놀라운 적응력은 변명하지 않는 너의 내적침묵으로 더 한껏 영글어지기를 바란다.

나의 은총으로 지금의 네가 되었느니라<1코15/10>.

각 소임 터 마다 내려준 네 사도직의 은총<로1/5>에도 감사하여라.

네 본 모습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배려하였기에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좋을 이루었다<로8/28>. 하느님인 나도 편애를 한다고 네 스스로 느낄 만큼 나는 너를 특별히 총애하여 왔고, 앞으로 더 큰 자비와 애정을 약속하겠다. 네가 바로 내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내 업적이기 때문이다<1코9/2>.

영원으로 가는 길

네 어미 뱃속에서부터 너를 지명하여 네 곁으로 보낸 예언자들의 언행을 빌어 나! 하느님이 너를 또 다시 부르고자 한다. 네가 바로 나의 성전이기<1코3/17> 때문이다.

처음에는 누구나 똑같이 성별되었다. 다음에는 너희들의 공동체 생활을 보아 간택하여 성별하였고 이번에는 간택되었든, 아니 되었든, 맨 처음 축복하였던 모두를 불러 모아 첫 성별을 갱신, 정

화 하고자 한다. 그것은 잘려나갔던 지파들을 모두 불러들여 성전복구를 한, 내! 구약의 자비로운 아휘였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관대한 열심을 되살려 기도로 네 가슴을 가득 채우고<시편 35/13> 네가 받은 소명과 선택이 굳건해지도록 애써라<2베1/10>.

만민에게 내려준 나의 새 계명과, 네가 속해 있기에 내가 기억하는 설립자성재덕베드로를 통하여 네 수도회에 합당하게 내려준 '계약의 궤' 를 중심으로 회헌과 회칙에도 충실하여라. 그 안에서 합심하여<1코9/2>서로 용서하고 화해함으로써 공동선을<1코12/7> 위한 너의 성령과 은사를 드러내어라 너의 성소가 영원히 성별되어 복구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마태8/13>.

성별 갱신

갱신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기쁨에 너는 몸을 떨어야 한다.
네가 듣든 말든, 네 곁에 꾸준히 예언자들을 보내어
나는 질서 있게 너를 깨끗이 하고 회개시키고 축복해 왔다.

첫 번째 계속수련 때는 너의 경이로운 창조의 탄생을 정화하였고,
두 번째는 너의 존엄한 3대 서원을 드높였으며 이번에는 너의 성소를 재차 성별하여 갱신함으로써 영원한 나의 사람으로 두고자 한다. 이러한 내 계획에 너는 한결같은 성실과 변함없는 믿음과 매 순간 끊임없는 협조로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성소복구의 기쁨

이제 보아라! 나는 너의 성소를 다시 복구하여 처음보다도 더 빛나게 할 것이다. 네가 더 사랑받는다는 이유로 까닭 없이 너를 내쳤던 이들에게서 너는 내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하느님께서 진짜로 화밀리아를 사랑 하시는구나” 하는 말을 다시 듣게 될 것이다.

너의善良的 처신을 비방한 자들은 너를 중상했던 바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1베3/16>
모든 것을 잘 인내하여 그들을 내게 맡긴 것은 잘한 일이다.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지켰으니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묵3/10>.

영원한 성별

너는 내 아들 그리스도의 정배로서 나이 들수록 나의 계명으로 곱게 물들어져야 한다. 내 외아들이 바로 네 죄 때문에 고난의 일생을 마쳤기에 나 역시 너를 내칠 수가 없구나.
남은 여성, 시련의 때가 닥칠지라도 네 생애의 축복된 섭리를 기억해 내어 생기를 잃지 말고, 어떤 처지에서든지 나의 현존과 너의 내면의 평정 속에서 뜨거운 기쁨과 희열에 찬 감사를 깊이 간

직 하여라. 이것이 연륜으로 쌓인 은총의 어좌<히4/16>로 나아가는 길이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신31/6, 히13/5>.

사람들과 달리, 네가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다. 네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를 지고 간다. 내가 만 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지고 가고 내가 구해낸다<이사46/4> 나는 내 머릿속에서 예전의 네 잘못을 모두 지워버렸다.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여기에 네가 바로 서 있는 일이다.

희망으로 부활한 내 아들 예수에 대한 네 믿음을 더욱 굳세게 지켜라. 하늘의 천사들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치는 말씀

이제 나에게 영광을 주기 위한 '노년의 거룩한 삶'의 방책으로 네 영혼과 서서히 쇠약해져가는 육신을 온전히 내게 의탁해라<1베4/19>.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을 미리 갖지 말고<루21/26> 젊었을 때처럼 당당히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의 이마에 나! 하나님의 인장을 새겨 넣어 주겠다<묵7/3>.

언제나 기뻐하여라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1테5/16-18>. 초심으로 분별력 있는 순수함을 되찾고, 열심을 되새겨 현명한 기쁨을 살며, 뒷심을 다져, 남은 생애는 계약에 약속해진<집7/20> 티 없는 삶으로, 원숙한 노년을<지혜14/9> 거듭나는 고운 소비녀가 되거라.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네 수도회와 네 이름을 기록하겠다.

유종의 축복

한 처음부터 너를 성별하여 총애하였으며, 네가 걸어온 모든 길을 구름기둥의 위로와 불기둥의 치유로 이끌어 온 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네 여생은 우주 끝 날까지 지혜롭게 마칠 것 믿는다. 네가 생명과 성소에 대한 영원한 성별을 완성으로 복구할 때까지 나는 줄곧 기다리겠다.

나의 외아들 예수의 사랑과 평화와 보호도 나의 여인, 마리아의 간구로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통독피정을 마치고 마음이 기쁘<아가3/11>나의 딸, 화밀리아에게 나! 야훼가 영원한 사랑을 맹세 또 맹세하며 썼노라! 전했노라!

부록 : 두루마리에 대한 김선예<세속명>의 봉헌 말

성별된 저의 모든 것을 강생의 영성<소비녀들,비우고 가시오>과 함께, 축복의 성소는 기쁨의 생활<기쁘게 사시오=기뻐하라 소비녀>과 함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와 성가회 주보이신 예수님, 마리아님, 요셉님께 내 김선예수산나화밀리아소비녀는 오늘 다시 창조되며 새롭게 봉헌합니다. 아멘.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묵22/20>

내가 걸어온 삶의 여정

| 김 필리아 수녀 |

첫 마음, 첫 시작의 단순함과 소박함을
나에게 다오.

“여인이 자신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 하리라“

딸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렴요, 사랑하고 말고요.
고뇌가 황홀로 인도하듯이
십자가는 부활로 인도하고
고통은 기쁨으로 승화된다는 것을
어두움은 빛으로
자기 부정은 하느님과의 일치로
나아감을 주는 압니다.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임을 따라 달음질 치고 싶습니다.

딸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당신만이 저의 행복이십니다.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어 냈으며
낙심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딸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저의 주님, 달콤하신 분
저를 지탱하시는 제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생각할 때 제 마음 기쁘고
저의 하느님 생각만하면 가슴이 뻐뻐합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
차라리 네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님께서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당신의 사랑으로부터
저를 떼어 놓을 수 있을 것입니까?
저에게는 당신이 생의 전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히 노력하고
네 잘못을 뉘우쳐라.
들어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스스로 거룩하게 행동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저의 힘하신 주님,
세상의 어떤 향기가
당신의 향기를 표현할 수 있으리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정배여,
백합보다 더 순결한(정결)

장미보다 더 향기로운(순명)
시클라멘드보다 더 작은(청빈)
나의 사랑이 되어다오.”

예!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귀염둥이 내 사랑이다.”

주님, 언약하신 대로
저를 받으소서.
기다림이 깊어질수록
사랑도 깊어지듯이
주님 기다림으로 깊어진 이 사랑
저의 희망 부끄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너와 나는 약혼한 사이
우리 사이는 영원히 변할 수 없다.”
저의 빛이시고 사랑이신 주님
님은 저의 것
저는 님의 것

그리하여
님께서서는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너를 바라보는
“나는 넋을 잃고 말았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 내 사랑 아름다워라.”

떠나고 바뀌는 모든 것에 대하여

| 송 가리따스 수녀 |

연피정을 하며 수녀원 뜰을 산책합니다. 문득 뜰 저편에서 규칙서를 외우며 산책하고 있는 그 옛날 수련자 시절의 나를 만납니다. 나무에 물을 주고 물뿌리개를 들고 온실을 드나들던 지원자 시절의 모습도 아련히 겹쳐옵니다. 규칙서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며 늘 외우라고 하셨던 그 옛적 수련장 수녀님은 이제 떠나시고, 그때의 총장 수녀님도 떠나셨습니다. 본원에 오면 이불을 자기 것으로 챙겨주시던 베드로 수녀님도, 살며시 미소 지으시는 성모님 같은 마리아 수녀님도 떠나시고, 재봉실에 가면 언제나 안경 너머로 푸근한 눈길을 건네시던 말따 수녀님도 떠나셨습니다. 정원을 산책하시며 “소비녀들, 기뻐요?” 라고 물으시던 성 신부님도 떠나시고 이제 사제관 앞 푸른 동상으로만 서계십니다.

하기야 강산이 네댓 번이나 바뀌었지요. 성모상 옆에 천연기념식물인 모감주 나무도 떠나고 백 살 먹은 회양목도 죽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온실 입구에 서있던 하얀 문, 그 문을 타고 오르던 넝쿨 장미와 짙레꽃은 옛날 그대로 피고 있습니다. 그때는 땅이 척박해서 물을 주고 또 주며 가꾸어도 나무나 꽃들이 말라죽곤 했는데 지금은 이렇듯 아름다운 정원이 생기고 나무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그 때 흥안의 지원자도 이제 백발의 노 수녀로 바뀌었습니다. 그 세월이 아득한 옛날 같기도 하고 옛그제 같기도 합니다.

“소비녀, 비우고 가시오, 그리고 기쁘게 사시오.” 내년이면 관구설립을 해서 회원들이 동서 관구로 떠나고 바뀔 예정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바꾸고 떠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칠십 오세의 나이에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의 집을 떠나라”고 야훼께서 분부하신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익숙한 자기 생활, 편안하게 길들여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창세 12, 1). 아브라함의 나이에 가까워진 나도 비움과 떠남에 순종하는 믿음의 소비녀로 남은 삶을 아브라함처럼 충실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전능한 신이다.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창세 17, 1)

사람도 자연도 이렇듯 떠나고 변화했으나 숨어계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고 계심을 느낍니다. 변하는 것도 떠나는 것도 그분의 은총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천주께 대한 사랑은 성가회 주춧돌이며 기초일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결정체입니다. 열심 중에 사시오” 모든 것이 떠나고 변화여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느님 사랑 위에 주춧돌을 놓은 성가

회라는 성 신부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2007년 연피징에서 비움과 떠남을 목상했던 송 까리따스 수녀님은 길 떠난 아브라함과 같은 연세에 2009년 2월 15일 중국 목단강 안나의 집으로 선교 소임을 떠났습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수녀님에게 손녀뻘 쯤 되는 후배 소비녀가 선망에 찬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수녀님, 사실 저는요, 수녀님 연세쯤 되면 나자렛집으로 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국으로 선교 가신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선교를 떠나시던 날, 수녀님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깨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라고 하시며 기쁘게 떠나시는 모습으로 선교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후배들의 가슴에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중국 목단강에서 그 열정을 다해 살고 계실 까리따스 수녀님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눈물 먹는 하마

1년 수련자 김 페트리나 수녀

어두운 옷장 한 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습기를 가슴에 가득 담은
물 먹는 하마처럼

세상의 온갖 눈물을 가슴으로 빨아들이는
눈물 먹는 하마가 되고 싶습니다.
가난한 이의 고된 땀방울도
사랑없이 하는 이의 애타는 눈물도
기쁜 이의 행복의 눈물도
모두 이 가슴에 담고 싶습니다.
슬픔과 기쁨과 고달픔의 눈물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주님의 향아리에 모두 비워내고
또다시 세상의 눈물을
담고 비우고
담고 비우고

그러다보면
언젠가 세상은
보송보송한 웃음과 햇살이 가득한
사랑으로 빛나는 그런 날이 되겠지요.

수도복을 준비하며



1년 수련자 권 아니타 수녀

착복날을 기다리며 수도복 밑단을 감치고 칼라를 달고 머리 수건을 다리다가, 문득 하늘에서도 예수님을 내려 보내시기 위해 준비가 한창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육신의 옷을 입으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가 수도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제는 가족들과의 긴 여행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거나 화려함, 여유로움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떨 때는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꼭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과 수도복 한 벌 중에 택하라 하시면, 수도복 한 벌 가지겠습니다.

이 수도복은 모든 것을 끊어 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한계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실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

당신이 이 세상에서 당하실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실 텐데, 그 마음은 어떠실까?

오래 전 일입니다. 동생이 군 복무 중일 때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가족 모두는 군에 가있는 동생을 걱정했습니다. 소문이 잠잠해진 몇 달 후, 휴가 나온 동생에게 당시의 심정과 부대 분위기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의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려웠을 거란 우리들의 마음과는 달리 그 어느 때보다도 열의로 가득차 있었으며, 이겨야 한다는 각오뿐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족들의 생명이 자신들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에 자신들의 목숨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 당신 손에 달려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앞으로 겪으실 죽음의 고통조차도 그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다는 의미가 목숨을 내놓은 사랑이듯이, 내가 수도복을 입는다는 것도 예수님의 강생의 삶을 함께 살고자 부름 받았고 그 부름에 기꺼이 순명했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사랑이시며 기쁨이신 예수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와계십니다. 곧 문을 두드리실 예수님의 소리에 귀기울여 봅시다.

별, 바람, 하늘, 나무, 바다 그리고 빛

70회 청원자 자매들

길을 떠나왔습니다.

어느새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여섯이 되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우리 여섯 길동무의 여행 가방마다 담긴 꿈은 서로에게 풍경이 되어 줍니다.

별, 바람, 하늘, 나무, 바다 그리고 빛,

우리는 걸어가는 뒷모습조차 아름다운 당신의 딸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집에 초대받아 왔습니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으로 자매라는 이름으로 여섯이 모였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하하 호호 즐거운 날들입니다.

우리 여섯 자매들의 방마다 간직한 보물들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줍니다.

노랑, 분홍, 하늘, 고동 그리고 다홍색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우리 집에서

그분 보시기에 늘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성가의 영성을 사는 사람들

예수마리아요셉회



3월 입회자와 첫서약 예절 (2008. 3. 25)

일 년에 한 번 입회식과 첫서약 예절이 있다. 우리 수도회 영성인 강생을 통하여 자신의 가정 뿐 아니라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각 각 일 년 간의 교육일정에 따라 양성을 받는다.



4월 서약갱신 예절 (2008. 4. 1)

매년 4월 월모임 때는 2년간의 양성 교육을 마치고 3단계 교육 과정으로 가기 위하여 하느님 제단 앞에 첫서약 때 발원했던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 자신의 봉헌을 새롭게 갱신한다.



5월 성모님 발현 메세지 뽑기

성모님의 달을 맞이하여 성모님 발현 메시지를 뽑아 가족이나 친지, 이웃 등 제일 먼저 전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전하거나 혹은 본인이 한 달 동안 그 메시지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





7월 유전자 식품(GMO)비디오 시청

비디오 시청을 통해 유전자 조작 식품의 이해와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인식하기 위한 목적을 두었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유전자 식품의 심각성을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공동체의 식탁 개선과 이웃에게 알리고 의식하도록 한다.

9월 전체 하루피정

9월 월모임 때는 전체 회원과 비회원이 함께 만나서 하루 피정을 하였다. 외부 강사 두 분을 초빙하여 의사소통 훈련과 웃음 치료 강의를 통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가정의 구성원들간의 사랑을 통하여 가정의 일치를 도모하며 올바른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정이 생명과 사랑의 자리임을 체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또한 웃음치료를 통해서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해소와 인간관계 개선을 웃음에서 찾음으로써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령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 파견미사 때 자매들은 작은 유리병 안에 성가정 상본과 가정에 대한 말씀이 담겨진 병을 하나씩 갖고, 가정으로 돌아가 이웃과 가족들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할 것을 실천할 수 피정 열매 말씀을 기쁘게 받고 돌아갔다.



12월 입회자 하루피정 (주제-마음의 여행)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입회자 그룹 양성 모임 하루 피정을 하였다. 음악을 들으며 떠오른 영상이나 느낌,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상징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그림을 바라보며 영상과 느낌이 자신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잠심 안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평안과 내면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기도의 맛들이기를 시작한다.



첫 걸음

| 홍정희 마리아 자매 |

“내일 우리 수녀원 영성모임 있어요. 참석해보세요.”

제대 곳곳에 물을 주고 있는데 박 마리안토니오 수녀님께서 귀땀해 주신다.

‘본당일도 많아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하기도 힘든데...’

하고 있는 일에 벅차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수녀원은 어떤 곳일까? 기대가 되었다.

이튿날, 오전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점심도 거른 채 정릉행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시장 길을 물어물어 수녀원에 첫걸음을 하였다.

‘아 여기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수녀원 정원을 걸으며 유난히 새소리가 맑은 초겨울의 황량함과 고즈넉함에 내 발자국 소리가 크게 들리더니 어린 시절 동화책에서 읽은 키다리아저씨 생각이 났다. 키다리아저씨는 높은 울타리에 넓은 정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곳으로 아무도 놀러오지 않아 아주 외롭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담 밖의 어린이가 마당 안을 들여다보자 키다리아저씨는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그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어 가슴에 안고 이야기를 나누며 마당으로 들어오자, 정원 가득 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키다리 아저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따뜻한 웃음소리 가득한 정원에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이야기...

‘키다리 아저씨네 정원처럼 수도원 울타리가 높고 무섭지는 않을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 유치한 나의 편견이 들킬 것 같아 얼른 성호를 그었다.

미사를 드리며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폭넓은 신앙생활을 하는 회원들이 존경스럽고 부러워 두리번거리며 살펴보았다.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뭐가 그리 바빴는지, 한발 내밀면 누가 잡아가지라도 하듯, 몸을 사리며 소극적으로만 살아가려 했다. 나의 삶은 그저 철부지만 같았다. 이 고요한 수도원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다. 수고하고 소외되어 고통 받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웃이 되어,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들의 활기가 가슴으로 다가왔다.

한 동안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떠나 보내드리고 이별의 슬픔에 잠겨있었다. 2년 동안 암 투병을 하시면서도 그토록 낙천적이고 쾌활하시던 분이 동백꽃 지듯... 그렇게 하느님 품으로 가셨다. 보내드릴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낙엽을 보아도, 피어나는 꽃을 보아도, 함께 걷던 추억 어린 그 어떤 곳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다. 비라도 내리는 날은 청개구리 무덤 지키듯 눈물이 빗물 흐르듯 끼이끼이 울어대며 휴대폰 단축번호를 아무리 길게 눌러도 대답이 없는 현실에 우울해 하곤 했다.

그 빈자리를 인정하기까지 부활절을 두 번 보내고 나서야 기도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또 가족을 잃은 이들이 얼마나 외로움이 있는지 이해를 하게 되었다. 보이지는 않지만 아버지는 내 곁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느낀다. 기도 중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을 이제야 눈뜨게 해주신 나의 주님! 늘 나를 업고 힘들게 비틀거리셨을 나의 주님!

신자이긴 하지만 신앙인은 아니었다. 기도는 하였지만 하느님 체험이 없이 그냥 유아적인 발바닥신자였다. 감사는 하지만 간절한 기도는 할 줄 모르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은 무엇일까?

마리아, 너 어디에 있느냐? 나의 부름이 들리지 않느냐? 네가 끌어안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라. “이 길은 누구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안배를 믿고 해보세요.”

예수마리아요셉회 지도 수녀님께서 입회원서를 내주신다.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저 같은 사람도 예수마리아요셉회원이 될 수 있나요?” 반문하며 준비가 안 되었지만 소속감을 갖고, 수녀님 가르침에 잘 순명하리라 마음으로 용기 내어 입회서 각오란에 “봉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영적인 갈증을 해소라도 하려는 듯 입회 후 결석을 앓으려고 그동안 해오던 어떤 일보다 예수마리아요셉회를 우선하여 참석하였다.

수녀원 정문을 들어서면 평화롭고 은혜로움이 충만한 시간이 된다.

“사는 게 죄지요”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저토록 겸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 산전수전 겪으며 사노라면 본의 아니게 남을 힘들게도 하고 오해를 받을 일도 생겨 이 땅에 정의는 어디에 있냐고 항변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 상식이 도무지 통하지 않고 안하무인인 고집 불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나한테 필요 없다고, 무관심한 사람들과 나한테 아픔을 준다고 미워하던 사람이 모두 내 성장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다. 예수마리아요셉회원으로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뜻에 합당하도록 시간을 봉헌하고 미움도 봉헌하고 삶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긍정적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 병에 대한 고통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

‘아직은 아닌데, 왜 나에게? 아이들과 남겨진 가족은 어쩌라고?’

허공에 항변하며 주변사람들을 힘들게 하였다. 아무런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서랍을 정리하고 아이들 앞으로 유서를 쓰기 시작했다. 혹시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 할 것을 대비하여 남편에게도 그동안 하지 못하던 고백을 눈물을 흘리며 적어나갔다. 이제 주님이 부르셔도 이 세상 소풍 다녀가듯이 그렇게 떠나리라 생각하며 텅텅해지기 시작했다.

‘아 내게 하루가 주어진다면 사랑을 하리라.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더 많이 웃으며 친절하리라. 만약에 한 달이 된다면 더 많이 믿어주고 격려하리라. 아니 일 년이 주어진다면 다시 계획을 세워 꿈을 가지리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텅에 텅으로 더 많은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계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분명 당신이심을 믿습니다.’

첫 서약을 하고 리더십 교육을 배우며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생각하게 되었다. 본당에서 예비자 교리봉사를 하라고 하신다. 이전 같으면 요리조리 빠질 궁리만 했을 텐데 ‘네 주님! 쓰시겠다면 미약하나마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제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주님의 일이오니 제게 사랑주시고 그들을 도울 씩씩함도 주소서!’ 라고 응답을 드렸다.

일 년에 입교식을 3번씩 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교리 반에 나간다. 다양한 연령층으로, 다양한 입교동기로 성당을 찾으시는 분들을 안내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교리봉사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고 친교의 분위기를 만들어간다. 예비신자들이 세례성사를 할 때는 한 식구 한 형제 되는 기쁨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며 감동스럽다. 마중물의 역할을 실천하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갱신 후 한 달에 한 번씩 수녀님께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해 주신다. 건강한 부모가 건강한 자녀

를 키운다고 한다. 허물없는 가족 같아 보여도 가족끼리 상처 없이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가정성소가 어찌면 수도생활만큼이나 도 닦을 일이 많은 것 같다. 아마도 수녀님께서 영성모임을 하시며 가정성소에서 가장 가려운 곳이 무엇인지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짐작이 된다.

남편은 눈뜨자마자 경제뉴스로 채널을 돌린다. 시대적인 외환 위기와 경제 불안으로 어깨가 축 쳐져 있다. 아침 뉴스에 기분이 좌우되는 그이를 보면 아담의 원죄려니 생각도 들고, 그도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몫은 안의 해가 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저 밝은 목소리로 위로하는 것이 최선이다. 아이들과 복도에 따라 나가 엘리베이터 단추를 눌러주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만 기도합시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성호를 크게 그으며 아자 아자 파이팅을 외치고 방에 들어온다. 안의 해는 오늘도 주님께 충전 받은 에너지를 해질 때까지 남기지 않고 다 쓰러한다. 내일은 또 축복처럼 내일의 분량을 주시리라 믿으며... 이제는 나보다 훨씬 자라버린 아이들은 저희 가슴에 나를 보듬어 안아준다. 여름에 수녀원에서 진행하는 피정을 다녀온 딸은 성당에서 성가대도 하고 독서도 하며 자신의 영성을 위해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남을 이해하며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하다. 큰 애는 오늘 저녁 떼제 기도를 다녀와서 얼굴이 환해졌다.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은 분명하게 하려고 하고 엄마의 성당 일을 적극 협조해 주며 내년에는 언니도 함께 피정에 참석하자고 권유한다. 일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것이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의 상처는 따뜻한 사람의 위안으로 치유된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지 못한 아쉬움과 후회에 가슴이 아프다.

요즘은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네 그렇군요.”를 많이 사용하며 “안 되는 일 잘 되게 하면 되고~” 광고 회사의 되고 송을 개사하여 대화를 노래로 하며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예수마리아 요셉회 소식지 발송을 맡고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라벨지를 붙이고 스템프를 찍고 우편물을 접으며 온가족이 모여 공동 작업을 통해 화기애애하다. 봉헌의 기쁨과 신앙의 신비여~!

예수마리아 요셉회 회원이 되어 정릉 언덕을 오르내린지 벌써 3년이 되었다. 주변경관도 많이 변했다. 내 인생의 가을에서, 깊어가는 계절 단풍처럼, 곱게 물들고 싶다. 가까이서 보면 적당히 벌레 먹은 자리도 있고 찢어진 자리도 있겠지만 바람을 피하거나 초록만을 고집하고 싶지도 않고 빨강만을 고집하고 싶지도 않다. 건강이 허락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내게 주어진 길을 가려 한다.

10여 년 전부터 복지관에서 숫자를 읽지 못하고 한글을 배우지 못해 삶의 질곡에서 아픔과 원망과 현실의 한계에서 느끼는 그들의 넋두리 섞인 이야기를 들어주며 맞장구 쳐주고 함께 눈물 흘

리며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가르침보다 내가 배우는 것이 더욱 많음을 느낀다. 이곳에선 한자씩 터득할 때마다 “부모도 못 뜨게 해 준 눈을 트이게 해 줘 고맙다”고 인사하며 “자자손손 만대를 이어 축복 받으세요.”라며 내 손을 잡고 흔들며 복을 빌어주신다. 그럴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진다.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입니다.’

결혼 이민자들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알려준다. 어린 나이에 사랑을 찾아 왔건만 기대처럼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행여 사회나 시댁에서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빨리 적응하여 자녀들에게도 가족에게도 친밀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한글뿐만 아니라 노래도, 음식 만들기도, 한국의 예절도 알려주며 표현을 잘 하도록 도와주고 기분 전환을 위해 소풍도 함께 다닌다. 가끔씩은 집에 데려와 영양보충도 시키며 소품 하나라도 선물로 주며, 형제애로 최선을 다하려 한다. 작은 나눔이나 미소에 그들은 안정감을 갖고 순수함으로 다가온다.

설립자 성재덕 베드로 신부님께서는 선교를 하시며 아이들과 얘기하길 좋아하시고 명랑하며 유머가 많으셨다고 한다. 나 역시 밝은 기분으로 그들을 대하지만, 때로는 상호작용이 잘 안될 때가 있다. 완벽하지 못함이 인간의 본질이기에 최선을 다하는 열정으로 예수마리아 요셉정신을 닮고자 머리로는 아닌 가슴으로 더 따뜻하게 손잡아 본다. 예수마리아요셉회원으로 서 성가정의 모범을 따라 살고자 자신을 위한 일보다 강생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부족한 이 마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하는 마음이 기쁘고 가볍다.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보람 있는 삶이고 싶다.

예수님 마리아님 요셉님, 당신들께 의탁하나이다. 아멘

2007년

착복식 (2007. 12. 8)

9명 새 수련자들의 착복예절과 미사가 오전 6시 본원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오 피에르, 이 프리실라, 이 에반젤리나, 강 루하, 방 마누엘라, 이 마리아콜베, 박 루디빈, 박 데레스, 양 베로니까 수녀



2008년

종신서약식 (2008. 2. 21)

윤 파우스티나 수녀 외 12명 소비녀들의 종신서약(제60회) 예절미사가 길음동 성당에서 황인국 몬시뇰의 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지원자 입회 (2008. 3. 19)

성가의 새 봄에 새 가족을 맞이한 지원자 입회가 있었습니다.

이은주 (레오니스), 양선미 (소화데레사), 이수진 (젤뚜르다), 고나연 (베로니까) 자매



청원식 (2008. 9. 20)

2007년 10월 8일에 입회한 2명의 자매들과 2008년 3월 19일에 입회한 4명의 자매의 청원 예절이 있었습니다. 청원의 표지로 성가정패를 받은 자매들은 자기 자신을 알고 성소의 동기를 정화하며, 공동생활과 사도직 실습을 통하여 우리 수도회의 영성과 사명을 배우는 청원기에 들어갔습니다.



첫서약식 (2008. 10. 18)

제67회 첫서약 예절 미사가 한분도 신부님의 집전으로 본원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이 모린, 위에 하비에르, 이 체칠리아, 권 벨리나 수녀



착복식 (200. 12. 8)

7명 새 수련자들의 착복예절과 미사가 오전 6시 총원 성당에서 있었습니다.
김 페트리나, 배 크로체, 최 도미나, 권 아니타, 김 셸린, 김 아녜스, 우 파우스타 수녀





계속수련파견 2008년 세 차례의 계속 수련이 있었습니다.

4월 30일 제3차

16조(한 마르티나, 김 블랑디나, 정 안칠라, 이 메리엔, 강 테오필리아, 조 데레지나, 김 미리암, 이 잔느 수녀)

6월 30일 제2차

25조 (김 베르틸다, 김 내림, 하 안나, 이 레아, 조 효주, 한 요하네스, 이 영해예수, 서 유딧, 황 파니비노, 문 리나 수녀)

8월 30일 제1차

34조(이 베네딕도, 서 로제, 신 예수의베로니카, 정 대철베드로, 박 에제키엘, 권 빈첸시오 수녀)



금경축, 은경축 미사 (2008. 11. 1)

금경축, 은경축 미사가 총원 성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미사 후 성가정의 축복과 기쁨으로 마련한 조출한 축하식이 있었습니다.

금경축 맞으신 수녀님 : 서 마리도미니카, 권 세바스티안, 박 마리테레사, 박 짓다 수녀

은경축 맞으신 수녀님 : 김 레오니아, 윤 이사야, 김 바울리나, 이 젤마나, 윤 요아킴, 정 한나, 장 보나, 이 울릿타, 유 미셀, 박 로사, 박 마자렐로, 고 누갈따 수녀

선종하신 수녀님 나자렛성가정의 작은 여종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다간 그들의 봉헌이 천상성가정의 영원한 기쁨으로 열매맺게 하소서.



정 파비아노 수녀님 선종 (2008. 2. 19)

1937년 2월 10일 인천에서 출생
 1969년 5월 9일 입회
 1972년 5월 1일 첫서약
 1978년 2월 28일 종신서약

정 파비아노 수녀님이 2008년 2월 19일 선종했습니다.

수녀님은 1937년 2월 10일 인천에서 출생하였으며, 1969년 수도회에 입회하여 영원한 천상 성가정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침묵의 관상으로 일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생동안 외적인 활동보다는 성가양재소와 성가병원, 병원, 본원 등에서 주로 바느질 소임을 해 오신 수녀님은 깊고 여린 마음의 곁을 지녔기에 안으로 봉헌하신 아픔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픔과 특별히 오랜 병고의 시간들 안에서 더욱 깊고 섬세한 영혼의 손끝으로 한 땀 한 땀 삶을 바느질해온 수녀님, 평생에 정성이 담긴 자잘한 소품들을 만들어 이웃에게 선물해주곤 했던 수녀님답게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제의를 지어 놓고 갔습니다.

또한 평생 병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오며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웃을 위해 당신의 시신을 기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지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신 수녀님의 뒷자리가 그렇듯 맑고 가벼웠습니다. 수녀님은 이제 하느님 품 안에 계시지만 수녀님의 기도와 사랑은 소비녀들 안에 늘 잔잔한 향기로 남아 있습니다.





김 바오로 수녀님 선종 (2009. 1. 29)

1921년 12월 28일 경기도 광주에서 출생
 1945년 10월 17일 입회
 1948년 7월 2일 첫서약
 1955년 1월 8일 종신서약

김 바오로 수녀님이 2009년 1월 29일 선종했습니다.

수녀님은 경기도 광주 둔전리의 독실한 교우 가정에서 태어나 수도회 초창기인 1945년 10월 17일 2회 소비녀로 입회하였습니다. 수녀님은 첫서원 후 의정부와 대방동에서의 전교 소임, 제천과 합덕 보육원에서 고아들을 돌보는 소임을 한 뒤로 평생 농장과 본원에서 농사를 짓고 정원을 가꾸는 소비녀로 한생을 봉헌하였습니다. 성가의 틀 한 녀에서 언제나 한결 같이 생명을 돌보시던 수녀님의 온유하고 평화로운 모습, 수녀님의 얼굴을 떠나지 않던 따뜻한 미소는 깊은 겸손과 묵묵함으로 나 자락을 지켜주신 요셉 성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기다리며 오랜 병상에서 생의 마지막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수도회와 후배 소비녀들을 위해 바쳐진 수녀님의 기도는 관구 설립이라는 큰 변화와 쇄신의 시기에 꼭 필요한 힘과 빛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큰일을 마친 수도회가 일상으로 돌아와 새 역사를 시작하는 고요한 시간에 수녀님도 맡겨진 소임을 다 끝낸 가난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살아서 수녀님의 생은 숨은 꽃처럼 작았으나 그 빛은 후배들의 소비녀들의 영과 삶 안에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전 회원 연수

전 회원 연수가 월 17~21일까지 5차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 연수에서 서원생활을 심화하기 위하여 우리 수도회의 조 스테파니아 수녀님과 작은형제회 오창선 신부님의 강의가 있었으며, 지난 제14차 총회에서 많은 의견이 나온 회원들의 노령화에 따른 노년기 준비를 위한 강의로 성심수녀회 조현숙 수녀님과 이화여대 이경희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지역별 모임

8월~9월 2달에 걸쳐 지역별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성가복지병원에 관한 내용과 관구설립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나눔을 하였습니다.

사거리 분원 축복식

광주 대교구 사거리 성당 이호 주임 신부님의 요청으로 공부방 수녀님 2명과 성당, 재가 복지를 담당할 수녀님 1명 등 모두 3명의 수녀님을 파견하고 분원을 신설하였습니다. 2008년 2월 27일 총평의원 수녀님들과 새로 발령받은 3명의 수녀님과 성당 신자들, 그리고 비아 분원 수녀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거리 성당 주임 신부님의 집전으로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청풍 분원 사도직 신설

원주교구 남천동 성당 주임 신부님의 요청으로 남천동 성당 청풍공소에 분원을 신설하고 4월 18일 2명의 소비녀가 파견되었습니다.

봉천7동 성당 사도직 신설

서울대교구 봉천7동 이재을 주임 신부님의 요청으로 2008년 2월 21일 사도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상담, 성당 청년부 활성화 그리고 신자들의 영성생활을 위해 진 마리아즈 수녀님이 파견되어 봉천분원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길음 안나의 집 기공 축복식

길음 안나의 집 기공 축복식이 2008년 12월 23일 한분도 신부님의 주례로 있었습니다.

소비녀들이 사는 집에 무의무탁한 이웃을 모시는 집을 마련하기를 바라신 설립자 신부님의 뜻에 따라 지어진 안나의 집이 신비체 가족을 더 잘 모시기 위해 길음 안나의 집으로 거듭나는 공사가 무사히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성소 모임



나자렛 모임 연두빛 새싹 같이 여리고 고운 성소의 꿈을 키우고 있는 중고생들의 나자렛 모임입니다. 1년 동안 있었던 나자렛 모임방의 풍경입니다.



힌나리 모임 2008년 힌나리 모임은 매월 주제를 가진 유익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엮여졌습니다. 모임에 함께 하고 있는 힌나리 자매들의 모습입니다.



힌나리 피정 힌나리 피정이 2008년 8월 15일 오후4시 ~ 17일 오후 3시, 장충동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피정의 주제는 “하느님을 향한 여행”으로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아름답고 따뜻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